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 직시성과 담화연결성

- 독일어 *also* 와 *deshalb*, 한국어 *그러니까*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기능화용론적 연구 -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지 은 영





## 국문초록

### 직시성과 담화연결성

- 독일어 *also* 와 *deshalb*, 한국어 *그러니까*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기능화용론적 연구 -

본 논문은 기능화용론적 바탕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연결사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언어 수단인 연결사는 직시적 어휘에서 파생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시적 표현은 발화 및 텍스트, 문장 내 연결과 관계되는 연결사에 다수 포함되어 독일어의 구조 확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사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연결사에 포함된 직시적 성분의 의미적 특성에 주목하고,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독일어 *also*와 *deshalb*, 한국어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also*의 통사적, 의미적, 의사소통 기능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also*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 분석을 위해 기능화용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기능화용론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 ‘직시성’과 ‘담화연결성’을 소개하였다. ‘직시성’은 직시 절차로 수행되는 지시적 의미 관계이다. 직시적 표현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시적 표현으로 언급되는 대상이 변화하므로, 직시적 표현을 의미론적 정의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담화연결성’은 연결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며, 연결사를 구성하는 형태적 요소의 의미를 바탕으로 생성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also*의 연결성 분석을 위한 세 가지 범주로서 ‘지시의 방향’, ‘연결 층위’, ‘연결 단위’를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also*의 연결 관계들인 ‘추론’, ‘요약’, ‘수정’, ‘상술’, ‘메타 담화 도입’, ‘풀어쓰기’, ‘부연’을 재정의하였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also*의 연결의미 분석을 위한 세 가지 범주를 이용해 실제 인터뷰 대화에서 나타나는 *also*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하여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 ‘수정을 도입하는 ALSO’, ‘요약을 도입하는 ALSO’, ‘부연을 도입하는 ALSO’, ‘상술을 도입하는 ALSO’, ‘담화를 도입하는 ALSO’ 등 총 7개의 담화연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설을 통해, *deshalb*의 담화연결성으로서 ‘추론성을 도입하는 DESHALB’와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를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also*와 의미상·기능상 대역어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하여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요약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담화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등 총 8개의 담화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연결사, 직시성, 담화연결성, 기능화용론, 의사소통 기능

# 목 차

0. 들어가는 말.....	1
1. 연구 대상과 이론적 배경 .....	4
1.1 연구사 및 문제제기 .....	4
1.1.1 <i>also</i> 의 통사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	4
1.1.2 <i>also</i> 의 의미·의사소통 기능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	6
1.1.2.1 Griesbach/Schulz (1962).....	7
1.1.2.2 Dittmar (2002).....	9
1.1.2.3 Deppermann/Helmer (2013).....	11
1.1.2.4 Rehbein (2012).....	16
1.1.2.5 요약.....	18
1.2 이론적 배경: 기능화용론.....	19
1.2.1 기본 개념.....	19
1.2.2 화행 vs. 언어행위 .....	27
2. <i>also</i> 의 기능 분석을 위한 범주 .....	31
2.1 지시의 방향.....	31
2.1.1 연결사의 직시성 .....	36
2.1.2 <i>also</i> 의 절차적 특성 .....	33
2.1.3 <i>also</i> 의 직시성 .....	36
2.2 담화연결성.....	37
2.2.1 담화표지에 관한 논의.....	37
2.2.2 연결 의미 기술의 어려움.....	42
2.2.3 연결 층위와 연결 단위 .....	48
2.3 정리.....	51

<b>3. 담화연결성의 기능 범주.....</b>	<b>54</b>
3.1 추론.....	54
3.2 풀어쓰기.....	61
3.3 수정.....	67
3.4 상술과 부연.....	71
3.5 요약.....	74
3.6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	78
 <b>4. <i>also</i>의 담화연결성 .....</b>	<b>83</b>
4.1 분석 자료.....	83
4.2 분석 방법.....	86
4.3 <i>also</i> 의 담화연결성의 유형 .....	88
4.3.1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	88
4.3.2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	92
4.3.3 수정을 도입하는 ALSO .....	97
4.3.4 요약을 도입하는 ALSO .....	103
4.3.5 부연을 도입하는 ALSO .....	109
4.3.6 상술을 도입하는 ALSO .....	114
4.3.7 담화를 도입하는 ALSO .....	119
4.4 <i>also</i> 의 담화연결성과 문장 내의 위치 .....	125
 부설: <i>deshalb</i> 의 담화연결성 .....	129
1. 결과 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적 부사에 관한 선행 연구 .....	129
2. <i>deshalb</i> 의 절차적 특성 .....	132
3. <i>deshalb</i> 의 담화연결성 .....	134
3.1 추론성을 도입하는 DESHALB.....	134
3.2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 .....	137



<b>5.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 .....</b>	<b>141</b>
5.1 그러니까의 절차적 특성 .....	141
5.2 분석 자료 .....	143
5.3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의 유형 .....	144
5.3.1 선행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 .....	144
5.3.2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	152
5.3.3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	156
5.3.4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	159
5.3.5 요약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	164
5.3.6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	169
5.3.7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	175
5.3.8 담화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	181
 <b>6. also, deshalb,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 비교 .....</b>	<b>187</b>
 <b>7. 결론 .....</b>	<b>192</b>
 참고문헌 .....	206
독문초록 .....	212



## 0. 들어가는 말

인간이 언어로 수행하는 행위의 가장 큰 단위인 담화와 텍스트는 ‘언어행위의 합목적적 조화물 zweckmäßige Ensembles von Sprechhandlungen’ (Redder 2007: 134)로 이해된다. 담화 및 텍스트와 같은 언어행위 연속체가 특정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별 언어행위들의 의미 있는 연결이 필수적이며, 이는 언어행위 연속체의 구성과 이해를 위한 전제가 된다. 언어 행위의 연결 관계를 연결 의미 혹은 연결성 *Konnektivität*이라 하는데, 연결성은 다양한 언어적 수단을 통해 나타난다.<sup>1</sup> 연결사 *Konnektor*는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어 수단으로, 통사적 관점에서 이질적인 그룹이고 의미가 다양하여 체계적 기술이 어렵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연결사 *also*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결사의 연결성 기술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also*는 다양한 맥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연결사이지만 그에 반해 *also*의 형태와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본 문법서에서조차 *also*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Dittmar(2002)에 따르면, *also*는 여러 차원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므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

<sup>1</sup>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적 수단에는 접속사 *Junktionen*, 관계사 *Relativwörter*, 일부 부사어 *Adverbien*, 화법 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n*, 전치사 *Präpositionen* 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Duden (2009: 106) 참조.

<sup>2</sup> Vgl. Stede/Walter (2011: 149).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을 모두 습득하기는 어렵다.<sup>3</sup> 이는 *also*의 사전적 의미의 습득만으로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을 만큼 *also*의 사용 범위와 쓰임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독일어와 인도게르만어에 속하는 다수의 유럽어 연결사는 형태적으로 직시적 어휘에서 파생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sup>4</sup> Redder(2010: 29)와 Ehlich(1989: 33)는 연결사에 포함된 직시적 표현이 텍스트 연결성 생성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연결사의 연결성 기술을 위해, 연결사의 구성요소인 직시적 성분과 연결사의 연결성 간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직시적 표현은 지시의 기준점 *Origo*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므로, 직시적 표현을 의미론적 정의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연결사의 연결성 분석을 위해 연결사의 구성 성분인 직시적 성분의 의미 관계 파악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독일어 연결사 *also*의 담화연결성을 행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능화용론적 관점을 도입한다. 기능화용론은 언어의 행위 이론으로 언어 현상을 ‘실행과 관련된 형태-기능의 구조 *Praxisbezogene Form-Funktionsstruktur*’로 바라봄으로써 언어 수단과 언어 목적 간 관계의 체계적 재구조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기능화용론의 절차 *Prozedur*의 개념을 통해 언어행위를 수행하는 화자와 수용하는 청자의 정신적 과정이 언어행위 분석에 고려됨으로써, 언어행위의 수행과 이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sup>3</sup> Vgl. Dittmar (2002: 162).

<sup>4</sup> Vgl. Redder (2005: 55).

실제 언어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분석 자료로는 질병체험 이야기 german DIPEx (Datebase of Individual Patients' Experiences)의 인터뷰 텍스트를 사용할 것이다. 해당 인터뷰 자료는 환자들의 질병과 관련한 경험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자료로서 제약이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와 일반적인 대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장된 인터뷰이의 발언권으로 인해 인터뷰이의 발화 기여가 비교적 길고, 화자의 대화기여 내의 언어행위 간 연결 관계나 인터뷰어나 인터뷰이 간 언어행위의 연결 관계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된 디팩스 코리아 DIPEx Korea (healthstory4u.co.kr)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언어 간 비교를 하기에 용이하다.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통해 정립한 연결사의 연결성 기술의 방법론을 토대로 *also*와 유사한 사전적 의미를 갖지만, 제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며 *also*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을 보이지 않는 독일어 연결사 *deshalb*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정립한 연결성 기술의 방법론을 검증하는 한편, 두 연결사의 연결성을 비교함으로써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과 직시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also*와 같은 연결사의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화는 비단 독일어라는 개별 언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하는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정립한 *also*의 연결성 분석 방법을 한국어 연결사 *그러니까*의 연결성 분석을 위해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시적 표현에서 파생된 연결사의 의사소통 기능 다양화가 언어 전반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정립한 연결성 분석 방법론의 타당성과 한국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 연구 대상과 이론적 배경

### 1.1 연구사 및 문제제기

#### 1.1.1 *also*의 통사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also*의 쓰임에 비해, *also*의 형태와 의미,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5</sup> 기본 문법서에서조차 *also*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Helbig/Buscha(1986: 476f.)에 따르면, *also*는 의미적 내용이 매우 적거나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화자의 관심과 흥미를 알리거나 발화 행위의 종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Helbig/Buscha(1986)는 *also*를 의미론적 가치보다 의사소통적 가치를 더 갖는, 즉 의사소통 기능이 지배적인 불변화사 Partikel로 본다. Engel (1996: 231)은 *also*를 화법 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n로 구분하고, 발화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등의 변

---

<sup>5</sup> “Es ist erstaunlich und eigentlich paradox, dass gerade die kleinen kurzen und häufig gebrauchten Wörter in ihrer semantischen und diskursiven Funktion wenig untersucht sind.” (Dittmar 2002:162).

형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Duden(1984)에서는 *also*를 인과적 부사어 *Kausaladverbien*<sup>6</sup>의 일종으로 보고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귀결적 부사 *Konsekutives Adverb*로 기술한다. 위에서 언급된 Helbig/Buscha(1986), Engel(1996), Duden(1984)의 *also*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면, Helbig/Buscha(1986), Engel(1996)은 의사소통 기능 차원의 접근을 하고, Duden(1984)에서는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also*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Duden(2009: 576f.)은 Duden(1984)과 다른 관점에서 *also*의 통사적 특성을 기술한다. Duden(2009)에서는 *also*를 대부사 *Pro-Adverb*의 일종으로 보고, 화자 혹은 담화의 장소나 시간과 관련되는 조용적-직시적 부사 *einphorisches-deiktisches Adverb*로 명명한다. Duden(2009)의 기술은 *also*의 어휘 구성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서 *also*를 구성하고 있는 ‘so’의 직시적 의미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문법서에서 *also*를 의미 관계나 의사소통 기능적 차원에서 기술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also*의 의사소통 기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Dittmar(2002: 162ff.)는 ‘*also*의 이중 기능성 *Doppelfunktionalität von also*’에 대해 언급하고, *also*를 고유의 의미 *autosemantische Bedeutung*를 갖는 부사로서의 *also*와 담화 기능 *diskursive Funktion*을 갖는 담화 표지 *Diskursmarker also*로 이분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문법서마다 의사소통 기능, 의미 관계, 어휘의 구성적 특징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also*를 기술하거나, 상황에 따라 ‘부사 *also*’, ‘담화 표지 *also*’ 등의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데, 이는

<sup>6</sup> Duden(1984)에서는 두 개의 문장 혹은 발화를 연결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연결 관계, 즉 인과 관계 *Kausal-*, 목적 관계 *Final-*, 도구 관계 *Instrumental-*, 조건 관계 *Konditional-*, 귀결적 관계 *Konsekutiv-*, 양보적 관계 *Konsessiv-Relation* 를 ‘넓은 의미의 인과 관계 *Kausalbeziehung im weiteren Sinne*’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Duden (1984: 379) 참조.

*also*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문법서에 나타난 *also*의 통사적 범주를 다음의 <표1>에 정리하였다.

<표1>

문법서	년도	통사적/문법적 범주
Helbig/ Buscha	1986	불변화사 Partikel (bei deren die kommunikative Funktion dominiert)
Engel	1996	화법 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
Griesbach/ Schulz	1972	접속사 및 부사 Konjunktion und Adverb (Modalglied, eine Art von Angeben)
Duden	1984	인과 부사 Kausaladverb (konsekutives Adverb zur Kennzeichnung der Folge)
Weinrich	1993	연결 부사 Nexus-Adverb (Konjunktionaladverbien)
Dittmar	2002	부사, 담화 표지 Adverb & Diskursmarker
Duden	2009	대부사, 조응적-직시적 부사 Pro-Adverb sowie ein phorisches-deiktisches Adverb

### 1.1.2 *also*의 의미·의사소통 기능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여기에서는 *also*에 관한 몇몇 주목할 만한 선행 연구를 통해 *also*의 의미·의사소통 기능적 특성에 관한 기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1.2.1 Griesbach/Schulz (1962)

Griesbach/Schulz(1962: 284ff.)는 *also*를 접속사 및 부사어로 보고, *also*의 문장 내 점유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문장의 경계, 즉 통사적으로 문장에 독립되어 나타나는 *also*와 문장에 편입되어 나타나는 *also*로 구분한다. 이 중 문장에 편입되어 나타나는 *also*를 다시 일반적인 의미의 접속사 *also*와 부가어 일종인 양상어 *Modalglieder also*로 분류하고, 접속사 *also*의 연결 의미를 ‘귀결 *Folgerung*’로 명명하였다. 여기에서 ‘귀결’은 기술되는 사태가 이전에 기술된 사태에서 추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7</sup>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 Ich habe kein Geld, ich kann dir also nicht helfen. - Ich aber war sehr menschlich, **also** das Gegenteil von vollkommen. (Hildesheimer)

(Griesbach/Schulz 1962: 284)

예문 (1)의 *also*를 후행하는 언어적 표현 ‘das Gegenteil von vollkommen’은 선행하는 언어적 표현 ‘sehr menschlich’의 세상지식 *Weltwissen*에 포함되고, 이는 선행하는 언어적 표현에서 기술된 사태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귀결적 사태에 해당한다. 반면 양상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입장 *Einstellung des Sprechers*<sup>8</sup>을 알리는 역할을 하

---

<sup>7</sup> also (*Folgerung*)

“Die in den Satz einzugliedernde Konjunktion *also* macht deutlich, dass der beschriebene Sachverhalt aus dem vorher beschriebenen Sachverhalt zu folgern ist.” (Griesbach/Schulz 1962: 284).

<sup>8</sup> Griesbach/Schulz(1962)가 제시한 화자의 입장에는 경고 *Warnung*, 일반화 *Verallgemeinerung*,

는데, Griesbach/Schulz(1962:349ff.)는 양상어로서 기능하는 *also*가 ‘요약 Zusammenfassung’ 및 ‘추론 Schlussfolgerung’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의 예문 (2)를 살펴보자.

(2) Peter, Jochen und ich sind hingegangen. Wir waren **also** zu dritt. – Er ist gestern zurückgekommen. Er wird **also** heute hier zu erreichen sein.

(Griesbach/Schulz 1962: 350)

예문 (2)의 첫 번째 *also*는 ‘요약’을, 두 번째 *also*는 ‘추론’의 도입을 예고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 예문 (1)과 (2)에서처럼 문장에 편입되어 나타나지만 ‘귀결’이나 ‘요약’, ‘추론’ 이외에 다른 연결 의미를 갖는 *also*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 (3)을 살펴보자.

(3) Student: Das ich auch mein Problem, **also** das, was ich im letzten Jahr sagte. Ich bin also mit Texten nicht zurechtgekommen.

(Rehbein 2012: 250)

예문 (3)에서 *also*를 후행하는 언어적 표현 ‘das, was ich im letzten Jahr sagte’는 선행하는 언어적 표현 ‘auch mein Problem’의 귀결적 사태에 해당하지 않고, ‘auch mein Problem’에서 요약되거나 추론될 수 있는 화자의 입장도 아니다. *also*를 후행하는 언어적 표현 ‘das, was ich im letzten Jahr sagte’을 통해 선행하는 ‘auch mein Problem’에 대한 지식이 상세화된 것으로 보인다.

---

결심 Entschlossenheit, 안달 Ungeduld, 비난 Vorwurf, 간절한 소망 Nachdrücklicher Wunsch, 강조 Hervorhebung, 단념 Resignation, 추측 Vermutung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Griesbach/Schulz (1962: 349ff.) 참조.

결론적으로 Griesbach/Schulz(1962)에 나타난 *also*의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설명은 *also*라는 언어행위 자체의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분석이라기보다 *also*를 선행하고 후행하는 언어행위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행위의 의사소통 기능에 관해 논의할 때, 화자 입장의 행위의 관점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불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적 관점에서 *also*의 문장 내의 위치, 즉 통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혹은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연결 의미를 논의하는 것은 *also*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1.1.2.2 Dittmar (2002)

Dittmar(2002: 162ff.)는 여러 차원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also*를 담화표지 Diskursmarker<sup>9</sup>로 규정하고,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가 *also*와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어휘를 습득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마치 모국어 화자와 같은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언급한다. 이는 *also*의 사전적 의미의 습득만으로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을 만큼 *also*의 사용 범위와 쓰임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Dittmar(2002: 163)에 따르

---

<sup>9</sup> Diskursmarker 이외에도 담화표지로 일컬어지는 언어 현상에 대한 다양한 명명들이 있다. discourse marker(Schiffrin 1987), pragmatic marker(Fraser 1996, Brinton 1996), discourse partikel(Schourup 1985, Abraham 1991, Kroon 1995), pragmatic partikel(Östman 1981), pragmatic expression(Erman 1987), connective(Blackmore 1987), Gliederungssignal(Gülich 1970), Sprechhandlungsargument(Rehbein 1979), Operator(Fiehler 2004) 등.

면, *also*와 같은 담화표지는 담화에서 비교적 넓은 전조응적이고 후조응적인 영향 범위 Wirkungsbereich를 행사하며, *also*의 화용론적 의미는 발화 혹은 담화 내에서 해당 표현의 위치에 좌우된다. Dittmar(2002: 163)는 이를 바탕으로 *also*가 원래의 의미 대로 사용되는 부사 *also*와 담화적 기능을 담당하는 *also*로 ‘이중 기능성’을 갖는다고 언급하고, 담화적 기능을 담당하는 담화표지 *also*의 기능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 (a) 발화기여의 시작과 종결을 나타내는 *also* Redebeitraginitiiierendes und abschließendes *also*
- (b) *also*의 연결적 사용 Sequenzieller Gebrauch von *also*
- (c) *also* 수사학적 기능 Rhetorische Funktion von *also*

(Dittmar 2002: 166)

*also*의 담화기능 (a) 발화기여의 시작 혹은 종결을 나타내는 *also*는 대화의 구성과 조직에 기여하는 *also*를 의미하고, (b) 의사소통 단위의 연결을 표시하는 *also*는 선행하고 후행하는 담화의 연결을 표시함으로써 무엇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한다. 끝으로 (c) 수사학적 기능의 *also*는 일상의 되풀이 되는 담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어 막힘없이 자연스러운 담화의 인상을 제공한다.

일단 담화적 기능을 갖는 언어적 표현을 담화표지로 기술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1.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어휘적 표현이 일반 통사적 범주인 부사와 담화표지로서의 *also*로 따로 기술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또한 *also*의 담화 기능으로 제시된 ii)와 iii)의 유형은 *also* 뿐 아니라, 연결사이자 담화표지로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언어적 표현들에도 해당하는 담화표지의 일반적인 담화 기능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구어 대화를 바탕으로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을 기술한 Deppermann/Helmer(2013)의 연구를 살펴보자.

### 1.1.2.3 Deppermann/Helmer (2013)

Deppermann/Helmer(2013: 8ff.)는 전전장 Vorvorfeld<sup>11</sup> 혹은 대화기여의 시작 Turnbeginn 부분에 나타나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a) 다수의 대화기여 시작 Zur Eröffnung eines Multiunit-Turns
- (b) 선호되지 않는 행위의 고시 Anzeige einer dispräferierten Handlung
- (c) 추론 설명의 고시 Anzeige einer Inferenzexplikation

<sup>10</sup> *also*의 담화표지 기술에 관한 문제는 2.1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sup>11</sup> 전전장 Vorvorfeld은 동사복합체가 불연속적으로 위치하고 그 사이에 다른 문장구성 성분들이 나타나는 독일어의 특성을 고려한 통사이론인 ‘위치장 모델 Stellungsfeldermodell’ (Drach 1937)에서 파생되는 용어로서, ‘장 Feld’은 독일어 문장을 이루는 ‘부분들’을 지칭한다. 동사적 성분이 ‘문장괄호 Satzklammer’를 이루고, 문장괄호를 중심으로 왼쪽 ‘문장괄호’의 앞은 ‘전장 Vorfeld (= VF)’, 문장괄호들 사이는 ‘중장 Mittelfeld (=MF)’, 오른쪽 문장괄호 뒤를 ‘후장 Nachfeld (= NF)’로 나누고, ‘전장’의 앞자리에 나타나며 뒤따르는 독립문에 통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부분을 ‘전전장 Vorvorfeld (혹은 Vor-Vorfeld)’이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은영 (2007: 1ff.) 참조.

Deppermann/Helmer(2013)가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 (a) 다수의 대화기여 시작은 여러 단위의 대화기여로 구성된 대화, 예를 들어 논증, 설명, 서술, 지도, 강연 대화 등의 대화기여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 일종의 담화표지 Diskursmarker로서 기능하는 *also*를 포함한다. 이러한 *also*는 대화의 구조적 층위에서 작용하므로, 작용역 Skopus이 어떤 명제나 행위를 포함하는지 명시할 수 없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4)

- 1 P BISSL is es WIE wenn man zum bEIspiel dann RA:dio hört,
- 2 <<t>un::;>
- 3 (-) un\_äh;
- 4 oh (-- ) und TelefOn,
- 5 (.) und ZWEI sind Da:.
- 6 (-) und TREFFen <<all>zuSAMmen,>
- 7 des is ! GANZ ! kOmisches ge[FÜ HL;]
- 8 A [M:H; ]
- 9 (-- ) **also** das TROMmelfell sieht NICHT ganz in Ordnung AUS;
- 10 (-- ) <<all>zumIndestens> verNA:↓RBT;
- 11 (.) <<t>ist das TROMmelfell;>
- 12 (-) <<all> is evEntuell> n\_LOCH drin.
- 13 (.) <<knarrens>aber das kann ich nicht genAU beUR[↓teilen;> ]
- 14 P [das weiß ich nich.]

(Deppermann/Helmer 2013: 9)

예문 (4)는 의사와 환자 대화의 일부이다. 줄번호 1-7에서 환자 P (=

Patient)는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줄번호 8-13까지 이어지는 대화기여에서 의사 A (= Arzt)는 새로운 테마이자 언어 행위 연속체로 구성된 새로운 언어적 행위 ‘진단’의 도입을 위해 *also*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Deppermann/Helmer(2013)가 제시한 대화기여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 (b) 선호되지 않는 행위의 고시는 망설임, 불충분한 대답, 테마의 교체, 수정하기 등의 선호되지 않는 행위를 미리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

- 1 A <<all>>trinken sie> al (.) koHOL?
- 2 P (-) JA ab und ZU,
- 3 (---)
- 4 A **also** jede ↑Woche-
- 5 <<t,all>Oder->
- 6 P mh [NEE:;]
- 7 A [TÄ Glich-]=
- 8 P =**also** pf\_ho;
- 9 (-) vielleicht (.) DREI <<dim> monate ein Ma,
- 10 oder SO;>

(Deppermann/Helmer 2013: 9)

예문 (5)에서 환자는 평소 음주량에 대한 의사의 질문에 대해 줄번호 2에서 ‘때때로 ab und zu’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한다. 줄번호 4-7에서 의사는 보다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며 선택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줄번호 4의 대화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also*는 줄번호 1의 화자의 질문에 대

해 보충하는 발화를 도입한다.<sup>12</sup> 이어서 줄번호 8에서 환자는 정확하지 않아 망설이는 대답 ‘vielleicht drei Monate ein mal oder so’를 *also*와 함께 도입한다. 이때 망설여짐은 ‘pf’와 짧은(0.2-0.5초 정도의) 날숨 ‘h<sub>0</sub>’으로 확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eppermann/Helmer(2013)가 제시한 대화기여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 (c) 대화 파트너의 발화에 관해 간주관적 추론의 설명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also*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의 예는 환자와 임상과의 정신분석학적 상담 대화의 일부이다.

(6)

- 1 PA <<h> nu> da setzen wer uns hin und machen das- (.)
- 2 und das is sehr schön;
- 3 ʘhh und ich glaub das gäb es nich sOnst.
- 4 TP mh:m.
- 5 (0.5)
- 6 TP [mhm.]
- 7 RA [kAnn] ich mir nich vorstellen.
- 8 (2.1)
- 9 TP mhm-
- 10 (1.6)
- 11 TP **also** da is so\_ne vertrauensebene-
- 12 (0.6)

---

<sup>12</sup> Deppermann/Helmer(2013: 9f.)은 줄번호 4의 시작 부분의 *also*에 대해 화자가 듣고자 하는 대답을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한 질문 ‘Trinken Sie Alkohol?’에 대한 ‘수정’으로서 ‘jede Woche oder täglich’을 도입하는 *also*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수정’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행위의 경우, ‘부연 Ergänzung’을 도입하는 *also*로 규정한다. 언어적 행위의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것이다.



13 TP <<p> irgendwie so was,>

14 PA ♪HH <<f> JA::(.) das IS\_es-> (.)

환자 PA (= Patientin)는 줄번호 10까지 딸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임상의 TP (= Therapeutin)는 환자의 복합적인 사태 설명에 대해 하나의 개념적인 결론 ‘vertrauensebene’를 이끌어 낸다. Deppermann/Helmer(2013: 2)는 ‘추론 Inferenz’을 이해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행위라 보았다.<sup>13</sup> 예문 (6)에서 대화기여 시작 부분의 *also*는 이와 같은 추론 설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sup>14</sup>

앞서 살펴본 Deppermann/Helmer(2013)의 *also*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은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왜 반드시 언어행위 *also*가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하고 있지 않다. 이는 언어적 표현 *also*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also*가 갖는 세 가지 기능들을 ‘다양한, 솔직히 모순되는 기능들 verschiedene, ja geradezu widersprüchliche Funktionen’이라 표현함으로써 스스로도 이와 같은 *also*의 의사소통 기능

<sup>13</sup> Deppermann/Helmer(2013: 2ff.)에 따르면, 대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화 파트너의 지난 대화기여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대화기여의 기초 지식 grounding von Turns’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화파트너 간에 간주관성 Intersubjektivität을 만들어 내기 위해 대화 파트너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also*는 모든 의사소통의 과제인 대화파트너의 ‘이해’와 ‘이해에 관련된 추론’을 표현하는 화법불변화사의 일종이다. 여기에서의 추론은 인식적이거나 사태의 수용에 해당하는 추론과 행위의 결론으로서의 추론으로 나뉘 수 있다.

<sup>14</sup> Deppermann/Helmer(2013: 10f.)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화는 기관의 상호작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목적성 (여기에서는 심리상담)을 가지고 장황한 의뢰인의 설명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이끌어 낸다.

기술의 문제를 인정한다. 다음으로는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한 Rehbein(2012)의 연구를 살펴보자.

#### 1.1.2.4 Rehbein (2012)

Rehbein(2012)은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어휘 구성적 특징을 바탕으로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한다. Rehbein(2012: 248f.)에 따르면, *also*는 직시적 어휘와 관계적 어휘로 이루어진 연결사로서 ‘합성 지시어 *zusammengesetzte Verweiswörter*’에 속한다. *also*로 인해 담화 공간으로 ‘일반화하는 지식 *ein verallgemeinerndes Wissen*’<sup>15</sup>이 소환되며, 이를 통해 선행 발화는 불충분한 것으로 분류되고 앞으로 언어화될 지식이 ‘더욱 적합한 표현 *eine angemessenere Formulierung*’임이 예고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

(142) St Ich bekomme kein Feedback.

(143) Ho Ja

(142) St auch keine Korrekturen, nichts, gar nichts.

(144) So dann, dann brauch ich nicht schreiben.

(145) Ja, das ist so, für mich Hochschule.

(146) Oftmals auch Inhalte, die mich nicht interessierten, wobei ich nicht weiß...

---

<sup>15</sup> 여기에서 ‘지식’은 단어의 연속체를 통하여 진술되는 바, 즉 화행론의 ‘명제적 내용’과 유사한 개념이다. ‘지식’은 행위로서의 언어를 인지적 차원에서 탐구한 기능화용론적 관점을 반영한다.

(147) Ho

Hm

(148) St Das ich auch mein Problem, **also** das, was ich im letzten Jahr sagte.

(149) St Ich bin **also** mit Texten nicht zurechtgekommen.

(150) St Ä hm ich hab sie nicht verstanden.

(Rehbein 2012: 249)

예문 (7)은 한 학생 St (= Student)이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선생님 Ho (= Hochschullehrer)에게 설명하는 부분이다. 줄번호 148의 *also*를 통해 이전에 막연하게 표현되었던 ‘mein Problem’의 상세화가 예고된다. 상세화된 지식 ‘das, was ich im letzten Jahr sagte’는 ‘새로운 지식 neues Wissen’으로서, 청자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에 더욱 적합한 표현이다. 줄번호 149에 나타난 *also* 역시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청자의 이해를 위해 더 적합한 표현 ‘mit Texten nicht zurechtgekommen’을 도입한다. *also*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선행 발화를 비판적으로 검사하고 이전 발화의 수정 *Reparierung*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행한다.<sup>16</sup>

Rehbein(2012)이 제시한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은 *also*에 관한 이전의 설명들과 차이를 보인다.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어휘 구성적 특성에 근거하여 *also*를 합성지시어로 보고, *also*를 통해 발화된 언어행위가 초점화되어 후행하는 언어행위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Duden(1984)에 제시된 인과적 부사어로서 *also*나 Dittmar(2002)가 언급한 발화기여의 시작 혹은 종결과 같은 대화의 구성과 조직에 기여하는 *also*의 기능을 설명하지 못한다.

---

<sup>16</sup> *also*의 수정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1.1.2.5 요약

지금까지 *also*의 의미와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Griesbach/Schulz(1972)는 *also*라는 언어행위 자체의 의사소통 기능이 아닌, *also*를 선행하고 후행하는 언어행위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also*의 기능을 설명한다. 하지만 *also*의 기능 기술을 위해 *also*로 연결되는 언어행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수적이다. 그보다 행위적 관점에서 *also*라는 언어행위를 수행하는 화자 입장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 Dittmar(2002)와 Deppermann/Helmer(2013)은 *also*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이 매우 다양하거나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also*의 형태론적 특징으로부터 다양한 기능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Rehbein(2012)에서는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어휘의 구성적 특징을 고려한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하고 있지만, *also*가 갖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사 *also*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체계적 기술을 위해 기능화용론적 관점의 도입을 제안한다. 기능화용론은 언어의 행위 이론으로 언어 현상을 ‘실행과 관련된 형태-기능의 구조

Praxisbezogene Form-Funktionsstruktur'로 바라봄으로써 언어 수단과 언어 목적 간의 관계의 체계적 재구조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기능화용론의 절차 Prozedur의 개념을 통해 언어행위를 수행하는 화자와 수용하는 청자의 정신적 과정이 언어행위 분석에 고려됨으로써, 언어행위의 수행과 이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1.2 이론적 배경: 기능화용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uden(1984)과 Duden(2009)은 *also*에 대한 규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기존에 Duden(1984)에서 *also*를 귀결적 부사로 보았던 것과 달리, Duden(2009)에서 *also*를 일종의 대부사로서 조응-직시적 부사로 명명한 것은 언어현상을 '실행과 관련된 형태-기능의 구조 Praxisbezogene Form-Funktionsstruktur'로 바라보는 기능화용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기능화용론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기존 이론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연결사 *also*의 분석을 위해 기능화용론적 관점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1.2.1 기본 개념

기능화용론 Funktionale Pragmatik은 1970년대 Konrad Ehlich와 Jochen

Rehbein의 연구에 의해 창안되었다. 1930년대 행위 이론 activity theory과  
뵐러의 오르가논 모델 Organon Modell의 영향을 받은 기능화용론은 언어  
의 행위이론이며, 언어를 행위의 한 형태, 즉 ‘언어적 행위 sprachliches  
Handeln’<sup>17</sup>로 본다.

“기능화용론은 언어의 행위이론이다. 이는 기능화용론의 언어개념을 나타  
낸다. 언어는 행위의 한 형태, 곧 언어적 행위이다. Die Funktionale  
Pragmatik ist eine Handlungstheorie von Sprache. Das bedeutet für das  
Sprachkonzept der FP: Sprache ist eine Form des Handelns; Sprache ist sprachliches  
Handlens.”<sup>18</sup>

(Redder 2010: 10)

언어적 행위는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다. 언어의 구조는 역사  
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결과이다. ‘언어의 사회성과 역  
사성 Gesellschaftlichkeit und Historizität’은 언어의 근본적인 자질로서 기능  
화용론의 중심적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언어의 특성으로서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언급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성  
과 사멸의 과정을 거치는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의 관점을 실제 언어 자  
료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질로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의 구조는 언제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의사소통 과정의 결과이자  
동시에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Die Struktur einer Sprache ist stets

---

<sup>17</sup> Vgl. Redder (2010: 10).

<sup>18</sup>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 Handlung’의 개념이 기존의 ‘화행 Sprechakt’에서의 ‘행위  
Akt’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관해서는 1.2.2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das Ergebnis von historisch-gesellschaftlichen Kommunikations-Prozessen und zugleich Ausgangskonstellation für weitere Entwicklungen.”

(Redder 2010: 26)

따라서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언어적 수단은 형태적이며 기능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sup>19</sup>

“행위이론적 기능화용론의 기본 범주는 기호학 이론에서처럼 ‘기호’가 아닙니다. 기호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오히려 역사-사회적으로 발전된 ‘형태-기능’의 단위로 인해 파생된 범주이다. Basiskategorie der handlungstheoretischen Funktionale Pragmatik ist also nicht das Zeichen, wie in semiotischen Theorien. Das Zeichen ist als Mittel zum Zweck vielmehr eine abgeleitete Kategorie für historische-gesellschaftlich entwickelte Form-Funktions-Einheiten. ”

(Redder 2010: 12)

“어떤 언어에 나타나는 언어적 형태에 대해 사용의 복잡성을 고려한 기능적 분석을 내놓는 것은 언어학 연구의 기본 과제라고 생각한다. Meines Erachtens gehört dies zu einer Grundaufgabe linguistischer Arbeit, nämlich der, für eine sprachliche Form, die sich in einer Sprache findet, eine funktionale Analyse zu geben, die der Komplexität der Verwendungen Rechnung trägt”

(Ehlich 1987: 284)

이는 다른 한편으로 기능화용론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 언어학의 모든 연구 분야의 통합 이론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관찰

---

<sup>19</sup> Vgl. Hoffmann (1997: Kap. 2).

하고자 하는 언어적 수단의 크기, 즉 음운, 형태소, 문장의 단위 또는 언어적 수단의 의미 및 기능적 측면을 따로 분리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적 수단의 형태와 그 형태로 나타내는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언어학적 갈래에 익숙한 우리에게 다소 낯설은 제안이지만, 언어학 연구를 통해 언어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고려할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더불어 기능화용론은 각 사회, 즉 개별 언어권마다 역사적으로 발전된 개별 언어 체계의 분석과 함께 통합적 문법 기술에 목적을 두고 있다.<sup>20</sup> 기능화용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실용적 필요에 의해 언어와 언어적 행위를 발전시켜 나가고, 언어적 행위의 형태 Form는 현실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반화된다. 따라서 언어적 행위의 형태는 사회적 목적 gesellschaftlicher Zweck을 통해 규정되고, 개인적인 목표 Individuelle Ziele는 이와 같은 사회적 목적에 기반한 형태의 사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언어는 목적을 위한 매체이자 수단이다. 기능화용론에서는 언어 수단과 언어 목적 간의 관계의 체계적 재구조화를 목표로 한다.<sup>21</sup>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언어와 화자와 청자, 언어 외적인 세계와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sup>20</sup> Vgl. Redder (2010: 9f.).

<sup>21</sup> Vgl. Redder (2010: 10ff.).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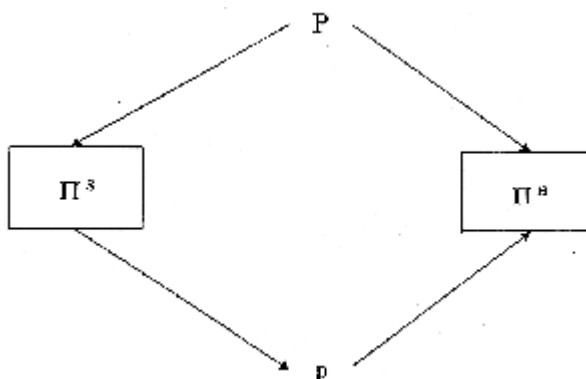


그림1: 기능화용론의 언어 모델

(Ehlich/Rehbein 1986:96)

‘P’는 ‘언어 외적 실제 die außersprachliche Wirklichkeit’, ‘p’는 ‘언어적 실제 die sprachliche Wirklichkeit’를, ‘Π’는 ‘정신적 실제 die mentale Wirklichkeit von Sprecher und Hörer’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기호 Zeichen’가 아닌, ‘언어적 실제 p’가 화자와 청자의 ‘정신적 실제 Π’를 통해 생성되고 수용되는 점이 두드러진다. ‘질문’이라는 언어적 행위 패턴을 이 언어 모델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외적 실제’에서 화자에게 지식의 결핍이 생기고, 화자는 ‘정신적 실제’를 통해 스스로의 지식의 빈 부분을 확정하여, 질문이라는 ‘언어적 실제’를 수단으로 자신의 지식의 결핍을 청자에게서 채우려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질문’이 구성된다.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언어는 행위의 한 형태, 즉 언어적 행위로 정의되는데, 언어적 행위의 단위들은 다음과 같다.

## A. 절차 Prozedur

‘절차’는 가장 작은 언어적 행위의 단위로서 ‘언어-정신적 절차 sprachlich-mentale Prozedur’를 의미하며, 지식의 언어화 관계를 표현한다. ‘절차’는 기능적으로 다섯 개의 장 Felder으로 구분되는데, ‘장’은 뵐러의 ‘언어 장 Sprachliche Felder’에서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Bühler(1982)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두 개의 장, 즉 ‘지시장 Zeigfeld’과 ‘상징장 Symbolfeld’으로 구분하였다. ‘지시장’은 말하는 상황과 관련을 맺는 직시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상징장’은 세계 혹은 세계 지식과 관련한 명명하는 표현들이 주를 이룬다. 기능화용론에서는 일련의 언어 비교 연구를 통하여 ‘절차’를 기능에 따라 다섯 개의 장으로 분화하였다. 각 절차를 수행하는 장의 체계는 보편적이지만, 각 장에 포함되는 언어적 표현 수단, 즉 절차의 수행을 위한 수단들은 각 언어 문화권마다 상이할 수 있고, 개별 언어 체계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sup>22</sup> 독일어의 ‘절차’와 ‘절차’에 포함되는 언어적 수단들은 다음과 같다.<sup>23</sup>

### 1) 명명 절차 Nennende Prozedur (명명장 Symbolfeld):

지식의 활성화 절차 Mentale Prozedur der Wissensaktivierung

z.B. Substantive, Adjektive, Verben...

### 2) 직시 절차 Deiktische Prozedur (직시장 Zeigfeld):

주의력의 일치 과정 Aufmerksamkeits-Synchronisierung

z.B. Personalpronomina, Proadverbien...

### 3) 연산 절차 Operative Prozedur (연산장 Arbeitsfeld):

---

<sup>22</sup>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의 개념을 한국어의 체계에 적용하여 각 절차를 수행하는 언어적 수단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sup>23</sup> Vgl. Redder (2005: 45).

명제의 처리 과정 Verarbeitung der Proposition

z.B. Konjunktion, Partikeln...

4) 조종 절차 Expeditive Prozedur (조종장 Lenkfeld):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자의 언어적 개입

direkt eingreifende sprachliche Kontaktierung des Hörers.

z.B. Interjektion „oh!“

5) 정표 절차 Malende Prozedur (정표장 Malfeld):

상황과 분위기의 표현 목적 Zweck der Expression von

Befindlichkeit und Atmosphäre

z.B. intonatorische Modulation, „Riesen-“

1) 명명장에 해당하는 언어적 수단을 통해 화자와 청자에게 언어적 수단과 연결된 지식이 활성화된다. 주어, 형용사, 동사 등 일반적으로 내용에 해당하는 언어적 표현들이 이에 해당한다.

2) 지시장에 해당하는 언어적 수단을 통해 화자는 청자의 관심을 특정한 것, 즉 화자가 지시하는 어떤 것으로 향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지시적 표현에 해당하는 언어적 표현들과 화자와 청자를 지시하는 1인칭, 2인칭 대명사가 이에 포함된다.

3) 연산장에 해당하는 언어 수단은 언어적 지식이 다른 언어적 지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식의 처리 절차를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문법어에 해당하는 접속사, 관사, 의문사, 격과 성을 나타내는 형태소, 발화지시체 역할을 하는 문장의 억양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조종장에는 감탄사 *oh!* 처럼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자의 언어적 개입의 수단이 포함된다.

5) 정표장에는 상황과 분위기의 표현을 위한 언어적 수단이 포함되는 데, 억양 변화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B. 언어행위 *Sprechhandlung*<sup>24</sup>

‘언어행위’는 ‘절차’보다 큰 언어적 행위의 단위로서, 화행론에서 언어의 기본 단위인 ‘화행 *Sprechakt*’과 비교될 수 있다.<sup>25</sup> 언어행위는 서열의 화행 구성과 마찬가지로, 발화 행위 *Äußerungsakt*, 명제적 행위 *Propositionaler Akt*, 발화수반 행위 *Illokutionaler Akt*, 발화효과 행위 *Pellokutiver Akt*로 구성되며, 명제적 행위는 ‘언어적 행위에서 언어화된 지식 *das in einer sprachlichen Handlung verbalisierte Wissen*’을 의미한다.<sup>26</sup>

#### C. 담화와 텍스트 *Diskurs und Text*

‘담화와 텍스트’는 가장 큰 언어행위의 단위로서 언어행위의 연속체이다. 행위 맥락적 차원에서 담화와 텍스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담화는 청자와 화자가 마주하는 공동의 통일된 언어 환경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텍스트는 청자와 화자가 공존 *Kopräsenz*하는 언어 환경이 결핍되고 화자와 청자의 “과도하게 늘어진 *zerdehnte*” 언어 환경을 연결하는 것에 적합한 언어행위이다.<sup>27</sup>

---

<sup>24</sup> 이원경(2002)은 *Sprechhandlung*을 ‘화행’으로 번역하고, 언어적 행위원형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구어성과 문어성을 포괄할 수 있는 언어행위 개념으로 보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원경 (2002: 170) 참조.

<sup>25</sup>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1.2.2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sup>26</sup> Vgl. Būrig (1996: 75).

<sup>27</sup> Vgl. Redder (2010: 12).

### 1.2.2 화행 vs. 언어행위

1960년대 화용론의 등장 이후, ‘화행 Sprechakt’은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로서 발화 의도를 담고 있는 언어적 표현 분석의 기본 단위로 받아들여졌다. Hohenstein(2006: 99ff.)은 언어적 행위 ‘설명하기 erklären’를 분석하면서 오스틴(Austin)과 써얼(Searle)의 고전적인 화행 이론에 근거해 기존 언어적 행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여겨졌던 ‘화행’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Hohenstein(2006)에 따르면, 화행 이론에서 ‘설명하기 erklären’는 화행을 나타내는 동사이자 설명의 행위를 나타내는 ‘화행’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구어적으로 이루어진 실제 ‘설명하기’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화행이 ‘특정 조건 하에서의 문장 토큰의 생산물 혹은 발행물 production or issuances of a sentence token under certain conditions’로서 ‘문장의 토큰, 타입’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화행은 ‘발화된 문장’ 이상일 수 없는데, 이는 화행 이론의 발화 개념이 문장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보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발화된 문장으로서의 화행은 실제 화자와 청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행위인 언어적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Bühler(1982: 48ff.)는 오스틴(Austin)과 써얼(Searle)에 앞서 ‘화행’과 ‘언어행위’를 구분하였다. 그는 소쉬르 de Saussure가 랑그 la langue의 언어학과 빠롤 la parole의 언어학을 주체화하기 위해 랑그와 빠롤의 대립쌍으로 이분한 것에 대해 불충분한 분류라고 언급하고, 다음의 네 개의 측면에서 언어학의 연구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2>

	I	II
1	H	W
2	A	G

(Bühler 1982: 49)

각각의 약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H: 언어행위 *Sprechhandlungen*<sup>28</sup>

W: 언어 작품 *Sprachwerke*

A: 화행 *Sprechakte*

G: 언어 구조 *Sprachgebilde*

로마 숫자 I 은 주관적, 즉 개인적인 것과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하고, 로마 숫자 II는 주관이 배제된 상호 주관적으로 고정된 현상을 뜻한다. 아라비아 숫자 1, 2는 낮은 형식화의 단계와 더 높은 차원의 형식화 단계를 구분한다. ‘언어행위 H’와 ‘화행 A’는 형식화의 단계로서 구분될 수 있다.

“모든 구체적인 말하기 행위는 인간의 의미 있는 다른 행위와 생활 속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구체적인 말하기 행위는 행위에 속하고 그 자체가 행위이다. [...] 즉 모든 인간이 목적 조정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행위라 명명한다. [...] 우리에게는 순간의 문제, 삶에서 발생하는 과제

<sup>28</sup> ‘Sprechhandlung’은 발화하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발화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와 비교될 수 있는 개념인 ‘Sprechakt’이 이미 ‘(발)화행(위)’이라는 의미로 언어학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화행을 구성하는 행위의 하나인 ‘발화행위 Äußerungsakt’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Sprechhandlung’을 ‘언어행위’로 명명하는 것으로 한다.

가 말하면서 해결되는 상황이 있다. 언어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Denn jedes konkrete Sprechen steht im Lebensverbände mit dem übrigen sinnvollen Verhalten eines Menschen; es steht unter Handlungen und ist selbst eine Handlung. [...] wir nennen alle zielgesteuerten Tätigkeiten des ganzen Menschen Handlungen. [...] es gibt für uns alle Situationen, in denen das Problem des Augenblicks, die Aufgabe aus der Lebenslage redend gelöst wird: Sprechhandlungen”<sup>29</sup>

(Bühler 1982: 52f.)

‘언어행위’는 언어의 행위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기존의 랑그와 빠롤의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자면, ‘언어행위’는 빠롤에 해당하며 언어 Sprache 자체가 랑그로 이해될 수 있다.<sup>30</sup> 반면 ‘화행’은 ‘의미의 확정 Setzung von Bedeutung (durch sachgesteuerte Selektionen)’과 동일시되며, ‘상호 주관적으로 규칙화된 언어 관습 intersubjektiv geregelte Sprachkonventionen’이다.

“언어적 서술은 어디에서나 의미의 불확정성의 여지를 남겨두는데, 이러한 여지는 ‘객관적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말에서 실제로 해소되는 것이다. die sprachliche Darstellung läßt allenthalben Spielräume der Bedeutungsunbestimmtheit offen, die auf keine andere Weise wie durch den Hinblick auf die „objektiven Möglichkeiten“ geschlossen werden können und in jeder menschlichen Rede auch faktisch geschlossen werden.”

(Bühler 1982: 66)

‘언어행위’는 ‘모든 구체적 말하기 jedes konkrete Sprechen’이다. Rehbein

<sup>29</sup> 여기에서는 지광신/최경은 역(2008: 142f.)의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sup>30</sup> Vgl. Bühler (1982: 57f.).

(1995)에 따르면, 화행이론은 발화를 ‘문장’이라는 통사적 범주 안에 존재시킴으로써 실제로 화행의 행위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결국 문장과 발화의 구분을 하지 못함으로써 청자 입장의 행위 과정과 화자 입장의 행위 과정 간의 체계적인 구분을 간과하였다.<sup>31</sup> 반면 Bühler (1982)는 그의 언어 기능 모델을 통해 상징 기능에만 주목하였던 고전적인 기호 개념과 달리, ‘발신자와 수신자의 개념 Sender-Empfänger Konzept’, ‘발화 상황 Sprechsituation’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는데, 이는 언어의 행위적 특성의 분석을 위해 더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맥락에서 Bürig(1996: 73)는 화행이론과 기능화용론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행이론과 다르게 기능화용론은 언어적 행위의 결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언어적 행위의 (정신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경위뿐 아니라,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에 개입시킨다. Anders als die Sprechaktttheorie (in den Verständnis von Searle und Wunderlich) geht die Funktionale Pragmatik nicht vom Resultat einer sprachlichen Handlung aus. Die Vorgeschichte einer sprachlichen Handlung (mentale bzw. interaktional/ diskursiv) als auch die Nachgeschichte werden systematisch in die Analyse mit einbezogen.”

행위 이론은 행위의 요소와 과정을 행위 분석의 중요한 자질로 두고, 언어적 실체와 언어외적 실체의 정신적 처리 과정과 언어화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언어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

<sup>31</sup> Vgl. Hohenstein (2006: 101).

<sup>32</sup> Vgl. Bürig (1996: 73).



## 2.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범주

여기에서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될 기본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핵심 범주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2.1 지시의 방향

#### 2.1.1 연결사의 직시성

Pasch(2003: 550ff.)의 『독일어 연결사 편람 Handbuch der deutschen Konnektoren』에 따르면, *also*, *deshalb*, *deswegen*, *darum*은 대명사적 부사 Pronominaladverbien로 지칭되고, 이러한 대명사적 부사는 a)지시적이며 직시적인 성분 referierende-deiktische Komponente (이하 직시적 성분)과 b) 관계적 성분 relationale Komponente으로 구성된다. *also*, *deshalb*, *deswegen*, *darum*의 *so-*, *d-* (*des*, *da*)는 직시적 성분에 해당하고 ‘대용적 성분 Pro-Element’이라 부른다. *-halb*, *-wegen*, *-um*은 관계적 성분에 속한다. 대명사적 부사의 직시적 성분은 기술된 사태와 관련되며, 관계적 성분은 상위문의 문장 구조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므로 대명사적 부사를 연결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Redder(2010: 29)와 Ehlich(1989:33)에 따르면, 직시적 표현은 발화 및 텍스트, 문장 내 연결과 관계되는 연결사에 다수 포함되어 텍스트 연결성 생성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시적

성분과 연결성의 상관 관계는 기능화용론의 절차적 개념을 통해 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연결사는 언어적 지식이 다른 언어적 지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처리 절차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데, 이때 연결사에 포함된 직시적 성분을 통해 청자의 관심이 특정한 것, 즉 화자가 연결하고자 하는 언어적 지식으로 향함 (직시 절차)으로써 연결 관계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직시적 표현에 의한 연결성 생성의 과정은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고, 따라서 직시적 표현을 포함하는 연결사의 연결성 분석을 위해 전통 의미론적 관점이 아닌 기능화용론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Ehlich(1989: 33f.)에 따르면, 기존 빌러의 직시적 표현 분석은 언어행위를 수용하는 수신자(청자)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직시적 표현은 화자의 주의력을 변화시켜 청자에게 재방향 지시 *Reorientierung*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직시 절차는 화자가 직시적 표현을 이용하여 청자에게 수행하는 방향 지시 절차이다. 직시적 표현을 이용하여 화자는 지시공간에서 지시를 수행한다. 지시는 한편으로 화자가 지시공간의 요소로 정신적으로 수행한 초점성 *Fokussiertheit*의 표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청자에게 이러한 초점화 *Fokussierung*를 전이하는 것이다. 청자는 직시적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동일한 초점화를 수행해서 지시공간에서 자신과 화자에게 있어 공동의 초점화를 생성할 것을 요구받는다. *Die deiktische Prozedur ist eine Orientierungsprozedur, die ein Sprecher vermittelt eines deiktischen Ausdrucks einem Hörer in Gang setzt. Mit Hilfe eines deiktischen Ausdrucks nimmt Sprecher eine Verweisung in einem Verweisraum vor. Die Verweisung ist einerseits Ausdruck*

einer Fokussiertheit, die der Sprecher auf Elemente des Verweisraums mental vorgenommen hat; sie ist andererseits eine Übertragung dieser Fokussierung auf den Hörer, der durch die deiktische Prozedur aufgefordert wird, dieselbe Fokussierung seinerseits zu vollziehen und so eine für ihn und den Sprecher gemeinsame Fokussierung im Verweisraum herzustellen.” (Ehlich 1987:285)

의사소통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청자의 주의력 *Aufmerksamkeit*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인데, 이는 직시적 표현을 수단으로 하는 직시 절차에서 이루어진다.<sup>33</sup> 본 논문에서는 Ehlich(1989)를 참고하여 직시적 표현으로 발생한 지시 관계를 직시성으로 정의한다. 직시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청자가 지시공간에서 공동의 초점화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직시적 표현이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also*의 연결성 분석을 위해 *also*의 절차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자.

### 2.1.2 *also*의 절차적 특성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연결사는 언어적 행위의 유의미한 연결을 담당하며, 언어적 지식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연산 절차 *Operative Prozedur*’에 속한다.<sup>34</sup> *also*는 ‘al-’과 ‘-so’의 합성어<sup>35</sup>이다. ‘al’은 현대 독일

<sup>33</sup> Vgl. Ehlich (1989: 33f.).

<sup>34</sup> 연산 절차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 1) 명제적 연결 & 지식의 처리 혹은 이해의 과정의 일치화  
⇒ 연결사, 불변화사 관련
- 2) 단위들의 언어 내적 관계화 *Relationierung* 와 초점의 연속화  
⇒ 관계사, 격 형태소, (3 인칭대명사의) 조응적 표현 관련
- 3) 지식의 관리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의 범주화

어 ‘all’에 대한 고고지 독일어와 중고지 독일어의 형태이며, ‘전체 Gesamtheit’ 혹은 ‘완전함 Vollständigkeit’을 의미하고,<sup>36</sup> 다른 요소에 붙거나 혹은 떨어져서 의미의 강화를 위해 사용되었다.<sup>37</sup> ‘so’는 텍스트나 상황의 한 요소 혹은 어떤 대상의 한 양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al’과 결합하여 *also*를 이루는데, 중고지 독일어 시대에는 ‘ganz so’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흔적은 1970년대까지 찾아볼 수 있다.<sup>38</sup> *also*외에도 *also*의 약화된 형태인 ‘alse’, ‘als’(영어의 ‘also’, ‘as’에 해당)가 있었는데, 신고지 독일어에서 이 세 가지 표현이 의미의 차이 없이 모두 ‘so’의 의미, 즉 지시적 쓰임으로 사용되었다.<sup>39</sup>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9) warumb thust du also?      1 kön. 1, 6.      Lutherbibel 1912  
 (= Warum tust du also?)      (Grimm 1984: 1030)
- (10) Also sprach Zarathustra.      Nietzsche
- (11) frei will ich leben, und also sterben.      (Dal 1966: 212)

예문 (9)~(11)의 *also*는 ‘so’의 직시적 의미의 강조형 ‘ganz so’의 의미로

---

⇒ 관사 체계, 의문사 관련

#### 4) 추상화

⇒ 부정사와 성(性)형태소 관련

여기에 대해서는 Redder (2010: 25) 참조.

<sup>35</sup> Rehbein(1995: 166f.)은 직시적 어휘와 관계적 어휘로 이루어진 연결사를 ‘합성 지시어 zusammengesetzte Verweiswörter’라 부른다. 인도게르만어에 이러한 종류의 어휘 그룹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Demonstrativadverbien, Pronominaladverb, Präpositionaladverb 등으로 혼재한다. 이는 해당 어휘 그룹에 대한 연구의 미비함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연결사를 기준문법 범주에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접속사로 분류한다면 등위 혹은 종속 접속사의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문장 연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로 명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sup>36</sup> Vgl. Paul (1981: 18).

<sup>37</sup> Vgl. Lexer (1979: 33).

<sup>38</sup> Vgl. Dal (1966: 211f.).

<sup>39</sup> Vgl. Paul (1981: 18).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쓰임은 현대 독일어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also*는 현대 독일어에서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인관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로 사용된다.<sup>40</sup>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Lütten(1977)은 *also*의 의미를 ‘결론적 *konklusiv*’인 것과 ‘설명적 *explikativ*’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예문 (12)을 살펴보자.

(12) Ich denke, also bin ich.

Descartes

예문 (12)에서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초점화되는 ‘ich denke’는 후행하는 언어 행위 ‘ich bin’의 전제 조건이 된다. *also*의 직시적 성분 ‘-so’를 통해 청자의 주의가 선행 언어행위로 초점화되고, 후행 언어행위가 선행 언어행위의 논리적이며 당위성 있는 결과임을 표시해주는 연산 절차가 수행된다. *also*의 절차적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l-’ + ‘-so’ = ‘also’ (예문 9-11에 해당)

명명장 + 직시장 = 직시장

↓ <장 전환>

‘al-’ + ‘-so’ = ‘also’ (예문 12에 해당)

명명장 + 직시장 = 연산장

한편 *also*는 직시 절차에서 연산 절차로 전환하였다.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장 전환 *Feldtransposition*’ 혹은 ‘질적 변화 *qualitativer Umschlag*’라 일컫는다. Redder(2010: 32)에 따르면, 장의 전환은

<sup>40</sup> Vgl. Duden (2009: 572).

언어 변화의 역사적인 경향을 반영한다. 즉 요소들의 고정된 결합으로 개별 요소들의 지시력이 약화되고, 소위 “더 높은 단계로 상승 auf eine höherer Stufe zu heben”이라 할 수 있는 기능화를 이끈다. 이렇게 기능화된 표현들은 결국 언어행위의 인지적 처리를 담당하고, 이로써 연산의 성질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sup>41</sup> *also*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능화되어 다양한 기능을 갖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also*에 포함된 직시적 성분의 직시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1.3 *also*의 직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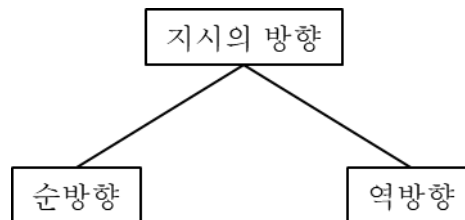
연결사 *also*는 언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직시 절차에서 연산 절차로 장 전환함으로써 연산적 성질을 얻게 되었다가 다시 직시적 목적을 위해 재직시화 Re-Deiktikalisierung<sup>42</sup> 된 것으로 보인다. 재직시화 개념은 *also*와 같이 직시적 표현이 포함된 연결사가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재직시화는 ‘두 번째 단계의 장 변화 Feldtransposition zweiter Stufe’인데, 여기에서는 연산적 성질을 얻어 준연산적 표현이 된 *also*가 다시(‘re-’) 직시적 목적을 위해 기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lso*의 직시적 성분 ‘so’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나 상황의 한 요소나 양상을 지시하는데, 담화 혹은

<sup>41</sup> Dal(1966)은 이와 같은 변화를 ‘물질적인 것에서 관계적인 것으로의 변화 von materieller in relationale Bedeutung’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also*와 같이 연산의 성질을 얻게 된 것을 준연산적 절차 paraoperative Prozedur라 일컫는다.

<sup>42</sup> Vgl. Redder (2010: 37f.).

텍스트 내에서 언어행위 간에 연결을 담당하는 연결사 *also*는 선형적인 언어의 특성 상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언어행위의 일부를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also*의 직시적 성분 ‘-so’의 지시의 방향은 언어행위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순행하거나 이미 수행된 언어행위 방향으로 역행할 수 있고, 지시 대상은 선행하는 언어행위와 후행하는 언어행위 모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결사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핵심 범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범주 1: [지시의 방향]



## 2.2 담화연결성

### 2.2.1 담화표지에 관한 논의

Dittmar(2002)와 Deppermann/Helmer(2013)는 *also*가 갖는 담화를 조직하

는 기능을 근거로 *also*를 담화표지로 기술하였다.<sup>43</sup> 독일어권에서 담화표지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한 Auer/Günthner(2005: 336ff.)에 따르면, 담화표지는 구어에 등장하는 언어 현상으로 중심 발화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면서 다양한 담화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구어 상황에서 언어적 행위가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담화표지의 종류는 발화를 선행하는 것과 발화를 후행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 부사,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 등이 발화를 선행하는 담화표지로 기능한다. 여기에서는 담화표지 *jedenfalls*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also*를 담화표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Auer/Günthner (2005: 337f.)는 일반 부사로서의 *jedenfalls*와 담화 표지로서의 *jedenfalls*를 구분하는데, 전장 혹은 중장에 나타나 일반 부사로 기능하는 *jedenfalls*는 화법적 의미 *modale Bedeutung*로 사용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3) Er ist ein guter Arzt. Jedenfalls sagt man das.

(Auer/Günthner 2005: 337)

예문 (13)과 같이, 일반 부사 *jedenfalls*는 문장 내 전장에 위치함으로 통사적으로 더욱 강하게 후행 문장과 통합되며 이전 발화의 중대성 *Relevanz*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담화표지로서 *jedenfalls*는 이전 담화의 주요한

---

<sup>43</sup> 담화표지란 영미권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보이며 담화의 조직에 기여하는 언어 기호로서, 이 중 발화를 선행하여 나타나는 것을 ‘담화표지 *discourse marker*’라 하고, 발화를 선행하고 후행하는 모든 언어 기호를 일컫는 상위 개념으로서 ‘화용적 표지 *pragmatic marker*’라 명명하였다. 독일어권에서는 ‘화용적 표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이지 않고, 나타나는 위치에 상관없이 ‘담화표지’로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Auer/Günthner (2005: 335f.) 참조.



갈래로 돌아옴을 표시하는 ‘회귀 표지자 Rückkehrmarker’로서 담화의 조직에 기여하는 기능 *diskursstrukturierende Funktion*을 수행한다. 다음의 예문(14)에서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jedenfalls*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14) Domian: Kindstötung

01 T: und ähm ja wie GEHTS,

02 ja BLUtungen gehabt und äh-

03 hh s=dauert zwei drei tage bin ich wieder DRAUßen, (1.2)

04 ((schluckt kurz))

05 irgendwie öhm mh kAnn er da öh ich WEISS NICH;

06 in frAUenkrankheiten bin ich nicht so eh beWANDert;

07 *jedenfalls* (-)

08 ,h wir fahren da zu eh nach hAUse zuRÜ CK, (0.5)

09 und äh in der ZWIschenzeit äh:m hat=sie wohl- (0.7)

10 weil ihr mann AUCH nach hause wOllte, (1.2)

11 und äh: das KIND (.) also (-) äh:m (-) ins bEtt bringen,

(Auer/Günthner 2005: 337)

예문 (14)는 라디오 프로그램 Radio-Phone-In-Programm의 전화 대화이다. 청취자 T는 자신의 형수가 새로 태어난 조카를 살해하였는데, T 자신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형수의 범죄 행위를 기술하고 있다. 화자 T는 줄 번호 01-03에서 범죄 행위를 설명하다가, 04에서 잠시 한숨을 돌린 후, 05-06에서 부인병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부수적으로 발언한다. 그리고 07에서 *jedenfalls*를 통해 이야기의 주요 맥락, 즉 ‘범죄 행위의 기술’로 다시 돌아갈 것이 예고된다. 이를 통해 일종의 주제적 이탈 *Abschweifung* 후에 담화의 주요 맥락

으로 다시 연결되고, 화자는 구어로 이루어진 가장 큰 언어적 행위 단위인 담화 내에서 청자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담화 조직의 기능은 구어뿐 아니라 문어 텍스트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구어로 이루어진 담화와 달리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의 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다. 텍스트는 화자와 청자가 공존하지 않으므로 청자의 이해를 위해 더욱 명시적이며 확정적인 언어로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 단계에서 명시적인 어휘와 구조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텍스트의 성공적인 이해를 위해 중요하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5)

- 01 Puderzucker, flackernde Kerzelein - es hat den Anschein einer perfekten
- 02 Kindergartengeburtstagsüberraschung. Wäre da nicht diese Hand , die den
- 03 Teller der Kamera entgegenhält - auffällig lange Krallen mit auffällig
- 04 buntem Nagellack , verziert in den Farben Schwarz-Rot , dazu passend die
- 05 weißgoldene Mähne , welche am Bildrand verschwindet , das Image aber
- 06 perfekt, sozusagen national, abrundet **Jedenfalls** kein Kindergarten
- 07 Geburtstag – auffälliger Nagellack wird im deutschen Kindergarten ja
- 08 so was von gar nicht geduldet, mit Schrecken erinnere ich mich daran,
- 09 vom Kind flehentlich gebeten worden zu sein, den Lippenstift abzuwischen,
- 10 weil andere Muttis auch immer keinen tragen ! Der Peniskuchen jedenfalls
- 11 war ein Geschenk für Peter Marx, der Ort eine Kneipe in Saarbrücken .

Die Zeit, 14.04.2014<sup>44</sup>

---

<sup>44</sup> 여기에 대해서는 Zeit Online (<http://www.zeit.de/2014/16/kolumne-maenner-npd-peter-marx>) 참조.

예문 (15)는 2014년 4월 Zeit 잡지에 실린 NPD 전 사무총장 Peter Marx의 생일파티 스캔들 관련 기사의 일부이다. 남성의 신체 일부를 형상화한 케이크와 포르노 여배우가 동석한 부적절한 파티에 대한 비난조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기자는 줄번호 02까지 이러한 부적절한 파티를 유치원 생일파티에 비유하고, 02부터 06까지 부적절한 파티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문장 “Jedenfalls kein Kindergarten Geburtstag - auffälliger Nagellack wird im deutschen Kindergarten ja so was von gar nicht geduldet, [...]”이 도입된다. 줄번호 06의 *jedenfalls*는 부적절한 파티의 상황 묘사를 일단 접어두고, 다시 앞에서 언급하였던 의사소통의 주요 갈래인 ‘비유적 표현을 통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비난’으로의 회귀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jedenfalls*가 의사소통의 구성과 조직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연결사 *jedenfalls*가 사태 외의 층위 (여기에서는 담화조직적 층위)로 연결되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5</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edenfalls*가 갖는 의사소통의 구성과 조직의 기능이 구어적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의 구성과 조직의 기능은 구어와 문어 구분없이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담화표지라는 기술은 이미 명명에서부터 구어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언어적 표현을 (*jedenfalls*를 예로 들어,) 일반 부사로서의 *jedenfalls*와 담화표지로서의 *jedenfalls*로 따로 기술하는 것은 이미 구어와 문어의 구분 없이 의사소통 조직의 기능으로 사

<sup>45</sup> 연결사의 연결 층위와 관련하여서는 2.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용되는 *jedenfalls*의 의사소통 기능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언어적 표현들이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의 가변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다양한 기능은 우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형태와 의미 요소들의 역사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의 다양화된 의미와 기능들은 마치 생물의 유전자 정보와 같이 언어적 표현 내에 포함되어 해당 연결사의 담화연결성을 구성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언어 변화는 계속되므로, 현재 사용되는 의미와 기능 역시 변화의 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으로 기능화된 언어행위의 경우 내재적 특성, 즉 어휘적 특성으로부터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여 현재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해당 언어행위를 보다 체계적이고 본질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2.2.2 연결 의미 기술의 어려움

담화연결성 Diskurskonnektivität에 관한 논의는 텍스트 언어학에서 각 문장 단위의 응집 관계 coherence relation로 전체 텍스트의 응집력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의 텍스트가 단순한 문장들의 연속체 이상의 응집력을 갖는 것은 각 의사소통 단위(텍스트에서는 문장

단위)의 유의미한 연결 관계에 기초한다.<sup>46</sup> 응집 관계에 관한 논의의 주된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응집 관계에 대한 인지적 접근(Sanders et al 1992, 1993)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사들을 포함하는) 텍스트 표층에서 응집 관계를 명시하는 어휘적 신호로서 단서 구 cue phrase<sup>47</sup>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이다. 응집 관계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식의 핵심은 여러 가능한 응집 관계 중 하나의 적합한 응집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곧 이해의 과정으로 보고, 응집 관계의 명시적인 정도에 따른 청자의 텍스트 이해의 속도 변화에 있다.<sup>48</sup> 하지만 응집 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텍스트 이해의 측면만으로 국한되었으며, 텍스트 생산의 측면까지 포함한 전체 의사소통 과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가능한 여러 응집 관계 중 적합한 응집 관계로의 인지적 선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응집 관계 혹은 연결 관계의 규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언어적 행위의 의미적 차원이 아닌, 언어적 행위의 생산과 이해의 전 과정을 포함한 인지적 차원의 접근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사의 연결성 분석을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텍스트 내의 문장 응집 관계가 아닌)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의사소통 단위를 연결하는 연결사의 의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결사 자체의 의미론적이며 통사론적인 차원의 기술을 목표로 한다.<sup>49</sup> 이에 따라 텍스트 응집성의

<sup>46</sup> Vgl. Knott/Sanders (1998: 135).

<sup>47</sup> 단서 구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는 ‘clue word’, ‘discourse marker’, ‘discourse partikel’등이 있는데, 본 논문의 2.2.1에서 다룬 담화 표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휘에 대한 cue로서의 사용과 non-cue, 즉 cue로서 기능화되지 못한 본래의 의미로서 사용을 구분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Hirschberg/Litman (1987:163) 참조.

<sup>48</sup> Vgl. Knott/Sanders (1998: 138).

<sup>49</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Pasch et al.(2002: 12)는 연결사의 일부를 이루는 부사어의 지배 관계와 무관한 독립적인 유형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관계를 나타내는 ‘응집 관계’라는 용어 대신 연결사의 연결적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연결 의미’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양한 연결 의미 분석에 앞서, 연결사의 의미 기술에 대해 먼저 살펴 보자. Stede/Walter(2011: 149)에 따르면, 연결사는 통사적 관점에서 이질적인 그룹이고 의미가 다양하여 체계적 기술이 어렵다. 다음은 연결사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연결사의] 의미는 보통의 경우 최소한 두 개의 문장의 의미를 서로 특유의 관계 (*Relation*), 즉 문장들에 의해 기술되고 묘사된 사태들 간의 특유의 관계 (*Beziehung*)와 일치시키고 그것을 통해 텍스트로서 의도된 발화 연속체에 어울리는 특유의 관점을 실현시킨다. Ihre Bedeutung setzt im Normalfall mindestens die Bedeutungen zweier Sätze zueinander in eine spezifische Relation, welche eine spezifische Beziehung zwischen den von den Sätzen beschriebenen und bezeichneten Sachverhalten identifiziert und dadurch einen spezifischen Aspekt realisiert, der geäußerten Ausdrucksfolgen zukommt, die als Texte intendiert sind.”

(Pasch 2003: 1)

Pasch(2003)의 규정에 따르면, 연결사의 연결 의미는 ‘두 개의 문장에 의

---

"Syntaktische Funktion, lexikalische Kategorie und semantische Subklasse sind nach Darstellung der GZ(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bei den Adverbialen wie bei sonst keiner anderen syntaktischen Kategorie eng aufeinander bezogen. Es sei an dieser Stelle bereits darauf hingewiesen, dass diese spezifische Eigenschaft der Adverbiale, semantisch autonom - d.h. rektionsunabhängig - determiniert und typisiert zu sein, das entscheidende Kriterium für die Bestimmung von "Adverbaial" im Rahmen der GDS (Grundzüge der deutschen Sprache) ist, dort einschlägig mit "Autokodierung" benannt."

해 묘사되어 연결된 사태들 사이의 전형적인 관계 중 발화된 표현체에 어울리는 특유의 관점의 실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Fabricius-Hansen (2011: 15f.)에 따르면, 연결사는 단지 문장 단위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통사적 단위<sup>50</sup>들을 연결한다. 연결하느냐의 개념은 형태가 아니라, 의미적 차원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Pasch(200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결사의 의미로 실현되는 두 문장 사이의 특유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특정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연결사의 연결성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Lohnstein(2004: 137)은 연결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문장 연결사의 의미는 참여한 명제들의 특성과 상호작용하고 그로써 연결사가 도입하는 다양한 매개변수에서 열린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상술할 수 있을 만큼 고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So scheint die Semantik der Satzkonnectoren so weit offen zu sein, dass sie mit Eigenschaften der beteiligten Propositionen interagiert und damit die in verschiedenen Parametern offenen Relationen, die die Konnectoren einführen, weiter modifizieren bzw. spezifizieren kann.”

Lohnstein(2004)은 연결사 의미의 가변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것으로 연결사의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기에는 불충분하다. Lohnstein(2004)

<sup>50</sup> 연결사를 통해 연결되는 통사적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무접속사 구문 2)독립적인 문장들과 접속사 3)주어가 없는 정형 동사구의 등위 접속적 연결 4)부사적 종속문 ein abhängiger finiter Adverbial Satz 5)분사구문 6)묘사적 형용사 구문 defektive Adjektivphrasen 7)동격적 전치사로 연결된 소위 절대목적어 absolute Akkusativ 8)명사적 구문, 여기에 대해서는 Fabricius-Hansen (2011: 16ff.) 참조.

의 관점에서 연결사의 연결 의미 파악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연결사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이유와 무엇이 이러한 매개변수의 값을 결정하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연결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연결사 *also*와 *bevor*가 어떻게 서로 다른 매개변수의 값을 갖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사를 구성하는 형태적 요소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갖는 연결사의 연결성 기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Duden(2005)에서는 연결사의 연결 의미가 특정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ㄱ. 일차적으로 개별 발화의 의미와 연결사의 공동 작용

Zusammenspiel

ㄴ. 연결된 사태 사이의 관계만으로 불충분한 의미 맥락이 연결사를 통해 지지

ㄷ. 맥락의 해석을 위해 개별 발화들이 상호 연관되도록하는 청자 혹은 독자의 노력 전제

Duden(2005)에 따르면, 연결된 개별 사태들 간의 관계만으로는 불충분한 의미 맥락이 연결사로 보충되는데, 이때 맥락의 해석을 위해 개별 발화들이 상호 연관되도록 해석하는 청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결국 연결사를 포함한 발화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개별 발화들의 의미를 알고 연결된 사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후, 연결사를 통해 발화 상황에 가능한 상호 관련을 맺도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연결사의 의미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연결사로 인한 언어행위의 연결은 ‘일련의 과정’이며, 여러 가능성 중 적합한 의미 관계를



특정 (혹은 해석) 하는 것이 청자의 이해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Rehbein(2012)은 연결사의 ‘연결성 Konnektivität’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개념 정의: 연결성

(연결성을) 텍스트와 담화에 기반한 역동적 절차라 부르는데, 이러한 절차는 특정한 언어적 수단들을 통해 청자(H)를 출발점과 목표점 사이에서 언어적 행위 차원의 연결로 인도한다. 그 때문에 S(화자)는 여러 언어적 행위를 포함하는 정신적 과정에서 다양한 담화 혹은 텍스트 구조를 기능화한다. Arbeitsdefinition: Konnektivität

Als ein dynamisches text- und diskursbasiertes VERFAHREN bezeichnen, das mit bestimmten sprachlichen Mitteln H zwischen einer Ausgangs- und einer Zielposition zu einer Verknüpfung von Dimensionen sprachlicher Handlungen führt, wozu S in einem mehrere sprachliche Handlungen umfassenden mentalen Prozess verschiedene Diskurs- und/oder Textstrukturen funktionalisiert.” (Rehbein 2012: 23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asch(2003)의 ‘연결사의 의미로 실현되는 두 문장 사이의 특유의 관계’ 혹은 Duden(2005)의 ‘개별 발화의 의미와 연결사의 공동 작용’이라는 설명은 연결 의미 기술의 모호성을 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연결사의 의미는 (보통의 다른 언어적 행위와 달리) 지시되어 고정된 어떤 대상이 아닌,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종의 절차로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결사를 통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연결’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연결 의미로서의) 연결성’의 관점에서 연결사 *also*의 의미가 특정되는 메카니즘과 담화연결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Rehbein(2012)의

연결성 정의에서 제시된, 연결사로 연결되는 ‘언어적 행위의 차원’의 구분  
이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sup>51</sup>

### 2.2.3 연결 층위와 연결 단위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엇을 연결하는나의 개념은 형태가 아니라, 의미적이며 화용론적 차원의 관계에 기초한다. Sweetser(1990)는 연결사를 다의미로 보지 않고, 다양한 층위의 연결로 인해 의미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 연결될 수 있는 층위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는다.

- 1) 발화수반력 관계 Illokutionsbezug
- 2) 인식적 관계 Epistemischer Bezug
- 3) 사태 관계 Sachverhaltsbezug

이는 각각 화행 층위 Sprechaktebene, 입장 층위 Einstellungsebene, 명제적 내용 Propositionaler Gehalt으로 표현되기도 한다.<sup>52</sup> Duden(2006)에서는 여기에 더해 연결의 층위로서 4) 메타담화적 관계 metadiskursiver Bezug를

---

<sup>51</sup> Stede/Walter(2011: 150ff.)는 연결 의미의 체계적 기술의 어려움에 관해 연결사의 연결의미의 다양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연결의 의미가 다양한 원인을 연결사의 연결의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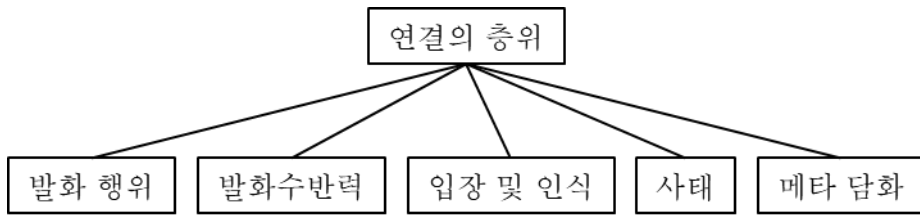
<sup>52</sup> 지금까지 문장 연결의 어휘적이고 통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 되었지만, 연결의 다양한 차원 사이에 작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Fabricius-Hansen (2011: 19ff.)와 Pasch et al. (2003: 100ff.) 참조.

제시한다.<sup>53</sup> Duden(2006)의 관점은 연결사로 연결되는 언어적 행위의 단위를 연결된 발화의 단위뿐 아니라, 가장 큰 언어적 행위인 담화 혹은 텍스트의 차원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기존의 연결 층위에 메타 담화적 관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담화의 언어적 행위 맥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층위의 보다 상세한 구분을 위해 명제적 행위, 발화수반 행위 (발화수반력) 이외에 언어행위를 구성하는 부분 행위<sup>54</sup>로서 발화 행위 (표현 행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발화 행위는 언어행위를 음성적으로 실현시키는 음성 행위와 언어행위가 특정한 문법적 구조를 갖도록 하는 형태 행위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다섯 개의 연결 층위를 모두 포함한 언어행위의 관점에서 연결사의 기능을 구분하고자 한다.

##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범주 2: [연결의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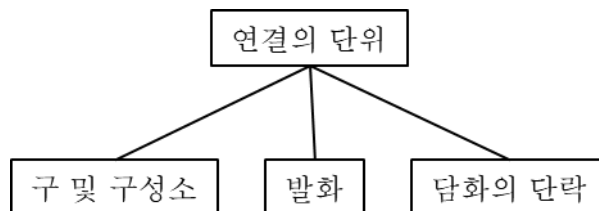
<sup>53</sup> ‘메타 Meta-’, 그리스어로 ‘중간에, 사이에 mitten, zwischen’를 의미한다. 메타의사소통의 역할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는데, 조국현(2003: 337f.)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며 이러한 성찰의 결과가 언어로 표현된 발화 행위를 메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Techtmeier(1984: 183)는 메타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메타 화행의 의사소통 기능으로서 이해의 확보를 위한 것, 효과의 확보를 위한 것, 적절한 대화 진행구성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세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은영 (2007: 45ff.) 참조.

<sup>54</sup> 화행은 ‘부분 행위’로 구성되는데, Searle(1971)은 Austin(1962)의 분류를 발전시켜, 화행을 ㄱ. 발화 행위, ㄴ. 명제 행위, ㄷ. 발화수반 행위, ㄹ. 발화 영향 행위의 네 가지 부분 행위로 구분하였다. ‘발화 행위’란 특정한 구조를 갖는 언어적 표현체인데, 단어의 연속체를 음성적으로 실현시키는 음성 행위와 단어의 연속체가 특정한 문법적 구조를 갖도록 하는 형태 행위를 포함한다. ‘명제 행위’는 명제적 내용을 의미하며, 단어의 연속체를 통하여 진술되는 바를 말한다. ‘발화수반 행위’는 위의 행위들을 통해서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Searle (1971:40f.), 강창우 (2002:338) 참조.



또한 담화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적이며 화용론적 차원의 연결 층위뿐 아니라 연결된 단위의 크기와 범위, 즉 형태·통사적 단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Rehbein(2012: 239)은 연결성을 연결사를 중심으로 뒤따르는 요소와 앞선 요소의 연결로 보고, 발화 내부적으로는 구 혹은 구성소의 단위로부터, 발화외부적으로 전체 발화, 발화수반력, 언어적 행위, 담화 혹은 텍스트의 단락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Rehbein(2012)의 구분에는 형태적 단위와 의사소통적 단위가 혼재하여 있다. 앞서 제시한 ‘기능 분석을 위한 범주 2’를 통해 발화수반적 연결 관계 및 언어적 행위의 연결 층위가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연결 단위의 확인을 위해서는 발화내부적으로는 구와 구성소, 발화외부적으로는 전체 발화 및 담화의 단락 차원의 연결 단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범주 3’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범주 3:[연결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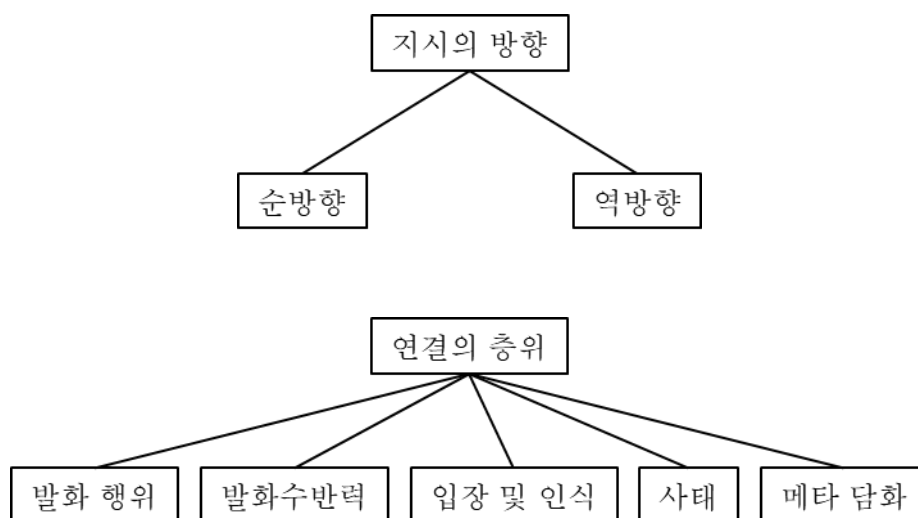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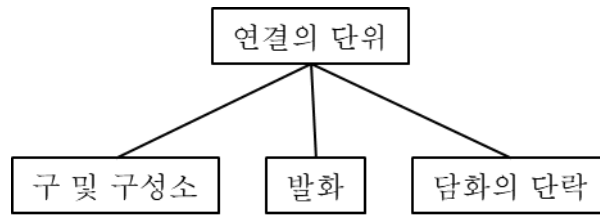
## 2.3 정리

본 논문에서는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우선 *also*의 직시적 성분의 지시의 방향을 확인하여 지시의 대상을 확인하고, *also*로 연결되는 언어적 행위의 차원과 연결되는 언어행위의 형태적 단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lso*는 *also*를 구성하는 요소 ‘*al-*’, ‘*-so*’의 고정된 결합으로 개별 요소들의 지시력이 약화되고 기능화되어, 언어행위의 인지적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also*의 직시적 성분 *so*의 지시력과 *also*의 기능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즉 *also*의 직시적 성분의 지시력이 강할수록 덜 기능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독일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also*의 소멸된 의미 ‘*ganz so*’는 직시적 성분의 지시력이 매우 강하고 덜 기능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직시적 성분의 지시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시적 성분의 지시력은 직시적 성분으로 특정되는 지시 대상을 확인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also*는 언어행위와 언어행위 사이에 위치하여 두 언어행위를 연결하는 연결사로서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언어행위의 일부를 지시한다. *also*에 포함된 직시적 성분을 통해 청자의 관심이 특정한 것, 즉 화자가 연결하고자 하는 언어적 지식으로 향함 (직시 절차)으로써 연결 관계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나의 연결 관계에 있어, 직시적 성분이 동일한 지시방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선 논의에서 연결사의 의미는 지시되어 고정된 어떤 대상이 아닌,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종의 절차

로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결사 의미의 다양성은 다양한 층위의 연결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연결 의미 파악을 위해 연결되는 언어행위의 층위와 형태적 단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담화연결성을 연결사가 나타내는 의미·기능적 특성으로 보고, 연결사를 구성하는 형태적 요소의 의미를 바탕으로 절차적 방식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연결사를 구성하는 직시적 성분의 지시 방향(순방향, 역방향)으로 주의력의 방향이 결정되고, 언어행위의 다양한 연결 층위 (발화 행위, 발화수반력, 인식, 사태, 메타 담화적 차원)와 연결된 언어행위 단위(구 및 구성소, 발화, 담화의 단락)의 크기를 파악함으로써 담화연결성이 특정될 수 있다.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범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3. 담화연결성의 기능 범주

학자들마다 연결사 *also*의 기능에 관한 서로 다른 기술과 용어 사용으로 인해 통일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된 *also*의 기능 범주들 ‘추론’ (Griesbach/Schulz 1962), ‘요약’ (Griesbach/Schulz 1962), ‘수정’ (Rehbein 2012), ‘상술’ (Rehbein 2012), ‘메타 담화 도입’ (Deppermann/Helmer 2013)과 *also*의 예시적 분석을 통해 확인된 ‘풀어쓰기’, ‘부연’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추론

‘추론 *Folgerung*’은 사전적으로 ‘결론<sup>55</sup>을 이끌어 낸 *logische Ableitung einer Folge*’을 의미한다.<sup>56</sup> Paul(1978; 1992)에 따르면, ‘*Folgerung*’은 원래 ‘실재적 결과 *reale Folge*’를 의미했는데, 후에 ‘추론 *Schluss*’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57</sup> 『언어학 사전』에서는 ‘추론 *inference*’을 ‘전제라고 하는 하나 이상의 명제들로부터 결론이라고 하는 명제를 유도해 내는 것’으로

<sup>55</sup> ‘결론’은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 일정한 명제를 전제로 하여 이끌어 낸 판단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참조.

<sup>56</sup> ‘*Folgerung*’은 ‘*Schluss*’ 및 ‘*Schlussfolgerung*’과 유의어 관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휘의 현재 사용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두텐의 공식 온라인사전인 두텐 온라인 Duden Online (<http://www.duden.de/>)을 이용하였다. 온라인 사전은 인쇄된 사전에 비해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up>57</sup> *Folgerung* (1711; W/H), doch früher auch in dem Sinn >reale Folge<; *dass diese Sache noch böse Folgerungen haben würde*. Übersetzung des Gil Blas i.S.v. >*Schluss*< *Folgerungen aus etwas ziehen* (Sa.). Paul (1992: 284).



정의한다.<sup>58</sup> 한편 Lorenz/Mittelstraß(2005: 654f.)의 『철학과 학문학 백과사전 Enzyklopädie Philosophie und Wissenschaftstheorie』에 따르면, ‘Folgerung (Schluss)’은 형식논리학의 핵심 용어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테제의 참이 가정의 참으로서 보증된 경우, 가정 A, ..., An으로부터 테제 A가 추론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테제는 가정(근거, 전제)에서 나온 추론(결과, 결론)으로 명명되고, 가정과 테제(영향, 결과) 사이에 관계는 추론 관계 혹은 귀결 관계 die Folgerungs- oder Konsequenzbeziehung로 불린다. 더 붙여 가정에서 테제로 넘어가게 하는 추론 규칙과 추론 규칙의 적용을 추론 Schluß, eine Folgerung 으로 명명한다. Aus Hypothesen A, ..., An darf man die These A folgern, wenn mit der Wahrheit der Hypothese auch die Wahrheit der These verbürgt ist. Daher heißt sowohl die These eine Folgerung (Folge(logisch), Konklusion) aus den Hypothesen (Gründen, Prämissen) als auch die Beziehung zwischen den Hypothesen und der These (Implikation) die Folgerungs- oder Konsequenzbeziehung. Daneben nennt man auch die Schlußregel, kraft derer von der Hypothese zu der These übergegangen werden darf, sowie eine Anwendung der Schlußregel, also einen Schluß, eine Folgerung.”

위의 논리학적 정의에 따르면, ‘추론’은 전제로부터 나온 ‘결론 Folgerung’을 뜻하고, 동시에 전제에서 결론으로 넘어가게 하는 ‘추론 규칙 Schlußregel’과 ‘추론 규칙의 적용’을 의미한다. 한편 언어학적 의미에서 ‘추론’은 추론 관계를 나타내는 ‘추론적 연결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언어학에서 ‘추론’의 개념은 접속사의 명명을 위해서 맨 처음 사용

---

<sup>58</sup> Vgl. 이정민/배영남 (1987: 450).

되었다. 고대 그리스 문법학자 디오니시오스 트락스 Dionysios Thrax<sup>59</sup>는 라틴어 문법서 「문법학 Ars grammatica」에서 추론적 접속사를 Inferenceals이라 하였고,<sup>60</sup>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한 Arens(1969)는 이를 ratiocinative로 표현하였다.

“추론적 연결사들은 (논리적) 결론과 논거의 추론에 적합하다. *also, demnach, nun aber, demzufolge*가 추론적 접속사이다. Die ratiocinativen sind für die Schlußsätze und Assumptionen der Beweise geeignet; es sind diese: *also, demnach, nun aber, demzufolge*” (Arens 1969: 24)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Griesbach/Schulz 1972, Weinrich 1993, Redder 1989)에 의해 연결사가 나타내는 의미 관계와 관련하여 ‘추론’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sup>61</sup> Duden(1984), Klein(1987: 204), Hartung(1961: 190ff.), Pasch(2002: 55), Buscha(1989: 104f.)는 ‘추론’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Arens(1969)가 제시한 추론적 연결사를 ‘귀결성 Konsekutivität’을 나타내는 귀결적 연결사로 구분한다. 이때의 ‘귀결성’은 넓은 의미의 인과 관계의 역을 의미한다.<sup>62</sup>

<sup>59</sup> 디오니시오스 트락스는 문법서를 저술하면서 접속사를 포함한 8품사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sup>60</sup> 여기에서는 Davidson(1984: 339)의 영어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Inferenceals are those which lend themselves readily to conclusions and summings-up of demonstrations.”

<sup>61</sup> *also*의 관한 Griesbach/Schulz(1962: 284)의 연구에서 ‘추론’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문장 내에 나타나는 접속사 *also*는 기술되는 사태가 이전에 기술된 사태에서 추론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Die in den Satz einzugliedernde Konjunktion *also* macht deutlich, daß der beschriebene Sachverhalt aus dem vorher beschriebenen Sachverhalt zu folgern ist.”

<sup>62</sup> Vgl. Pasch et al. (2002:52f.).

“귀결적 관계는 인과문 (조건문, 양보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포괄적인 원인-결과 관계의 역이다. Die [...] konsekutive Relation stellt [...] die Umkehrung der allgemeinen Grund-Folge-Relation dar, wie sie im Kausalsatz (und im Konditional- und Konzessivsatz) gegeben ist.” (Buscha 1989: 104f.)

Buscha(1989)의 정의에 따르면, ‘귀결적 연결사’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 관계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을 이끄는 연결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Lausberg(1967: 107f.)는 추론적 연결사와 귀결적 연결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반면 Waßner(2004: 410)는 귀결적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귀결성’을 ‘조건성’과 ‘양보성’이 배제된 좁은 의미의 인과 관계의 역으로 정의함으로써 ‘추론성’과 구분하고, *so dass*를 좁은 의미의 ‘귀결성’을 나타내는 연결사로 본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문법서에서 *also*를 귀결적 연결사로 구분한 것은 ‘귀결성’을 넓은 의미의 인과 관계의 역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며, 여기에서 ‘귀결성’은 ‘추론성’과 유사한 의미 즉, 인과 관계의 ‘결과’를 부각하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Waßner(2004)와 같이 ‘귀결성’을 제한된 의미의 인과 관계의 역으로 규정한다면, *also, demnach, nun aber, demzufolge*는 ‘추론적 연결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능 범주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연결사를 통한 연결 관계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추론성 규정을 위해 Waßner(2004)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Waßner(2004: 375f.)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추론적 문장 연결관계 *die folgernde Satzverknüpfungsrelation*’의 기저에 존재하는 의미 관계를 ‘추론성 *Konklusivität*’으로 명명하고, ‘추론성’과 ‘추론적 연결사 *Konklusiv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추론성(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은 화자가 추론 관계에 기초해서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할 때,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문장들 혹은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들 사이에 존재한다. Konklusivität (die folgernde Satzverknüfungsrelation) liegt zwischen zwei oder mehr Sätzen bzw. den von diesen denotierten Sachverhalten vor, wenn der Sprecher deutlich machen will, dass er den Übergang von dem einen zu dem anderen auf der Grundlage einer Schlussfolgerungsbeziehung ausführt.” (Waßner 2004: 375)

“추론적 연결사로 화자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추론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한 문장 내지는 그것에 의해 외연된 사태는 이와 같은 추론적 연결사들로 인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논리적으로) 뒤따르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은 추론에 관계된 것들을 전제와 결론으로 부르는데, 전제는 추론의 토대가 되고, 결론은 전제의 결과이다. Mit Konklusiva erhebt der Sprecher den Anspruch, (i.d.R. mit der Autorität logischer Gültigkeit) zu schließen (zu schlussfolgern). Der eine beteiligte Satz bzw. der von ihm denotierte Sachverhalt wird mittels dieser konklusiven Konnektoren als aus dem/den andern (logisch) folgend gekennzeichnet. Die an dieser Relation beteiligten Relata nenne ich Prämisse und Konklusion. Die Prämisse(n) dient/en als Basis für die Schlussfolgerung, die Konklusion (auch Schluss(folgerung)) ist ihr Resultat.” (Waßner 2004: 376)

Waßner(2004)의 정의에 따르면, 언어학에서의 ‘추론성’은 (실제적인 사태 사이의 관계이기 이전에) 발화된 사태들 사이에 추론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통해 제기된다. ‘추론적 연결사’를 통해 발화된 사태들 사이에 추론성이 있음이 지시된다. 화자는 추론적 연결사의 사용으로

전제에서 결론으로의 이행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동시에 청자에게 논리적 타당성의 가치로 추론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Burkhardt(2002)는 추론성을 ‘추론 규칙과의 (명시적 혹은 함축적인) 관계’로 정의하고,<sup>63</sup> 추론의 기본형 *konklusives Grundmuster*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X - Schlussregel - DESHALB Y

여기에서 X와 Y는 각각 전제와 결론에 해당한다. 자연언어에서 추론 규칙은 대개 명시적으로 언어화되지 않지만, 한 언어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세상지식의 일부로서 언어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통용된다.<sup>64</sup> DESHALB는 전형적인 추론적 연결사로서 전제에서 결론으로 추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표시한다. Waßner(2004: 378)는 추론적 연결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추론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수행적 추론 *performative Schlussfolgerung*’으로 명명하고, *daher, also, folglich, deshalb*를 독일어의 전형적인 수행적 추론 연결사로 보았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sup>63</sup> “Konklusivität als den – expliziten oder impliziten – Rekurs auf eine Schlussregel [...] zu definieren.” Burkhardt (2002: 182).

<sup>64</sup> “추론 규칙은 대개 명시적으로 언어화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규정이 쉽지 않다. Da sie (Schlussregeln) üblicherweise nicht explizit versprachlicht werden, ist es schwierig, sie zuverlässig zu bestimmen.” (Burkhardt 2002:182).

“추론 규칙은 한 언어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세상지식의 일부이고, 따라서 논증(맥락상 추론적 행위)에서 종종 함축적인 전제로 가정된다. 또한 당연히 한 언어공동체 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구속력있는 세상 지식의 한 부분으로 통용된다. Schlussregeln sind ein Teil des gemeinsamen Weltwissens in einer Sprechgemeinschaft und werden deshalb in der Argumentation(konklusive Handlung) oft als implizite Prämissen voraus-gesetzt. Dabei gilt natürlich nur für einen Teil des Weltwissens, dass er von allen Mitgliedern einer Sprechgemeinschaft in gleicher Weise akzeptiert bzw. für sie verbindlich ist.” (Kienpointner 1992: 46).

(16) Diana ist reich. Daher/also/folglich ist sie glücklich. (Waßner 2004: 378)

예문 (16)은 명시적인 추론 관계를 보여준다. 선행하는 언어행위 ‘디아나는 부유하다 Diana ist reich’는 전제이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부 Reichtum와 행복 Glück의 관계에 대한 명제 ‘부유하면 행복하다’가 함축적 추론 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다. 추론 규칙과 전제가 참인 조건에서 ‘그녀가 행복하다 Sie ist glücklich’는 타당한 결론이다. 이때 *daher, also, folglich*는 추론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추론적 연결사로서, 이 밖에도 *demzufolge, demnach, deshalb, darum, deswegen, somit, denn* 등이 추론적 연결사에 속한다.<sup>65</sup> *also*는 여러 문법서 (Arens 1969: 26, Behaghel 1928: 67, Eggs 2001: 67, Engel 1996: 232, Griesbach/Schulz 1972: 284, Paul 2002: 59, Rudolph 1983:100)에서 전형적인 추론적 연결사로 기술된다.<sup>66</sup> *also*로 나타나는 ‘추론성’의 예는 4장의 예시적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논리학적 의미에서 ‘추론’은 참인 전제로부터 추론 규칙을 통해 참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나타낸다. 언어학적 의미에서 ‘추론’은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통해서 선행하는 문장이 참인 명제에 근거해서 후행하는 명제가 참임을 연결사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추론성’이라 부른다. ‘추론성’은 발화된 사태들의 추론 관계, 즉 전제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로부터 결론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를 이끌어 냄을 명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 관계로서, ‘추론’과 달리 발화된 사태들

<sup>65</sup> Vgl. Waßner (2004: 391).

<sup>66</sup> Paul(2002: 59)은 *also*가 “선행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덧붙이는 전형적인 추론적 연결사”라고 하였다.

의 참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언어학적 ‘추론 관계’에서는 ‘추론 규칙’이 대개 명시적으로 언어화되지 않으며, 화자는 추론적 연결사를 통해 ‘추론 관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 3.2 풀어쓰기

‘풀어쓰기 Paraphrase’는 언어학 문헌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의사소통 기능의 하나이지만 명확한 개념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sup>67</sup> ‘Paraphrase’는 사전적으로 ‘(다른 어휘나 표현으로) 바꿔 쓰기 Umschreibung’<sup>68</sup>를 의미하는데, 이는 언어행위를 음성적으로 실현시키는 음성 행위와 언어행위가 특정한 문법적 구조를 갖도록 하는 형태 행위 차원의 변화로서 언어행위의 부분 행위 중 발화 행위 층위의 다르게 표현하기로 이해될 수 있다. Bußmann(2002: 496)에 따르면, ‘풀어쓰기’는 문장 사이에 동의적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명제 논리학 die Aussagenlogik에서 상호 함축 bilaterale Implikation과 동일시된다. 상호 함축은 ‘등가 Äquivalenz’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문장 S1이 다른 문장 S2를 함축하고, S2가 S1을 함축하면 S1과 S2는 등가를 이룬다.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69</sup>

$$\text{wenn } S1 \supset S2 \text{ und wenn } S2 \supset S1, \text{ dann } S1 \equiv S2$$

<sup>67</sup> Vgl. Bühlig (1996: 18f.).

<sup>68</sup> “Umschreibung (eines sprachlichen Ausdrucks mit anderen Wörtern oder Ausdrücken)” Duden Online (<http://www.duden.de/rechtschreibung/Paraphrase>).

<sup>69</sup> Vgl. Lyons (1995: 460).

이에 따라 동의어를 상호 함축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sup>70</sup> 한편 Duden (2006: 1238ff.)에서는 ‘풀어쓰기’를 대화기여를 구성하는 표현 방식의 하나로 보았다.<sup>71</sup> Duden(2006)에 따르면, 대화기여의 구성 과정은 크게 ‘인지적 내용을 언어화 die Versprachlichung kognitiver Inhalte’하는 것과 ‘이미 발화된 언어적 수단의 처리 die Bearbeitung bereits geäußerten sprachlichen Materials’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미 발화된 언어적 수단의 처리’ 과정은 구어의 휘발성 Flüchtigkeit으로 인해, 발화된 언어적 수단을 발화 이후에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발화된 언어적 수단의 처리’ 방식에는 ‘풀어쓰기’와 더불어 ‘교정 Korrektur’, ‘다시 표현하기 Reformulierung’, ‘축소 Reduktion’, ‘확대 Expansion’ 등이 속한다. 다음의 예문 (17)은 발화된 언어적 수단의 처리를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17) Ich könnte ihn sachlich berichtigen aber ich bräuchte

[ihn nicht] [\*ehm] bräuchte [keine persönlichen Stellungnahmen abzugeben].

관련표현 처리지시체

처리표현

(Duden 2006:1241)

<sup>70</sup> “ 두 개의 등가적 문장이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단지 한 문장은 x를 포함하고, 다른 문장은 y를 갖는 것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면, x와 y는 동의어이다. Synonymie kann als bilaterale Implikation oder Äquivalenz definiert werden.[...] Wenn nun die beiden äquivalenten Sätze die gleiche syntaktische Struktur haben und sich voneinander nur dahingehend unterscheiden, dass der eine x hat, wo der andere y hat, dann sind x und y synonym.” (Lyons 1995: 460)

<sup>71</sup> 구어로 이루어진 가장 큰 언어적 행위인 대화는 대화기여 Gesprächsbeitrag 의 연속체이다. 각각의 대화기여는 표현을 구조화하고 조직하며 더 나아가 대화기여를 조직하는 기능단위들 Funktionale Einheiten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 단위는 통사적이거나 운율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대화기여의 표현을 구성하는 표현 과정 Formulierungsprozess 은 1)인지적 내용을 언어화하는 것과 2)이미 발화된 언어적 수단을 처리하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Duden (2006: 1232ff.) 참조.



선행하는 처리될 언어적 수단을 ‘관련표현 Bezugsausdruck’이라 하고, ‘관련표현’이 처리된 것을 ‘처리표현 Bearbeitungsausdruck’이라 한다. ‘처리지시체 Bearbeitungsindikator’는 ‘관련표현’이 변화할 것을 신호한다.<sup>72</sup> ‘풀어쓰기’의 경우, ‘관련표현’과 ‘처리표현’이 의미적으로 거의 동일한데,<sup>73</sup>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풀어쓰기’ 역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들을 나타낸다. Wahrig(2000: 967)는 ‘풀어쓰기’를 ‘명확하게 하는 바꿔쓰기 verdeutlichende Umschreibung’로 명명하였고, Duden(2006)에 따르면, ‘풀어쓰기’를 통해 이해가 확보 Verständnissicherung<sup>74</sup>되거나 강화 Intensivierung 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8) Das war sein *vierter Unfall* in diesem Jahr - \**vier Unfälle*

(Duden 2006:1241)

예문 (18)에서 관련표현 ‘네 번째 사고 vierter Unfall’는 풀어쓰기된 표현 ‘네 번의 사고 vier Unfälle’를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이때 ‘처리표현’ 앞에 ‘\*’은 0.5초 이하의 짧은 휴지를 표시한다.<sup>75</sup> 한편 ‘풀어쓰기’는 ‘다시

<sup>72</sup> Duden(2006: 1241)에서는 예(17)을 관련 표현 ‘ihn nicht’에서 정보가 추가되어 ‘keine persönlichen Stellungnahmen abzugeben’으로 ‘확대’된 것으로 본다.

<sup>73</sup> 이러한 의미에서 ‘풀어쓰기’는 ‘말 늘이기 Dehnung’, ‘어휘 반복 Wortwiederholung’ 혹은 ‘축어적 반복 Repetitionen’과 경계선상에 놓여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Duden (2006: 1239) 참조.

<sup>74</sup> 화자의 발화 중 청자의 이해를 위한 특별한 안전 장치로서, 화자가 청자의 이해를 위해 대화기여의 구조를 분명하게 하는 모든 의사소통적 절차가 이해 확보를 위한 수단에 속한다. 예를 들어 시작 신호, 끝 신호, 조직 신호 등이 대화 기여의 처음과 끝, 내부의 구조화를 위한 신호나 ‘예고 Ankündigung’ 등의 사전적 명시화 vorgreifende Verdeutlichung가 대화기여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Duden (2006: 1240f.) 참조.

<sup>75</sup> Duden(2006)의 설명에 따르면, 예문 (18)에서는 계속되는 발화의 끊김이 풀어쓰기의

표현하기 Reformulierung'와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표현하기'는 '관련표현'과 '처리표현'이 매우 유사하지만 어휘적이고 통사적인 관점에서 처리표현이 관련표현의 양상화 Aspektualisierung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풀어쓰기'와 다르다.

(19) Das ist aufgrund der Bestimmungen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 nicht statthaft nicht möglich.

(Duden 2006:1242)

예문 (19)에서 관련표현 '적법하지 않은 nicht statthaft'이 '가능하지 않은 nicht möglich'으로 표현됨으로써, 사태에 대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의미론적 관점에서 '풀어쓰기'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한 Longacre(1996: 76ff.)는 선행하는 언어행위 A와 '풀어쓰기'를 통해 다시 구성된 언어행위 B 간에 '정보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풀어쓰기'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

- a. 정보가 증가이며 정보의 추가나 손실이 거의 없는 유형  
(등가적 풀어쓰기, 부정된 반의어 풀어쓰기)
- b. 정보의 추가를 포함하는 유형 (일반-상세, 부연)
- c. 정보의 손실을 포함하는 유형 (상세-일반, 생략)
- d. 요약

a-1) I went *home*, I went to the *house*.

---

지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휴지부 자체가 여러 연결의미 중 선택적으로 '풀어쓰기'의 지시체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It's not *hot* but it's *warm*.

b-1) He cooked it, he fried it in vegetable oil.

2) He was unconscious; Dabonay, a woman, had knocked him unconscious.

c-1) They dug up Assyrian ruins, they did some excavation.

2) I won't go to see him, I just won't go.

d) John works at the sawmill; Jim at the repair shop; and Al at the printshop-  
that's what they are all doing.

(Longacre 1996: 77ff.)

a. 정보의 등가를 유지하는 유형은 언어행위 A와 ‘풀어쓰기’된 언어행위 B 간에 정보의 양은 유지하고 다른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때 A와 B 간의 정보량의 등가 *equivalence*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의 언어행위에 사용된 관련 어휘들이 동의어 혹은 유의어 관계에 해당하는 가이다.<sup>76</sup> 예문 a-1)에서 풀어쓰기 관계에 놓인 두 표현 ‘home’과 ‘house’는 현대 영어에서 유의어 관계로 받아들여진다. 예문 a-2)의 언어적 표현 ‘hot’과 ‘warm’은 ‘반의어 관계’로서, 이와 같은 반의어 부정을 통한 풀어쓰기의 종류는 등차성 범위 *gradience scale*<sup>77</sup>에 따라 다음의 세 유형으로

<sup>76</sup> 동의어 혹은 유의어 개념은 언어학뿐 아니라, 철학이나 논리학의 분야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동의어’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동의성의 정도 및 유의어와의 구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종열(2000: 25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동의어’보다 ‘유의어’라는 용어가 선호되는데, 이는 모든 문맥에서 치환되고, 개념적, 연상적, 주제적 의미까지 완전히 동일한 ‘절대적 동의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명희(2007: 175)는 두 개 이상의 단어에 유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장에서 그 전체의 진리치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로 교체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감정적 의미, 환기적 의미는 문제 삼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동의어보다는 유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의어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유의어를 완전 유의어와 부분유의어로 나누고, 동의어는 완전 유의어로 본다.

<sup>77</sup> 등차성 *gradience*는 두 가지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떠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원형 이론 *prototype theory*에서 멤버십의 정도 혹은 실례의 적합도에서 ‘더 알맞은가’의 측면이고 (DensIon 2001, 2006; Aarts 2004, 2007a,

세분될 수 있다.

- 높은 등급 항목 *higher ranking item*에 속하는 일반적인 반의어 부정  
예) *It's not hot but it's warm.*
- 낮은 등급 *lower ranking item*에 속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반의어 부정  
예) *He's a good man but he's no paragon of virtue.*
- 세 개의 가치의 양 끝을 부정하여 중간의 것으로 풀어쓰기 표현  
예) *It's neither hot nor cold; it's just warm.*

예문 a-1)과 a-2)를 살펴보면, ‘등가적 풀어쓰기’란 완전하게 동일한 언어 행위 A와 B가 아닌, 정보량의 측면에서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언어 행위 간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Longacre(1996)는 예문 b), c), d)와 같이 A에 비해, 정보량이 손실되거나 추가되는 모든 유형 역시 ‘풀어쓰기’로 간주한다. 이는 언어 행위 A와 의미적으로 연관된 (축소 혹은 추가된)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언어 행위 B를 ‘풀어쓰기’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풀어쓰기’는 일차적으로 ‘(기존 내용의 변화없는)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Duden(2006)에서도 a)의 경우와 같이 선행하는 언어적 행위(관련표현)와 후행하는 언어적 행위(처리표현)가 의미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만 ‘풀어쓰기’로 보고, 예문 b), c), d)와 같이 후행하는 언어적 행위에서 정보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확대’ 혹은 ‘축소’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Longacre(1996)가 제시한 ‘풀어쓰기’의 다양한 종류 중, ‘정보의 등가 (혹은 추가나 손실이 거의

---

2007b; Rosenbach 2006, 2007; Craft 2007), 다른 하나는 범주 사이의 경계의 흐릿함을 의미한다 (Dension 2006). 여기에 대해서는 Traugott와 Trousdale (2010: 22) 참조.

없는 풀어쓰기)’의 유형만을 엄격한 의미의 ‘풀어쓰기’로 제한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풀어쓰기’는 언어행위 A와 B 간의 동의적 의미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발화 행위 층위의 다르게 표현하기를 포함한다. 동의적 관계란 논리학적으로는 A와 B가 상호함축함으로써 등가를 이룸을 의미하고, 의미론적 관점에서 정보량의 변화없는 동의어 혹은 유의어 관계를 뜻한다. 동일한 의미의 언어적 표현을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것은 설명 혹은 이해의 확보 및 강화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적 기능들을 얻기 위함이다. 한편 ‘다시 표현하기’ 역시 관련표현과 처리표현이 의미상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사태에 대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풀어쓰기’와 구분된다.

### 3.3 수정

‘수정 Reparatur’에 관해서는 주로 대화분석 *Konversationsanalyse* 이론에서 논의되었다. ‘수정’은 대화의 순조로운 진행 과정 중 나타나는 장애 혹은 방해 요소의 극복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sup>78</sup> ‘수정’은 수정 행위 이전에 수행된 부적합한 언어적 행위를 전제한다. Duden(2006: 1240)에 따르면, ‘수정’은 ‘풀어쓰기’와 마찬가지로 대화기여의 구성 과정에서 ‘이미 발화된 언어적 수단을 처리’하는 방식의 하나로 ‘관련표현’, ‘처리지시체’, ‘처리표현’의 순서대로 적합하게 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수정’ 행위에서 ‘관련표현’은 수정의 대상이 되는 언어 행위이다. 대화분석

---

<sup>78</sup> “In der Konversationsanalyse Bezeichnung für diejenigen Techniken, die zur Bewältigung von Störungen verwendet werden.” (Bußmann 2002: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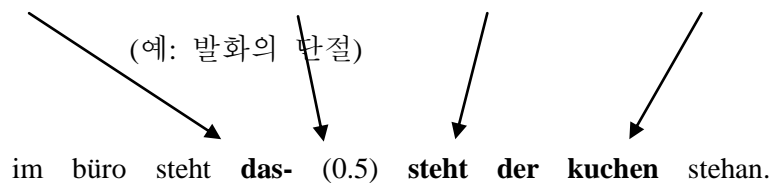
론의 창시자인 Schegloff/Jefferson/Sacks(1977: 361, 381)에 따르면, ‘수정’은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의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상의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수행되며, 언어적 행위 구성 과정에서 ‘스스로 바로잡는 self-righting’ 역할을 수행한다. Schegloff/Jefferson/Sacks(1977)는 의사소통시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의 따라 ‘수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어휘 교체 word replacement (= correction)
- 2) 인물 지시의 수정 repairs on person references
- 3) 다음 화자 선택시 수정 repairs of next-speaker selections

한편 Egbert(2009)는 ‘수정’을 화자와 청자 간의 이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요소 *Störung*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수정’의 언어적 행위는 언어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개별 언어에 따른 문화적 변이 (context sensitive)가 있다.<sup>79</sup>

#### <그림2>

<문제의 발생> - <수정 준비> - <수정 행위> - <수정 종결>



(Egbert 2009: 55)

<sup>79</sup> 예를 들어, 개별 언어 독일어에서 ‘수정’을 도입하는 수단으로서 ‘폐쇄음을 통한 발화의 중단’, ‘음 늘이기’가 있고, 어휘적 수단으로서는 *ich mein, also, ach, oder, moment, eh, ehm, obwohl* 등이 ‘수정’을 도입한다. 여기에 대해서는Egbert (2009: 10, 65ff.) 참조.

<그림2>는 Egbert(2009)가 제시한 수정의 구조이다. Egbert(2009: 65ff.)는 Schegloff/Jefferson/Sacks(1977)가 제안한 ‘수정’을 유발하는 ‘문제의 근원 trouble source’에 언어학적인 것과 상호작용적 기준이 혼재해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의 분류를 제안한다.

- 언어학적 기준에 따른 문제: 어휘 선택, 문법 혹은 구조, 발음
- 상호작용적 기준에 따른 문제: 지시 관계, 다음 화자의 선택

‘상호작용적 기준에 따른 문제’는 전체 대화의 구성적 측면에 해당한다. 반면 ‘언어학적 기준에 따른 문제’는 언어행위의 음성적이고 형태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언어행위의 부분 행위인 발화 행위와 관련한다. Duden(2006: 1241)에서는 수정의 대상에 따라 ‘수정’<sup>80</sup>을 ‘발음 수정 Ausdruckskorrekturen’, ‘표현 수정 Formulierungskorrekturen’, ‘내용 수정 Inhaltsskorrekturen’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이는 Egbert(2009)가 제시한 언어학적 기준에 따른 문제, 즉 발음, 어휘 선택, 문법 혹은 구조에 해당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0)

- 01 I: Sie hatten so erzählt - dass so als die Schmerzen so schlimm wurden. Sie  
 02 sich auch nicht mehr viel zugetraut haben selber. Wie kam denn da dann,  
 03 wie der so die Wende, wenn Sie sagen so jetzt können, Sie sich manches

---

<sup>80</sup> 본 논문에서 ‘수정’으로 번역되는 ‘Reparatur’는 Duden(2006: 1222)에서 대화기여 교체점에서 다음 대화참여자가 발언권을 넘겨받지 않고, 원래의 대화참여자가 자신의 발화를 이어가는 ‘확장’구조의 맥락에서 이야기된다. 이전 구조의 구성소를 다른 것으로 추가적으로 대체하는 개념의 ‘Reparatur’이다. 이는 Schegloff/Jefferson/Sacks(1977)의 미의 ‘교정’에 가깝다. Duden(2006)의 ‘Korrektur’는 본 논문의 ‘수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04 wieder vorstellen an Ideen und so.

05 P:Das ist in x-stadt (Universitätsstadt) passiert. Das war ein eindeutiges

06 Ergebnis dieser zweieinhalb Wochen Schmerztherapie, wie gesagt, ich kann

07 das nur jedem empfehlen. [Das ist] **also** [mich hat das voll aufgebaut ja].

germen DIPEX, CS14: 6

예문 (20)은 구조 혹은 문법 수정에 해당하는 예이다. 등에 만성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예전보다 호전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이다. 줄번호 05-06에서 환자는 어느 도시에서 받았던 통증 치료가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mich hat das voll aufgebaut ja.”라고 이야기한다. 이 같은 발화를 하기 전에 환자는 ‘Das ist’의 구조로 발화를 시작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Duden(2006)의 의미에서의 ‘처리지시체’ *also*를 통해 수정을 지시하고 ‘처리표현’을 통해 ‘관련표현’을 수정한다. 한편 ‘수정 repair’은 ‘교정 correction’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교정’이 ‘실수 error or mistake’에 대한 옳은 것으로의 ‘교체 replacement’라면, ‘수정’은 실수 여부와 무관할 수 있고 ‘대체 혹은 교체’로서 제한되지 않는 언어적 행위들이다. 예를 들어, ‘어휘 탐색 word search’의 과정이 ‘실수’는 아니지만 ‘수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교정’을 ‘수정’의 하위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81</sup>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수정’은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인 언어행위 A와 그것을 바로 잡는 더 적절한 언어행위 B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수정은 문제가 되는 언어행위 A의 종류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데, 크게는 언어학적 기준에 따른 발화 행위 층위의 수정과 상호작용적 기준에

---

<sup>81</sup> Vgl. Schegloff/Jefferson/Sacks (1977: 363).



따른 대화의 구성적 차원의 수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수정’과 ‘교정’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교정’은 ‘실수’에 대한 옳은 것으로의 ‘교체’로 보고, ‘수정’은 실수 여부와 무관할 수 있고 ‘대체 혹은 교체’로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정’을 ‘수정’의 하위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4 상술과 부연

‘상술 Spezifizierung’과 ‘부연 Explikation’<sup>82</sup>은 기존 문헌에서 비교적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 둘은 선행하는 언어행위 A 보다 후행하는 언어행위 B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추가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Rehbein(2012: 249)에 따르면, *also*는 청자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더욱 적합한 표현’인 지식의 ‘상술’을 예고한다. 여기에서 언어행위 B는 선행하는 언어행위 A의 사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정보이다. Duden(2006: 1238ff.)에 따르면, ‘상술’은 ‘풀어쓰기’, ‘수정’과 마찬가지로 ‘이미 발화된 언어적 수단을 처리’하는 방식의 하나이다.<sup>83</sup> 한편 Longacre(1996)는 선행하는 언어행위 A의 의미가 후행

<sup>82</sup> ‘상술 Spezifizierung’과 ‘부연 Explikation’의 용어는 Longacre(2006)의 ‘specification’과 ‘amplification’을 각각 번역한 것으로. 전자는 ‘상세한 설명 detailliert Ausführung’을 의미하고, 후자는 ‘확장되고 더 정확한 설명 entfaltende und präzisierende Erklärung’을 의미한다. 한편 ‘amplification’의 직접적 번역에 해당하는 독일어 ‘Amplifikation’은 수사학과 심리 분석 분야에서 각각 ‘(수사학적) 과장’과 ‘(꿈의 내용) 확장’을 나타내는 개념어로 사용되고 있어 ‘Explikation’이 본 논문의 ‘부연’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더욱 적합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Duden Online (<http://www.duden.de/>) 참조.

<sup>83</sup> 구어에서 이미 발화된 언어적 수단을 처리하는 방식을 크게 수정적 처리 방식과 계속적 처리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상세화’는 계속적 처리 방식인 처리 표현의 확대 Expans

하는 언어행위 B에서 확대된 것 또한 넓은 의미의 ‘풀어쓰기’로 보고, 이러한 경우를 ‘상술 specification’ 및 ‘부연 amplification’으로 보았다.<sup>84</sup> 다음의 예문 (18)과 (19)는 각각 ‘상술’과 ‘부연’의 예에 해당한다.

(18) He cooked it, he fried it in vegetable oil.

(19) He was unconscious; Dabonay, a woman, had knocked him unconscious.

예문 (18)에서 후행하는 언어행위 ‘he fried it in vegetable oil’의 술어 ‘fry (it) in vegetable oil’은 선행하는 언어행위 ‘He cooked it’의 ‘cook’의 하의어로서 선행 언어행위 A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다. 반면 예문 (19)의 후행하는 언어행위 ‘Dabonay, a woman, had knocked him unconscious’를 통해, ‘그가 의식을 잃은 것이 Dabonay라는 어떤 여성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보충된다. 예문 (19)에서 보듯이, ‘부연’은 언어행위 B에서 선행 언어행위가 내용적으로 확장되거나, 맥락상 이해를 위해 필요한 시간, 장소, 태도 등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은 청자 이해를 위해 필요한 상황적 혹은 맥락적 정보를 보충하는 언어적 행위이다. 이처럼 ‘상술’과 ‘부연’은 추가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상술’은 선행하는 언어행위 A의 술어가 B의 술어를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반면, ‘부연’은 후행하는 언어행위 B가 선행하는 언어행위 A에서 보충된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 언어적 행위 ‘상술’과 ‘부연’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ion 방식의 하나이다. 또 다른 확대 방법으로는 ‘명시화 Verdeutlichung’, ‘증대 Steigerung’, ‘예시 Exemplifizierung’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Duden (2006: 1242) 참조.

<sup>84</sup> Vgl. Longacre (1996: 81f.).

(20)

01 P: Die Therapeutin, die hat einfach manuelle Therapie gemacht und hat,  
02 dadurch dass sie jeden Tag praktisch, ja, dass ich jeden Tag auf der Liege  
03 lag und sie hat gesucht, sie hat echt gesucht. Sie konnte es sich am Anfang  
04 gar nicht so. Es hat auch [eine Weile gedauert], **also** [ein paar Tage halt].

germen DIPEX, CS14: 3

예문 (20)은 언어적 행위 ‘상술’의 예로서 어느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 통증이 호전된 환자가 그 병원의 특별한 점에 대해 답하는 인터뷰 대화의 일부분이다. 줄번호 01-04에서 환자는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수행하는 도수치료를 매일 받았고, 효과를 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4에서 선행하는 언어행위 ‘eine Weile gedauert’의 ‘잠시 동안 eine Weile’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후행하는 언어행위 ‘ein paar Tage halt’에서 상술된다. 다음은 ‘부연’의 예이다.

(21)

01 P: Ja. Also ich nehme mal an so mit dreizehn vierzehn, als ich die  
02 Scheuermannsche Erkrankung bekam. Ich bin sehr schnell gewachsen, sehr  
03 groß geworden und [habe sehr viel Sport getrieben, weil ich in der Schule  
04 wohnte und wir hatten den Schulhof immer zum Spielplatz und da habe ich  
05 jeden Tag Hochsprung, Weitsprung, Laufen und dann mit den Kindern, die  
06 kamen alle aus dem Dorf und da haben wir gespielt], **also** [bis zur- bis zum  
07 Abend immer].

germen DIPEX, CS40: 1

예문 (21)은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인터뷰 시작 부분이다. 인터뷰어는 환자에게 처음 발병한 순간과 질병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줄번호 01-07에서 환자는 발작 증상이 청소년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아이들과 매일 저녁까지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한다. 과한 신체활동이 질병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환자는 인터뷰어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황적 정보 ‘bis zur- bis zum Abend immer’를 보충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처리표현인 언어행위 B에서 정보가 추가되는 유형인 ‘상술’과 ‘부연’은 추가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상술’은 선행하는 언어행위 A의 사태에 의미적으로 내포된 구체적 정보를 담는 언어행위이고, ‘부연’은 선행하는 언어행위 A의 이해를 위해 추가된 상황적 혹은 맥락적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행위이다.

### 3.5 요약

‘요약 Zusammenfassung’에 관한 연구는 인지심리학과 컴퓨터 언어학 분야에서 자동 요약의 알고리즘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sup>85</sup> 이러한 연구는 주로 출발 텍스트와 문어적 혹은 구어적으로 요약된 결과물을 비교하여 어휘적 축약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 점에 착안하여 Kintsch/van Dijk(1978)는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에서 ‘요약’을 텍스트를 의미적 거시구조 *semantische*

---

<sup>85</sup> Vgl. Ballstaedt (2006: 117f.).

Makrostruktur로 응축시키는 정신적이며 언어적인 과정으로 보고, ‘요약’의 과정들을 거시연산 Makrooperation이라 하였다. Kintsch/van Dijk(1978)가 도출해낸 요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86</sup>

- 1)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진술의 식별 Erkennen wichtiger und unwichtiger Aussagen
- 2) 일반화와 구성 Generalisieren (Verallgemeinern) & Konstruieren
- 3) 응집성 있는 요약의 작성 Formulieren einer kohärenten Zusammenfassung

이 중 ‘일반화와 구성’ 단계가 실제 언어행위로 수행되는 ‘요약’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2) Die Welt ist durch Fernsehen, Telefon und Internet zu einem globalen Dorf geworden
- (22`) Die Welt ist durch die Medien zu einem globalen Dorf geworden
- (23) Peter wurde gestern von einem Räuber bedroht. Dieser hielt ihm einen Revolver vor die Brust und forderte seine Geldbörse. Aus Angst um sein Leben gab Peter ihm alle Wertgegenstände, die er bei sich hatte.
- (23`) Peter wurde überfallen.

(Ballstaedt 2006: 119)

---

<sup>86</sup> Kintsch/van Dijk(1978)가 제안한 요약의 과정은 이후 여러 학자들 (Endres-Niggemeyer, Waumans/Yamashita 1991, Schnotz, Ballstaedt/Mandl 1981)에 의해 발전되었지만, Kintsch/van Dijk(1978)의 기본 개념에서 크게 변화하기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Ballstaedt (2006: 117) 참조.

예문 (22')와 (23')는 각각 (22)와 (23)의 '일반화'와 '구성'의 예이다. '일반화'는 발화 연속체를 더 포괄적인 의미 영역의 상위어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예문 (22)의 'Fernsehen, Telefon und Internet'은 예문 (22')에서 이것을 포괄하는 어휘 'die Medien'으로 대체되었다. 반면 '구성'은 문장의 연속체를 새로운 진술로 대체하는 것이다. '구성'은 대체되는 문장 연속체가 사태의 통상적인 조건 및 구성요소, 결과, 특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예문 (23)에 기술된 사태, 즉 강도에게 총으로 위협을 받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사건은 예문 (23')의 '침입 Überfall'이라는 사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이처럼 '요약'은 어휘적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사태에 대한 세계 지식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Duden(2006: 1240f.)에서는 '요약'을 '풀어쓰기', '상술'과 마찬가지로 이미 발화된 언어적 표현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하나로 보았다. 이 세 방식의 차이는 선행하는 관계표현과 후행하는 처리표현의 의미적 유사성 및 크기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 '풀어쓰기'의 관계표현과 처리표현은 의미적으로 유사하고, '상술'에서는 관계표현에 비해 처리표현이 의미적으로 확장되며, '요약'에서 처리표현은 관계표현에 비해 의미적으로 축소된다. Longacre(1996: 81f.) 역시 '요약'을 정보가 손실되는 '풀어쓰기'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4) John works at the sawmill; Jim at the repair shop; and Al at the printshop-  
that's what they are all doing.

(Longacre 1996: 81)

예문 (24)에서 선행하는 언어행위 'John works at the sawmill; Jim at the repair

shop; and Al at the printshop'은 세 발화 연속체를 포괄하는 표현 'that's what they are all doing'으로 요약되었다. 이는 Ballstaedt(2006)가 제시한 요약의 종류 중 '일반화'에 해당한다. 'John', 'Jim', 'Al'은 'they'와 'all'을 통해 일반화 되었고, 술어 'works at the sawmill', '(works) at the repair shop', '(works) at the printshop'은 술어 'are doing'으로 일반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화' 현상을 후행하는 언어행위 B에서 선행 언어행위 A의 정보가 축소된 형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Longacre(1996)의 견해는 실행된 전체 언어행위 연속체와 무관하게 언어행위 A와 B의 해당 어휘를 의미론적으로만 비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는 처리 표현 B를 발화하는 상황에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관계 표현 A의 정보는 이미 주어져 있다. 따라서 처리표현 B의 발화를 통해 정보가 더욱 명시화된다. 먼저 언급된 A의 정보가 이미 청자의 머릿속에서 후행하는 언어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 존재하며, B가 포함하는 일반화된 어휘는 내연적으로 A와 유사한 정보량을 유지하는 일반화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요약'은 일반화된 요약과 구성적 요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화된 요약은 언어행위 A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상위어를 사용해서 수행되는 요약 행위이다. 구성적 요약은 언어행위 A에 나타난 사태의 통상적 조건 및 구성요소, 결과, 특성을 언급함으로써 수행되는 언어행위이다. 한편 '요약'을 의미의 손실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선형적인 언어의 특성 상 선행하는 언어행위로부터의 의미의 손실이 아닌 일반화 혹은 구성적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3.6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

Deppermann/Helmer(2013: 8f.)는 *also*를 ‘담화표지’의 일종으로 보고, *also*가 여러 단위의 대화기여로 구성된 대화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 ‘담화 구조적 층위의 담화표지 *der Diskursmarker auf der diskursstrukturellen Ebene*’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Dittmar(2002: 166)는 *also*가 ‘발화기여의 시작 혹은 종결’ 및 ‘의사소통 단위의 연결’을 나타내는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Duden(2006: 1240f.)에 따르면, *also*와 같이 담화의 구성에 기여하는 언어적 표현들은 청자의 이해를 위한 안전 장치로서 ‘이해 확보’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이해 확보의 수단에는 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기여의 구조를 명료하게 하는 청자의 모든 의사소통적 방법이 포함되는데, 특히 메타의사소통의 여러 형태들이 이에 해당한다.<sup>87</sup>

이제까지 논의한 *also*의 여러가지 기능들과 달리,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also*는 담화의 층위와 관련된다. 담화의 기능과 구조에 관해 연구한 Techtmeier(1984)는 담화를 거시구조 *Makrostruktur*로 보고, 담화를 이루는 연속체 *Sequenz*를 거시구조 내의 부분 행위, 즉 미시구조 *Mikrostruktur*로 구분하였다. 이때 담화 및 담화를 이루는 연속체의 조직에 기여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메타의사소통이라 하는데, 메타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 *Kommunikation über Kommunikation*’으로 정의

---

<sup>87</sup> 대화기여의 구조를 명료하게 하는 의사소통적 방법으로는 시작 신호, 끝신호, 조직 신호를 통한 대화 기여의 처음과 끝, 내부의 구조화를 신호하는 것과 예방적 명시화 *vorgreifende Verdeutlichung*로서 예고 *Ankündigung*의 행위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Duden (2006: 1240f.) 참조.



된다.<sup>88</sup> ‘메타 Meta-’는 그리스어로 ‘중간에, 사이에’를 의미하고, 메타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사이의 의사소통’, 즉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89</sup> 메타의사소통은 랑그로서의 언어 Sprache 혹은 빠를로서의 언어 수행 혹은 말하기 Sprechen에 대한 화자들의 의사소통이다.<sup>90</sup> 한편 Watzlawick/Beavin/Jackson(1969: 55f.)은 의사소통의 내용 층위 Inhaltsebene와 관계 층위 Beziehungsebene를 구분하고, 관계 층위를 내용 층위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메타의사소통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컴퓨터의 명령과 데이터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달되어야 할 데이터를 의사소통의 내용으로 보고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지가 메타의사소통의 명령을 통해 지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의사소통시 메타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참여자에게 내용의 이해를 위한 방향이 지시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처럼 메타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메타의사소통의 과잉 현상은 대화참여자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고, 반대로 메타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는 의사소통 장애로 이어진다.<sup>91</sup> Gülich(1970: 297)는 의사소통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메타의사소통적 기능이 담당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청자에게는 화자의 이야기 구성과 내용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

<sup>88</sup> 여러 분야의 전문가 100명에서 ‘메타의사소통 정의’에 관한 설문을 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메타의사소통의 정의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메타의사소통이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이라는 견해가 다수의 학자들에게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Techtmeier (1984: 122) 참조.

<sup>89</sup> 이는 본 논문 2장에서 빌러의 개념을 빌어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사가 세상을 지시하는 언어적 표현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것 간의 의미를 지시하는 일종의 메타 언어로 규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Bußmann (2002: 431), Glück (1993: 386), Techtmeier (1984: 122f.) 참조.

<sup>90</sup> Vgl. Bußmann (2002: 431).

<sup>91</sup> Vgl. Bußmann (2002: 431).

고, 2) 화자에게는 이야기의 구성 수단으로 쓰인다. Kommunikative Funktion, d.h. 1.) sie geben dem Hörer Orientierungshilfen für Aufbau und Inhalt der Rede des Sprechers, 2.) dienen sie dem Sprecher als Hilfsmittel bei der Formulierung seiner Rede.”

이처럼 메타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전반에 걸쳐 발화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담화의 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담화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다. 한편 Techtmeier(1984: 108, 143ff.)는 담화의 구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시구조가 담화를 이루는 담화의 기본 목적에 따라 구성된다고 하였다. 즉 언어적 의사소통의 모든 프로세스는 상위의 근본적인 목표 설정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메타의사소통의 기능 또한 화자의 전체 담화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기여한다. 화자는 담화를 구성할 때 담화의 근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계획하는데, 이와 같은 계획은 담화의 시작 전뿐 아니라, 전체 담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지속적인 상황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메타의사소통적 수단들이 담화의 계획과 구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Techtmeier (1984: 143f.)는 이러한 관점에서 메타의사소통의 기능을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ㄱ. (담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의 차단 및 예방

ㄴ. 담화 조직의 기능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앞서 언급된 ‘담화의 구조적 층위의 담화표지로

서 *also*', '발화기여의 시작 혹은 종결을 표시하기 위한 *also*'는 Techtmeier(1984)가 제시한 메타의사소통의 기능, '나. 담화 조직의 기능'에 해당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6)

01 I: Was wurde Ihnen denn von den Ärzten empfohlen? Was haben Sie da für

02 Erfahrungen gemacht?

03 P: **Also**, mir wurde gar nichts empfohlen. Ich sage ja, ich bin da auch relativ hilflos alleine gewesen.

germen DIPEx, CS31: 6

예문 (26)에서 인터뷰어는 환자에게 의사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한다. 환자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also*로 도입한다. 이때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also*는 다음 예문 (27)과 같이 문장의 전전장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27) Also, || mir || wurde || gar nichts || empfohlen.

VVF      VF      LK              MF              RF

Thim-Mabrey(1988: 53)에 따르면, 어떤 언어적 표현이 문장 내의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나 전전장에 위치한다면 이는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lso*는 문장 내 다양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으나, 몇몇 기능에 있어 문장 내 특정 자리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

인다.<sup>92</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also*는 선행하는 언어행위 A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언어행위 B를 전체 담화의 구성적 차원과 연결한다. 이와 같은 연결 관계는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also*가 문장 내 전전장에 나타나는 위치적 특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내는 언어적 수단은 담화의 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소통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

<sup>92</sup> *also*의 문장 내 점유 위치와 기능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의 *also*의 담화연결성에 관한 예시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 4. *also*의 담화연결성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한 자질들을 활용하여 실제 대화에서 나타나는 *also*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질병체험 이야기 german DIPEX (Database of Individual Patients' Experiences)의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였다.<sup>93</sup>

### 4.1 분석 자료

german DIPEX (krankheitserfahrungen. de)는 만성 통증, 유방암, 당뇨, 간질, 만성 장염, 전립선암 등 총 6개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질병 모듈마다 40~50개의 인터뷰가 포함되고, 각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인 환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자의 집이나 환자가 선택한 조용한 장소 등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환자는 질병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질병의 경험 등을 이야기하

---

<sup>93</sup> german DIPEX는 DIPEX international의 방법론을 차용한 독일의 연구팀으로서 괴팅엔 의학 대학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DIPEX 연구는 영국의 Dr. Ann McPherson와 Dr. Andrew Herxheimer에 의해 시작되었다.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정작 일상과 삶의 변화, 직업, 가족과의 관계, 재정적 문제 해결 등 질병으로 인한 자신의 삶에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에 착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들의 경험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웹사이트 개발에 착수하였다. 포괄적이고 기초가 되는 인터뷰 자료의 수집을 위해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건강 경험 연구 그룹 Health Experiences Research Group의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 영국과 독일 이외에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체코, 네덜란드, 스페인 등 총 10개국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http://www.krankheitserfahrungen.de>, [www.dipexinternational.org](http://www.dipexinternational.org)) 참조.

였다. 인터뷰는 인터뷰이의 이야기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며, 인터뷰이 스스로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시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각 인터뷰는 평균 한 시간 남짓의 분량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인터뷰 자료는 제약이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와 일반적인 대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장된 인터뷰이의 발언권으로 인해 인터뷰이의 발화 기여가 비교적 길고, 화자의 대화기여 내의 언어행위 간 연결 관계나 인터뷰어나 인터뷰이 간 언어행위의 연결 관계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병원이나 기관과 같은 제도적 혹은 심리적으로 인터뷰이의 인터뷰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가능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져 화자의 평소 언어 습관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모든 인터뷰 자료는 인터뷰이의 선택에 따라 음성 녹음되거나 비디오 촬영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녹음 혹은 촬영된 인터뷰의 전사 자료를 활용하였다.<sup>94</sup>

본 논문에서는 german DIPEX의 만성통증 모듈 중에서 내용 및 언어적 표현들이 명확하여 분석에 용이하고, 비교적 다수의 *also*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담화연결성 확인에 적합한 세 개의 인터뷰 자료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여러 사람의 인터뷰 중 *also*라는 특정 언어행위가 포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분석하는 것에 비해, 인터뷰의 전체 흐름 속에서 각 대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정 언어적 행위의 특성

---

<sup>94</sup> 본 연구를 위해 프라이브루크 대학의 german DIPEX 담당자인 의과대학 루치우스 회네 교수로부터 만성통증에 대한 9개의 익명으로 처리된 인터뷰 전사 자료 원본을 제공 받았다. 통증별, 주제별, 인물별 등으로 편집된 인터뷰 동영상 및 음성 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krankheits-erfahrungen.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 면밀히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첫 번째 인터뷰 A는 *also*의 쓰임이 빈번한 1시간 5분 가량의 인터뷰로서 총 어휘수 9,315개 중 연결사 *also*가 116회 사용된 자료이다. 인터뷰 전체로서 약 100번의 대화기여가 수행되었음을 감안하여, 각 대화기여마다 적어도 한 번씩 *also*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이는 29세의 여성으로서 섬유근육통 Fibromyalgie을 앓고 있고, 비교적 정돈된 언어를 구사한다.

인터뷰 B는 총 48분 분량의 인터뷰 자료로서 어휘수 총 16,232개 중 *also*가 305회 사용되었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대략 50단어 당 한 번꼴로 *also*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약 190회 정도의 대화기여가 발생했으며, 한 번의 대화기여에 *also*가 대략 1.5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95</sup> 직관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사 *und*의 경우, 해당 인터뷰에서 총 677회 나타났는데, 이와 비교하면 *also* 역시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된 연결사로 볼 수 있다. 인터뷰이는 69세의 여성으로서 다발관절증 Polyarthrose 및 통풍 Arthritis으로 인한 만성 통증을 앓고 있다.

인터뷰 C는 총 1시간 15분 분량의 인터뷰로서 사용된 어휘수 총 8,816개 중 153회 *also*가 사용되었다. 인터뷰이는 등에 만성 통증 Rücken-schmerzen을 가지고 있는 54세의 여성이다. 앞서 소개한 인터뷰 자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up>95</sup> 인터뷰 B에서는 인터뷰어의 개입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인터뷰 A에 비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화기여가 수행되었다.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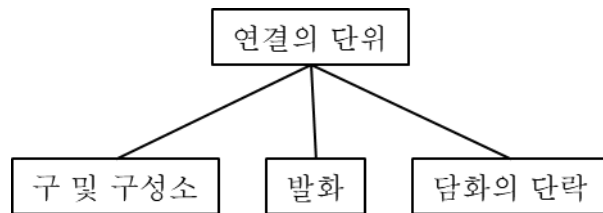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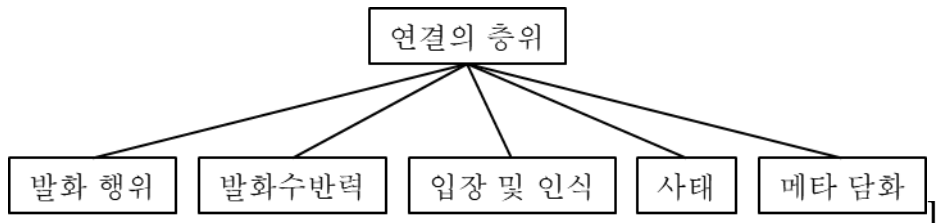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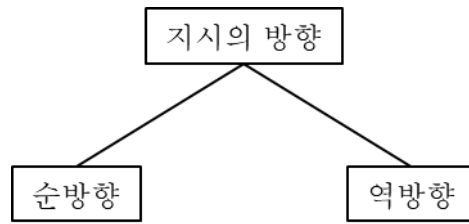
인터뷰	쪽수	어휘 수	ALSO의 사용	비고 <sup>96</sup>
A	23	9,315	116회 클립 11개	Amely Hoffmann (29세) 섬유 근육통 Fibromyalgie
B	15	16,232	305회 클립 6개	Christel Schubert (69세) 다발성관절증 Polyarthrose, 관절염 Arthritis
C	16	8,816	153회 클립 8개	Barbara Lange (54세) 요통 Rückenschmerzen

## 4.2 분석 방법

여기에서는 실제 인터뷰 대화에서 나타난 *also*의 의사소통 기능들을 본 논문의 2장에서 제시한 *also*의 기능 분석을 위한 세 가지 범주 ‘지시 방향’, ‘연결 층위’, ‘연결 단위’들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also*는 직시적 표현을 포함하는 연산절차로서, 화자는 *also*를 통해 청자의 주의를 특정한 것, 즉 화자가 지시하는 어떤 것으로 향하도록 한다. 연결사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먼저 직시적 표현의 지시 방향을 확인하여 지시의 대상을 특정하고, 지시를 통해 연결되는 언어적 행위의 층위와 연결 단위를 구분하여 *also*의 담화연결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sup>96</sup> 위의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본 논문에 사용된 이름은 웹사이트(<http://www.krankheitserfahrungen.de>)에서 사용되는 가명이다. 클립은 주제별로 자른 인터뷰의 일부분이고 웹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4.3. *also*의 담화연결성의 유형

#### 4.3.1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

3.1절에서 언어학적 의미의 ‘추론’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다. 언어학적 의미의 ‘추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뜻하며, 이와 같은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추론성’이라 부른다. ‘추론성’은 선행하는 문장이 참인 명제에 근거해서 후행하는 명제가 참임이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를 통해서 주장되는 것으로, 발화된 사태들의 추론 관계, 즉 전제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로부터 결론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를 이끌어 냄을 명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 관계이다. 추론적 관계를 표시하는 ‘추론적 ALSO folgerndes ALSO’의 예를 살펴보자.

2.1장에서 제시된 데카르트의 ‘Ich denke, also bin ich.’에서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 ‘Ich denke’가 초점화되고, 연결사 *also*로 발생하는 추론적 연결 의미로 인해 후행 언어행위 ‘ich bin’은 논리적이며 당위성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것이 요구된다. 연결사 *also*는 선행하는 사태 ‘Ich denke’가 후행하는 언어행위의 사태 ‘ich bin’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 [Ich habe kein Geld], ich kann dir **also** [nicht helfen].- [Ich aber war sehr Menschlich], **also** [das Gegenteil von vollkommen]. (Hildesheimer)

1장에서 ‘추론성’을 이끄는 *also*의 예로 살펴본 예문 (1)은 크게 두 개의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전제 ‘Ich habe kein Geld’는 *also*의 직시적 성분 ‘-so’로서 초점화되고, 결론에 해당하는 후행하는 사태 ‘nicht helfen’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돈’과 ‘도움’에 대한 함축적인 추론 규칙 ‘돈이 없으면 돕지 못한다’에 의해 ‘ich kann dir nicht helfen’은 타당한 결론으로 유도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의 전제 ‘Ich aber war sehr Menschlich’는 *also*의 직시적 성분 ‘-so’로서 초점화되어 후행하는 사태 ‘das Gegenteil von vollkommen’으로 연결된다. 이때 ‘인간다움’과 ‘완전함’에 대한 함축적 추론 규칙 ‘인간적인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를 통해 ‘나는 매우 인간적이었다’는 전제가 참일 때, ‘완전함의 반대’는 타당한 결론에 해당한다. 다음은 실제 인터뷰 대화에서 발췌한 예이다.

(24) B-4쪽

01 P: Da hatte ich dann, also schon relativ früh, Anfang der achtziger Jahre, ja so  
02 weiß ich, erbsengroße Knochenabsplatzungen, weiß ich nicht, was das war.  
03 Jedenfalls streute das immer ins das Gelenk rein. Also wie so eine  
04 Verkalkung oder so. Wurde ich damals, da war ich ja vierzig Jahre mit  
05 Verkalkung schon, aber immerhin- jedenfalls streute das immer und dann  
06 konnte ich den Arm überhaupt nicht mehr bewegen ja. Und sie musste ich  
07 dann immer hoch dann tagelang, wochenlang, also *ich konnte ihn nicht*  
08 *bewegen. Also musste das rausoperiert werden.* Und dann bin ich in die  
09 XA (Klinik) hier gegangen und dann haben Sie es nicht raus gekriegt, dann  
10 musste ich noch in eine andere Klinik. Dann beim zweiten Mal.

예문 (24)는 인터뷰 B의 일부이다. 환자 P (= Patient)는 수술에 대한 안 좋았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줄번호 01-08에서 인터뷰이는 총 두 번의 수술 경험 중 첫 번째 수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터뷰이는 첫 번째 수술에서 관절의 석회화가 진행되어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팔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관절 제거 수술을 받았다. 줄번호 08의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 ‘나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ich konnte ihn nicht bewegen*’가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문장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das musste rausoperiert werden*’와 연결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6) A-18쪽, 클립 9

01 P: Irgendwann kam für mich auch der Punkt, da habe ich einfach meiner  
 02 Krankheit selbst n Brief geschrieben. *Weil ich dachte, ich ich- wenn ich es*  
 03 *jemandem erzähle, der kann es nicht so nachvollziehen, also schreibe ich*  
 04 *an meine Krankheit n Brief* und hab sie „meine böse Freundin Fibro“  
 05 genannt und hab an ihr an sie eben adressiert – und - habe ihr eben gehörig  
 06 die Meinung gesagt, - weil dann irgendwann kommt natürlich die Wut auch  
 07 und - aber mit dem Brief hab ich mich im Endeffekt mit ihr versöhnt, weil  
 08 ich inzwischen ganz genau weiß, wie sie tickt, diese Freundin, böse  
 09 Freundin.

예문 (26)은 인터뷰 A의 부분 대화로서 신경섬유증을 앓고 있는 인터뷰이가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대신 자

신의 통증을 “meine böse Freundin Fibro”라고 칭하고 편지를 씌으로써 피하고 싶은 통증을 마주하려 한다고 이야기한다(줄번호 01-04). 이때 줄번호 03에서 환자는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들은 통증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Weil ich dachte, ich ich - wenn ich es jemandem erzähle, der kann es nicht so nachvollziehen”라고 언급하고, 그러한 이유로 “나는 나의 질병에게 편지를 쓴다 ich schreibe an meine Krankheit einen Brief”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also*를 통해 후행 언어행위 ‘나는 나의 질병에게 편지를 쓴다’는 선행 언어행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들은 통증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의 당위적 결과로서 받아들여진다.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가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문장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와 연결된다.<sup>97</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론적 ALSO’는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와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로 청자의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추론적 연결의미를 통해 구 및 발화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되며, 이는 타당한 결론으로 이해된다. ‘추론적 ALSO’는 다음과 같은 범주적 특성을 나타낸다.

---

<sup>97</sup> Duden(1984), Klein(1987: 204), Hartung(1961:190ff.), Konerding(2002: 55) Griesbach/Schulz(1962: 284ff.)에서 *also*의 담화연결성으로 언급되는 ‘추론적 ALSO’는 실제 인터뷰 자료에서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 이를 통해 실제 언어 생활에서 *also*의 연결의미로서 ‘추론적 ALSO’의 사용량 감소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차후에 코퍼스를 통한 ‘추론적 ALSO’와 *also*의 다른 연결의미의 사용 빈도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론성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4.3.2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

3.2절에서 ‘풀어쓰기’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다. ‘풀어쓰기’는 선행하는 언어행위 A와 후행하는 언어행위 B간의 동의적 의미 관계<sup>98</sup>로서 발화 행위 층위의 다른 표현을 나타낸다.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 Paraphrase einleitendes ALSO’의 예를 살펴보자.

(27)

01 I: Sie haben gesagt, so ein Dauerschmerz begleitet Sie schon noch?

02 P: Also, ich habe *Dauerschmerzen*. Ich habe **also** *keine Zeit, wo ich*

03 *keinen Schmerz habe*.

german DIPEX, CS31: 4<sup>99</sup>

예문 (27)은 ‘만성통증 *Dauerschmerzen*’에 대한 인터뷰어 I(= Interviewer)의 물음에 환자가 대답하는 부분이다. 줄번호 02에서 환자는 자신에게 만성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성통증을 ‘통증이 없을 때가 없다

<sup>98</sup> 동의적 관계란 논리학적으로는 A와 B가 상호함축함으로써 등가를 이룸을 의미하고,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정보량의 변화없는 동의어 혹은 유의어 관계를 뜻한다. 여기에는 대해서는 본 논문의 3.2 참조.

<sup>99</sup> 해당 자료는 본 논문의 분석 자료로 사용될 german DIPEX의 인터뷰 자료의 일부로서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장에 소개되어 있다.

keine Zeit, wo ich keinen Schmerz habe’라고 다시 표현한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 ‘-so’로서 선행하는 언어행위 ‘Dauerschmerzen’가 초점화되어 Dauerschmerzen의 발화행위 층위가 후행하는 풀어쓰기 된 언어행위와 연결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8) A-8쪽

01 P: ansonsten geh ich nicht mehr zum Arzt. Ich will alles allein machen jetzt.

02 I: hmhm und *hatten Sie mal nen Arzt, wo Sie das Gefühl hatten, der versteht*

03 *Sie **also** haben Sie sich verstanden gefühlt.*

인터뷰이는 의사에 진찰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 더 이상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인터뷰어는 환자에게 ‘당신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은 의사가 있었냐? hatten Sie mal nen Arzt, wo Sie das Gefühl hatten, der versteht Sie?’라고 묻고 이를 다시 ‘이해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냐? haben Sie sich verstanden gefühlt’라고 재차 묻는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선행하는 언어행위가 초점화되어 그것의 발화행위 층위가 유사한 의미의 후행 언어행위와 연결된다. 유사한 의미의 언어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의미가 강화되고 강조된다.

(29) A-5쪽

01 P: und dann - von Psychotherapie hab ich natürlich auch angefangen. Klar es

02 *wurd mir halt alles geraten und da hab ich alles gemacht*

03 I: hmhm

04 P: *weil ich wollt ja wieder arbeiten **also** ich wollt unbedingt - wieder im*

05 *leben stehen* - so wie ich s halt gewohnt war mit meinem perfekten Lebens-  
 06 plan - (lacht) der jetzt komplett dahin ist - - und - was hab ich noch gemacht  
 07 Aquatraining und so was und - Massagen - heiße Packungen heiße Rolle  
 08 und so was und - dann von den Ärzte Seiten Vitaminkuren Elektrotherapie  
 09 (ächzt) ich weiß es nicht mehr da waren so viele Sachen dabei

다양한 치료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해 줄번호 01-03에서 환자는 치료를 위해 심리 요법부터 시작해 모든 시도를 다 해봤고, 이는 다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4의 ‘*im leben stehen*’은 최근 신문에 교제 광고란 등에 자주 등장하는 형식적인 말 Floskel로서 ‘*Mit beiden Beinen (fest) am Boden / im Leben stehen*’의 형태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이는 확실한 일자리와 수입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여성 화자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직업을 가지고 의존적이지 않게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꾸려나감을 의미한다. 줄번호 04의 *also*를 선행하는 언어행위의 술어 *arbeiten*과 후행하는 언어행위 *im leben stehen*은 유의성을 갖고 ‘*ich wollt unbedingt - wieder im leben stehen*’은 ‘*ich wollt ja wieder arbeiten*’의 발화행위 차원의 ‘다르게 표현하기’에 해당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로 초점화되어 그것의 발화행위 층위가 문장 단위의 후행하는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차원과 연결된다.

(30) A-7쪽

01 P: Und das Tilidin was ja heute so ne neue Modedroge ist als ich s erfahren  
 02 hab, ich hab gedacht, ich werd wahnsinnig, ich nehm das schon seit



- 03 Ewigkeiten und denk warum bin ich als so ein bisschen weggetreten oder  
 04 komische Halluzinationen oder - und - da hab ich das sofort abgesetzt.  
 05 (lacht) Als ich das gehört hab - und das tut einem natürlich gar nicht gut. Da  
 06 kriegt man Hautausschläge und - - *ich konnt auch nichts mehr essen also*  
 07 *Appetitlosigkeit* und so weiter.

줄번호 01-05에서 환자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한다. 환자는 ‘das Tilidin’이라는 약을 복용하였는데, 약에 취하거나 환각을 보는 등의 이상 반응을 보였고 사람들에게 이 약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이야기한다. 환자는 줄번호 06에서 약의 부작용으로 “더 이상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ich konnt auch nichts mehr essen*”라고 하고, 이를 ‘식욕 부진 *Appetitlosigkeit*’이라는 전문적 용어로 다시 표현한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선행하는 언어행위 ‘*ich konnt auch nichts mehr essen*’이 초점화되어 그것의 발화행위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 ‘*Appetitlosigkeit*’가 연결된다.

(31) A-1쪽

- 01 I: ja vielleicht fangen Sie einfach mal so an zu erzählen, wie Ihr Leben so war  
 02 als Sie zum ersten Mal mit dem Schmerz zu tun hatten wie dann eins zum  
 03 andern kam wie es weiterging  
 04 P: ja  
 05 I: lassen Sie sich ruhig zeit  
 06 P: ja  
 07 I: ganz in Ruhe  
 08 P: ja also - - - Es begann 2003 im September hatt ich einen schweren Auto-

09 unfall, - - Bei dem ich aber relativ unbeschadet herauskam. Mit Prellungen  
 10 und und - Schnittwunden und so weiter wurde dann aber auch nicht groß  
 11 geröntgt oder so. - Nachdem die ersten Kratzer dann verschwunden waren  
 12 so zwei Monate später - bekam ich die ersten - *neuralgiformen Schmerzen*  
 13 **also** *Nervenschmerzen* - und zwar nur im Bein und da ich den Schmerz  
 14 nicht kannte. Ich hab da erst mal nichts unternommen - weil das nur eben  
 15 wie wie Blitzschläge - einmal ins Bein fuhr ne

예문(31)은 인터뷰 A의 맨 앞 부분으로서 처음 증상을 겪으면서 삶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환자는 줄번호 12부터 처음 신경통이 시작된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환자는 신경통을 설명하면서 처음에 ‘*neuralgiformen Schmerzen*’이라는 신경 부위에 나타나 는 통증에 대한 의학적 전문 용어를 사용하였다가, *also*를 통해 이를 다시 일반적 용어인 ‘*nervenschmerzen*’으로 표현한다. 이는 청자를 배려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화행위 차원의 다르게 표현하기로 이해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 ‘*neuralgiformen Schmerzen*’으로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층위가 후행하는 언어행위 ‘*nervenschmerzen*’가 연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차원을 연결하는 연산 절차<sup>100</sup>를 수행하는데,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연결 의미를 통해 구 및 발화 단위의 후행 언어행

<sup>100</sup>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연결사는 언어적 행위의 유의미한 연결을 담당하며, 언어적 지식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연산 절차 operative Prozedur’에 속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2.1.2 참조.

위가 연결되며, 이는 선행 언어행위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된다. 풀어쓰기를 통해 화자는 의미 강화나 강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풀어쓰기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발화행위]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4.3.3 수정을 도입하는 ALSO

3.3절에서 ‘수정’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다. ‘수정’은 의사소통 방해 요소인 언어행위 A와 그것을 바로 잡는 더 적절한 언어행위 B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수정’은 문제가 되는 언어행위 A의 종류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데, 크게는 언어학적 기준에 따른 발화행위 층위의 ‘수정’과 상호작용적 기준에 따른 담화의 구성적 차원의 ‘수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정을 도입하는 ALSO Reparieren einleitendes ALSO’의 예를 살펴보자.

(32) A-3쪽

01 I: hmhm

02 P: Dann Migräne - Missempfindungen auf der Haut kribbeln zwicken pieken

03 *Gliederzucken also richtig die Gliedermaßen - Gliedermaßen Gliedmaßen*

04 *zucken*

환자가 진단과 약물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인터뷰어는 증상에 관한 심화 질문을 하였고, 환자는 편두통과 감각이상 (줄번호 02), 사지 경련 (줄번호 03)을 겪었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3에서 환자는 ‘사지 경련 Gliedmaßen zucken’을 말하다가 ‘관절 경련 Gliederzucken’과 혼동하고 뒤이어 *also*를 통해 다른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예고하며, 세 차례의 어휘 선택 과정(Gliedermaßen < Gliedermaßen < Gliedmaßen zucken)을 통해 비로소 알맞은 표현 ‘Gliedmaßen zucken’으로 수정한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은 곧 발화될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을 향하게 하고 청자로 하여금 선행 언어행위의 변화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수정은 Egbert(2009)가 제시한 세 가지 종류의 수정, 즉 발음 수정, 어휘 수정, 문법 및 구조 수정 중 어휘 수정에 해당한다.

### (33) C-8쪽

01 P: [...] Wenn man nichts hat voll fit ist und hey da macht man sich gedanken  
 02 über so was ne niemals aber wenn ich selber ne bestimmte Erfahrung  
 03 gemacht habe, dann ja dann hab ich einfach eine andere Wahrnehmung  
 04 und das geht jedem so, denk ich mal, das ist schon ne Bereicherung auch  
 05 also der Schmerz ich würde den *niemals als also niemals nur* in eine  
 06 Richtung sehen.

예문 (33)의 앞부분에서 인터뷰어는 통증을 겪은 후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이에 변한 것이 있는지를 묻고, 인터뷰어는 결속력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함의 정도가 아무래도 통증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1-06에서 인터뷰어는 건강하다면 결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

지만, 자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통증을 결코 하나의 방향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고 그 점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줄번호 05에서 환자는 ‘niemals als’로 표현하였다가 ‘niemals nur’로 의미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수정은 예(32)와 마찬가지로 어휘 수정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also*의 직시적 성분은 곧 발화될 수정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을 향하게 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층위와 구성소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34) A-11,12쪽

01 I: Und Sie hatten vorher auch schon angesprochen. Da dahinter stehen ja oft  
 02 auch noch die Krankenkassen Rentenversicherungsträger. Wie sind da Ihre  
 03 Erfahrungen? *Gab s da also gibt s da* sozusagen neben klar dass die auf die  
 04 Kosten kucken, gibt s - sozusagen da eine Vorstellung davon, was das ist?  
 05 Fibromyalgie oder von von Schmerzen, was denken Sie? Wie sind Ihre  
 06 Erfahrungen?

예문 (34)에서 인터뷰어는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대한 환자의 경험을 묻고 있다. 줄번호 03에서 ‘*Gab s da*’으로 발화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묻는 것으로 잘못 시작된 발화가 현재의 경험을 묻는 ‘*gibt s da*’로 수정된다. 이때 *also*를 통해 후행할 언어행위 방향으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층위와 수정된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다음은 발화의 구조를 수정하는 예이다.

(35) C-2쪽

- 01 I: Und wie kam s, dass Sie s dann doch ernst genommen haben, weil Sie  
02 gesagt haben Sie haben s da nicht so ernst genommen.  
03 P: Da gings nicht mehr anders, weil es war da ging nichts mehr also wirklich  
04 und - ich hab praktisch - - nicht mehr gewusst, wie soll ich mich bewegen  
05 was kann ich tun beim spazieren gehen im wald, zum Beispiel mit meiner  
06 Schwester und ihrem Mann ja. Da haben die, ist der Mann zurückgelaufen  
07 zum hat s hat s Auto geholt, weil ich - zusammen **also** war einfach kurz  
08 ohnmächtig und so.

예문 (35)의 앞부분에서 환자는 물리 치료 이외에 등 체조나 걷기 수업과 같은 치료를 병행하였지만 성실히 임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인터뷰어는 어떻게 하다가 다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묻는다.(줄번호 01-02) 줄번호 03-08에서 환자는 실제로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고 산책해야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동생 부부와의 산책길에서 자신이 실신하여 제부가 차를 가지러 가야했던 일을 이야기 한다. 줄번호 07에서 환자는 ‘weil ich zusammen’으로 문장을 구성하려던 것에서 ‘(weil ich) war einfach kurz ohnmächtig’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은 곧 발화될 수정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을 향하게 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와 새롭게 구성되는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36) A-20쪽, 클립1

- 01 I: Noch mal zu dem Thema der Rente, wollte ich noch mal fragen, die  
02 Berentung: Was haben Sie da für Erfahrungen gemacht? Wie kam es dazu?

03 Wie ging es Ihnen damit? Wie sind da so Ihre Erfahrungen mit dem Thema?  
 04 P:(생략) Und da hat er gemeint, er möchte gerne, dass ich in ne Teilzeitrente  
 05 gehe. Und da, *das hat mich zerstört dieses, diese Äußerung, also da war ich*  
 06 *auf einem Tiefpunkt, weil man mir sagte, ich bin nicht brauchbar.*

예문 (36)의 줄번호 01-03에서 인터뷰어는 연금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연금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묻는다. 환자는 그 당시에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생략된 부분), 줄번호 04에서 의사의 추천으로 연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줄번호 05에서 환자는 “그 말이 나를 짓밟았다 *das hat mich zerstört dieses, diese Ä ußerung*”라고 이야기하며, 내용상 완결되지 않은 언어행위를 한다. 화자는 *also*를 통해 후행하는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을 향하게 하고, 더 적합한 언어행위로서 “사람들이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최악의 상태였다. *da war ich auf einem Tiefpunkt, weil man mir sagte, ich bin nicht brauchbar.*”라고 발화한다. *also*의 도입 이후 문장 구조가 새롭게 구성되고, 동시에 인터뷰어를 힘들게 했던 ‘그 말’에 대한 내용적 보충도 이루어졌다.

(37) A-6쪽

01 P: Und - ich bin inzwischen schon *so schwach geworden*, dass ich **also** ne -  
 02 *Kasten Wasser kann ich nich tragen nicht mehr* und das ist schon ganz  
 03 schön erschreckend.

예문 (37)에서 환자는 통증 치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체력의 약화를

언급하고 약화된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dass ich’로 문장을 잇다가 *also*를 도입하여 ‘물 한 상자도 더 이상 들 수 없다 ne Kasten Wasser kann ich nicht tragen nicht mehr’고 문장의 구성을 새롭게 한다. *also*를 통해 새로운 문장 구조가 구성됨으로써, 후행 발화가 선행 발화에서 묘사된 약해진 체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약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예문 (36)과 마찬가지로 *also*의 도입 이후 새로운 문장 구성과 더불어 인터뷰어의 선행발화, 즉 자신의 ‘체력 약화’에 대한 내용적 보충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8) C-6쪽

- 01 I: Sie hatten so erzählt - dass so als die Schmerzen so schlimm wurden, Sie  
 02 sich auch nicht mehr viel zugetraut haben selber - Wie kam denn da dann  
 03 wieder so die Wende. Wenn Sie sagen, so jetzt können Sie sich manches  
 04 wieder vorstellen an Ideen und so  
 05 P: Das ist in x-Stadt (Universitätsstadt) passiert. Das war ein eindeutiges  
 06 Ergebnis dieser zweieinhalb Wochen Schmerztherapie. Wie gesagt, ich  
 07 kann das nur jedem empfehlen. *Das ist also mich hat das voll aufgebaut ja.*

예문 (38)에서 인터뷰어는 환자가 원래 병원 진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여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묻는다. 환자는 줄번호 05-07에서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특정 도시에서의 치료 요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Das ist’로 시작했던 문장을 ‘나를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웠다 mich hat das voll aufgebaut ja’라고 새롭게 구성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이 수정될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을 향하게 하고, 선



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층위와 수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문장 구성이 연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의 부적합한 표현을 후행 언어행위의 적합한 표현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연결사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하여, 수정하는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수정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층위가 연결된다. ‘수정’은 문제가 되는 선행 언어행위 A의 특성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데, 언어학적 기준에 따른 발화행위 층위의 ‘수정’은 발음 수정, 어휘 수정, 문법 및 문장 구조 수정으로 나뉠 수 있다. ‘수정을 도입하는 ALS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수정 [지시 방향 – 순방향]

[연결 층위 – 발화행위]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4.3.4 요약을 도입하는 ALSO

3.5절에서 ‘요약’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다. ‘요약’은 일반화된 요약과 구성적 요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화된 요약은 언어행위 A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상위어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요약 행위이고, 구성적 요약은 언어행위 A에 나타난 사태의 통상적 조건 및 구성요소, 결과, 특성을 언

급함으로써 수행된다. ‘요약을 도입하는 ALSO Zusammenfassen einleitendes ALSO’ 중 일반화된 요약의 예를 먼저 살펴보자.

(39) B-4쪽

01 P: *Ich habe eigentlich keine Operation erlebt, die gut ging. Auch mit meinem*  
02 *Hüftgelenk, das ist vor fünf Jahren passiert, habe ich minimal invasiv*  
03 *gemacht. Und da waren aber so viele Knochensparren schon drin und da*  
04 *mussten alle Muskeln durchgeschnitten werden und ich kann mich jetzt mit*  
05 *dem Linken Bein immer noch schlecht abstoßen. Also ich habe einfach*  
06 *Probleme.*

예문 (39)에서 의학적 치료에 불신이 있는 환자는 수술에 대해 안 좋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5년전부터 시작된 고관절의 문제로 뼈와 근육까지 문제가 생기고 현재 왼쪽 다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6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문제 Probleme’로 일반화되는데, 이는 줄번호 01-05에 나타나는 선행 발화 연속체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상위어에 해당한다. 이때 *also*를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요약된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 ‘*ich habe einfach Probleme*’의 사태 층위가 연결된다.

(40) A-12쪽

01 I: hmhm - - - und ihr Partner wie geht der damit um  
02 P: - mh - ja wie ich vorhin ja schon sagte sehr gut. Also - - es ist natürlich für  
03 - denk ich für jeden Menschen oder für jeden - Partner in ner Beziehung  
04 sehr schwierig, wenn der andere leidet und man kann ihm nicht helfen - - -

05 Er ist ja total hilflos und machtlos. - *ja das einzige, was er machen kann ist*  
 06 *mir - ne Wärme oder ne Kühlpackung irgendwo hinklatschen und und –*  
 07 *mich zu fragen, ob ob ich was essen möchte oder ob ich was trinken möchte*  
 08 - **also** *dieses normale Umsorgen* eben aber was er natürlich am liebsten  
 09 machen würde, gib mir deine Schmerzen und - oder wir tauschen die  
 10 Körper und wenn es nur für zehn Minuten wäre. Ich wäre dankbar, aber es  
 11 geht eben nicht.

예문 (40)에서 인터뷰어는 통증으로 인해 야기된 친구 혹은 파트너와의 관계 변화와 파트너의 구체적인 도움에 대해 묻는다. 줄번호 04-07에서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파트너가 주는 작은 도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줄번호 08에서 앞에서 나열한 파트너의 도움을 ‘이러한 보통의 보살핌 *dieses normale Umsorgen*’으로 일반화한다. 이때 *also*를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가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일반화된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연결된다.

(41) A-2쪽

01 P: *und die Beschwerden wurden immer schlimmer ich hatte am Ende*  
 02 *bestimmt um die hundertundvierundvierzig verschiedene Symptome - sei s*  
 03 *auch das vegetative Nervensystem - die - Druckschmerzhaftigkeit auf der*  
 04 *Haut und Schlafstörungen und Magen Darm war nicht mehr in Ordnung*  
 05 und - **also** *eine Katastrophe* und dann hieß es ich hätte Depressionen weil  
 06 ich zu viel arbeite ein zwölf Stunden Tag sieben Tage die Woche hieß es ist  
 07 nicht ganz sogesund und dann wurde ich auch schon in die erste Klinik  
 08 geschickt in eine psychosomatische klinik - da ich - unter familiären

09 dispositionen auch - als kind zu leiden hatte war natürlich das ausschlag-  
10 gebend.

예문 (41)의 줄번호 01-05에서 환자는 좋았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주치의에게 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고생을 하다 결국에 육체적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고 이야기한다. 환자는 총 144개의 다양한 증상들을 겪게 되었는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수면장애, 위장 장애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줄번호 05에서 ‘재앙 Katastrophe’으로 일반화한다. 다음은 구성적 요약의 예이다.

(42) B-10쪽, 클립3

01 P: Also wenn ich jetzt meinetwegen mit der rechten Hüfte und dem rechten  
02 Kniegelenk so Schmerzen habe, dass ich wirklich nicht weiß wohin, dann  
03 kriegst sie das meistens innerhalb ein- eineinhalb Stunden hin, dass sie das  
04 so behandelt, dass ich wieder einigermaßen laufen kann. Das ist also  
05 wirklich phänomenal, find ich.

예문 (42)에서 환자는 대체의학적 치료 요법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줄번호 01-05에서 환자는 자신에게 통증이 찾아오면, 치료사는 한 시간 반 내로 자신을 치료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Das ist also wirklich phänomenal, find ich.”라고 말한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 ‘-so’로 인해 선행하는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후행 언어행위와 연결된다. 이는 구성적 요약으로서, 문장 연속체의 전체 사태의 통상적인

조건 및 구성요소, 결과, 특성에 해당하는 새롭게 형성된 진술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기적적인 *phänomenal*’이라는 표현은 통증이 극심해 걸을 수 없는 환자가 다시 걸게 된 사태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43) B-17쪽

01 P: [...] Und das fand ich so entsetzlich. So habe ich also sozusagen fast  
02 zwanzig Jahre lang gelebt und das wollte ich einfach nicht. So sollte keiner  
03 mit mir leben müssen. Das heißt also, von mir aus, von meinen Schmerzen  
04 oder was immer da ist, sollte niemand etwas mitbekommen. *Und ich wollte*  
05 *niemanden damit unterdrücken (lacht) oder irgendwie, dass er sich ändert*  
06 *deswegen, oder so, oder mir gegenüber ändert. Das wollte ich nicht. Also,*  
07 *jeder sollte so bleiben, wie er ist.*

예문 (43)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통증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묻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이다. 줄번호 03에서 06까지 환자는 동료들이 자신의 통증으로 인해 불편해하거나 자신으로 인해 어떻게든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내용은 줄번호 07에서 ‘모두가 자신들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한다. *jeder sollte so bleiben, wie er ist*’로 요약되었다.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선행하는 언어행위가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연결된다.

(44) B-2쪽

01 P: (생략) *Musste so auch die Kinder versorgen, in der Nacht konnte ich nur*  
02 *auf einem Bein hin und her gehen und dann die Kinder auf den Wickeltisch*  
03 *bringen oder sonst irgendetwas machen. Und es war schon ziemlich heftig*  
04 *und sonst an Krücken gehen. Also das war wirklich nicht toll.*

예문 (44)에서 인터뷰이는 병원 진료에 만족하지 못해 병원을 나와 집에서 생활했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줄번호 01-04까지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기 등을 통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상당히 힘들었고 녹초가 되었었다고 회상한다. 환자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 줄번호 04에서 “그것은 결코 근사하지 않았다 *das war wirklich nicht toll*”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also*를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앞선 예들과 달리 선행하는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인식 층위로 연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약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에 나열된 다양한 사태를 일반화된 혹은 구성적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혹은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적 차원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연결사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요약된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 및 인식적 층위가 연결된다. ‘요약을 도입하는 **ALS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요약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사태 및 인식적 층위]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4.3.5 부연을 도입하는 ALSO

3.4절에서 ‘부연’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다. 후행 언어행위 B에서 정보가 추가되는 유형인 ‘부연’은 선행하는 언어행위 A의 이해를 위해 추가된 상황적 혹은 맥락적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적 행위이다. ‘부연을 도입하는 ALSO Explikation einleitendes ALSO’의 예를 살펴보자.

(45) A-1쪽

- 01 P: 00:02:00 (*telefon*) - 00:04:05 also auf jeden Fall - - eben ich wusste  
02 überhaupt nicht was los ist ne und bin dann erst mal zum Hausarzt  
03 gegangen und dann ging die *Odyssee* los **also** ich war in den letzten fünf  
04 Jahren bei zweiunddreißig verschiedenen Ärzten -- sogar in - nach x-Stadt  
05 (Großstadt) gereist und in verschiedenen Kliniken und so weiter und  
06 nirgends hat man was gefunden. Kein Mensch wusste was los ist.

예문 (45)에서 환자는 갑자기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지자 먼저 주치의  
를 찾아 갔고(줄번호 01-03), 그 이후 30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봤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진단을 내려줄 수 없었다고 이  
야기한다(줄번호 03-06). 줄번호 03에서 환자는 이러한 자신의 힘든 여정  
을 ‘오디세이 *Odyssee*’에 빗대어 표현하고,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  
한 맥락에서 *also* 이후로 시간과 장소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할 언어행위 방향으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후행 언어행위, 즉 오디세이의 구  
체적 여정에 대한 사태와 연결된다.

(46) A-20쪽, 클립1

- 01 I: Noch mal zu dem Thema der Rente, wollte ich noch mal fragen, die  
02 Berentung: Was haben Sie da für Erfahrungen gemacht? Wie kam es dazu?  
03 Wie ging es Ihnen damit? Wie sind da so Ihre Erfahrungen mit dem Thema?  
04 P:(생략) Und da hat er gemeint, er möchte gerne, dass ich in ne Teilzeitrente  
05 gehe. Und da, das hat mich zerstört dieses, diese Ä ußerung, also da war ich  
06 auf einem Tiefpunkt, weil man mir sagte, *ich bin nicht brauchbar. Also ich*  
07 *kann in der Gesellschaft, ich bin nicht tragbar, für keinen Arbeitgeber.*

예문 (46)에서 환자는 연금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금 생활을 시작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환자에게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ich bin nicht brauchbar*’고 말한 것에 대해 의기소침해졌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5-06). 뒤이어 다소 모호한 의미의 선행 발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적 정보 ‘이 사회에서 어떠한 고용주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ich kann in der Gesellschaft, ich bin nicht tragbar, für keinen Arbeitgeber*’ *also* 이후에 추가한다. *also*를 통해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문장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47) A-4쪽

- 01 P: und die neuralgiformen Schmerzen, die sind durch das Morphinum zum  
02 Glück so abgedämpft, dass ich sie zwar spüre aber sie nicht mehr so als –  
03 nicht mehr, dass ich schreien muss oder weinen muss. Ja, dann - *die*  
04 *Schlafstörungen. Also ich schlaf eigentlich seit fünf Jahren nicht mehr - im*



- 05 *grunde zu viel Schmerz um zu schlafen* und - - Ja, tagsüber zu wenig  
 06 Energie zum Leben so ungefähr (lacht) und - Obwohl das Morphinum jetzt  
 07 da auch besser hilft

예문 (47)에서 환자는 자신의 통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며 약물치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줄번호 01-03에서 모르핀을 사용하여 신경통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줄번호 04에서 또 다른 증상인 ‘수면 장애 *die Schlafstörungen*’에 대해 언급한다. 자신이 겪고 있는 수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년 전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잠들기에는 통증이 너무 크다 *ich schlaf eigentlich seit fünf Jahren nicht mehr mehr - im grunde zu viel Schmerz um zu schlafen*’는 상황적 정보를 *also* 이후에 보충한다. *also*를 통해 후행할 언어행위 방향으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증위와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48) A-8쪽

- 01 P: Also da fingen die Einschüchterungen an von der Seite von des  
 02 Pflegeversicherers und des Rentenversicherers und dann gut musste ich  
 03 natürlich die Leistungen annehmen. Ja, klar. Man brauch ja irgendwie Hilfe.  
 04 Aber - *die Klinik war dann der absolute Horror also manipulativ ohne*  
 05 *Ende*. Da sind nur eben psychisch labile Menschen und was man mit denen  
 06 da gemacht hat, damit bin ich geh ich nich konform

예문 (48)의 줄번호 01-03에서 환자는 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를 거부하였고, 그때부터 보험사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어 결국 치료에 응해야 했다

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줄번호 04에서 “병원은 절대 공포 그 자체였다 *die Klinik war dann der absolute Horror*”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적 정보로서 ‘끝없이 조작적인 *manipulativ ohne Ende*’을 *also* 이후에 추가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하는 추가될 언어행위 방향으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증위와 추가된 맥락적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49) A-11,12쪽

01 P: Also ich muss sagen. Meine Krankenkasse unterstützt mich recht gut. *Da*  
 02 *hab ich aber auch - verdammt gute Gesprächspartner inzwischen gefunden*  
 03 **also** *bei manchen bin auch auf taube Ohren gestossen.*

예문 (49)에서 비용적인 측면 이외의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해달라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환자는 줄번호 01-02에서 의료보험의 도움을 잘 받았으며, 그곳에서 정말 좋은 대화파트너를 찾았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3에서 맥락상 선행 언어행위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좋은 대화파트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로서,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 무시되었었다 *bei manchen bin auch auf taube Ohren gestossen*”라고 이야기한다.<sup>101</sup>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후행하는 언어행위 방향으로 청자의 주의가 환기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증위와 추가된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sup>101</sup> 여기에서 부연된 후행 언어행위의 언어적 표현은 선행 언어행위의 언어적 표현과 흡사 반의어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언어행위의 연결 의미를 ‘풀어쓰기’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미 구분을 위해 해당 언어행위를 한 화자의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풀어쓰기’를 통한 의미의 강조하려는 목적보다는 선행 언어행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적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50) A-18쪽, 클립9

01 P: Und dann habe ich aufgehört zu kämpfen und seither *geht es mir besser*.

02 **Also** natürlich gibt es immer noch Situationen, wenn ich sehr, sehr starke

03 Schmerzperioden hinter mir habe wie die letzten Monate. **Also** es gab in

04 den letzten drei Monaten keinen einzigst guten Tag, an dem ich mal ein

05 bisschen weniger Schmerzen hatte, leider. Und da kommt natürlich dann

06 manchmal schon so ein Punkt, wo man einfach nicht mehr will.

예문 (50)에서 환자는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통증을 의인화하여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증상이 완화되었다 seither geht es mir besser”라고 말한다 (줄번호 01). 이어서 증상의 완화 정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맥락적 정보로서 ‘여전히 매우 심한 통증 주기가 찾아온다 natürlich gibt es immer noch Situationen, wenn ich sehr, sehr starke Schmerzperioden hinter mir habe wie die letzten Monate.’가 추가된다 (줄번호 02-03). 뒤이어 줄번호 03에서 ‘매우 심한 통증 기간 sehr starke Schmerzperioden’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로서 ‘지난 세 달 동안에는 통증이 조금이라도 덜한 날이 없었다. es gab in den letzten drei Monaten keinen einzigst guten Tag, an dem ich mal ein bisschen weniger Schmerzen hatte’가 이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연을 도입하는 ALSO’는 시간이나 장소, 태도 등의 새로운 상황적 내용이 추가되는 후행 언어행위를 선행 언어행위와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추가되는 정보는 선행 언어행위의 내용적 확장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부연을 도입하는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하여,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

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추가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구 및 발화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연결된다. ‘부연을 도입하는 ALS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부연 [지시 방향 – 순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4.3.6 상술을 도입하는 ALSO

3.4절에서 ‘상술’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다. 언어행위 B에서 정보가 추가되는 유형인 ‘상술’은 선행하는 언어행위 A의 사태에 의미적으로 내포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행위이다. ‘상술을 도입하는 ALSO Spezifizierung einleitendes ALSO’의 예를 살펴보자.

(51) A-3쪽

01 I: Wo sind die Schmerzen so hauptsächlich, wie fühlt sich das an?

02 P: Ja, also der Hauptschmerz sind, ist, sitzt in der Muskulatur - *überall* **also**

03 sei es *Torso, Rücken – Beine, Arme* - das ist eigentlich der der schlimmste

04 Schmerz von allen weil s ein Dauerschmerz ist.

예문 (51)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인터뷰어의 심화 질문으로 시작한다. 줄번호 01에서 인터뷰어는 통증 부위에 대해 질문하였고, 환자는 주요한

통증 부위가 근육 조직 전반에 걸쳐있다고 이야기한다. 이후 줄번호 03에서 선행하는 언어행위 ‘überall’이 포함하는 상세한 정보로서 ‘몸통, 등, 다리, 팔 Torso, Rücken – Beine, Arme’을 구체적인 통증의 부위로 언급한다. *also*의 도입으로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하는 상세한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52) A-4쪽

01 P: und - so hab ich das natürlich auch versucht anfangs zu machen mit

02 *Entspannungstechniken* ohne Ende **also** ich kann von *Reiki über Yoga*. ich

03 kann inzwischen alles.

예문 (52)에서 환자는 시도했던 모든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초반에 약물 치료들을 병행하였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긴장 해소 요법 *Entspannungstechniken*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긴장 해소 요법’이라는 어휘가 내포하는 구체적인 예로서 ‘기치료에서 요가에 이르기까지 von Reiki über Yoga’가 상술된다. 상술을 도입하는 *also*의 직시적 성분에 의해 후행하는 상술될 언어행위 방향으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하는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상술된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53) A-10쪽

01 I: Fällt Ihnen da ein Beispiel ein, in dem das besonders deutlich wurde für sie.

02 P: - Ja. (lacht) Ja. schon. Das war auch eine homöopathische Ärztin. Die hat  
 03 gemeint. Ich hätte einfach zu viel Stress. *Ich würde - mein leben nicht*  
 04 *ordentlich ausbalancieren. Also zu viel Arbeit und zu wenig Ruhe.* Das ist  
 05 der Hauptgrund und deswegen habe ich überall Schmerzen und deswegen  
 06 ist mein Körper komplett abgemurkst.

예문 (53)에서 인터뷰어는 의사와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묻는다. 줄번호 02-03에서 환자는 유사 요법 의사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었다 *Ich würde - mein leben nicht ordentlich ausbalancieren*”라고 이야기한다. 이어서 불균형적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also* 이후에 ‘일은 매우 많고 휴식은 너무 적다 *zu viel Arbeit und zu wenig Ruhe*’를 추가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하는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상술된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54) C-13쪽, 클립 7

01 P: Eine Diskussion, die ich immer wieder mit Leuten geführt habe: dieses  
 02 Dienen. Wenn es meinem Gast gut geht, geht es mir gut. Das ist so ein,  
 03 find ich -- also es gibt Leute, die haben mir immer gesagt: Ey, du musst es  
 04 umgekehrt betrachten: *erst wenn es dir gut geht, kann es deinem Gast gut*  
 05 *gehen. Also- erst mal auf mich zu gucken und dann die Anderen zu*  
 06 *beglücken-*. mhm Ich habe das ganz oft umgekehrt gemacht, habe mich  
 07 wunderbar gefühlt dabei.

예문 (54)은 질병에 관한 정보의 출처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다.

인터뷰어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종종 나누는 이야기 중 도움이 되었던 한 예를 이야기한다. 수영장 매점에서 일하며 ‘손님이 좋으면, 나도 좋다 Wenn es meinem Gast gut geht, geht es mir gut’(줄번호 02)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신에게 동료들은 반대로 생각할 것을 중용하며, “너가 좋아야, 손님도 좋다 erst wenn es dir gut geht, kann es deinem Gast gut gehen”(줄번호 04)라고 이야기했음을 언급한다. 줄번호 05에서 환자는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상세한 의미로서 “우선 나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한다 erst mal auf mich zu gucken und dann die Anderen zu beglücken”를 *also* 이후에 이야기한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후행하는 상세화될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상술된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한편, 상술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발화를 구체화하는 언어행위를 도입하는 특성 상 인터뷰어의 언어행위에서 종종 확인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55) C-9쪽, 클립 3

01 I: wie - was machen Sie denn, wenn Sie konkret Schmerzen haben? **Also** wenn  
 02 die Schmerzen mal sehr schlimm sind. Gibt es irgendwas was Sie tun  
 03 können.

예문 (55)의 줄번호 01에서 인터뷰어는 “통증이 느껴지면 무엇을 하십니까? was machen Sie denn, wenn Sie konkret Schmerzen haben?”라고 묻은 후, *also* 이후에 “통증이 심해지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wenn die Schmerzen mal sehr schlimm sind. Gibt es irgendwas was Sie tun können.”라고 질문을 구체화한다.

(56) C-12쪽

01 I: *Wie kamen Sie denn an Wissen überhaupt dran? Also haben Sie jetzt*

02 *außer bei den Ärzten noch andere Quellen genutzt also Internet oder*

03 *Bücher oder so.*

예문 (56) 역시 인터뷰어의 질문에 나타난 ‘상술을 도입하는 ALSO’의 예이다. 질병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묻기 위해 인터뷰어는 먼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Wie kamen Sie denn an Wissen überhaupt dran?”라고 질문하였다. “의사 이외에 다른 정보원이 있습니까? haben Sie jetzt außer bei den Ärzten noch andere Quellen genutzt”라고 자신의 처음 발화를 구체화한다. 뒤이어 선행 언어행위에 포함된 ‘다른 정보원 andere Quellen’에 대한 상술로서 ‘인터넷 혹은 책 등 Internet oder Bücher oder so’를 also 이후에 나열한다. 이처럼 인터뷰를 이끌어 가는 인터뷰어의 질문에서 다수의 ‘상술을 도입하는 ALSO’가 사용되는 것은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자하는 인터뷰어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술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와 선행 언어행위에서 의미적으로 파생되는 상세화된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연결사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하여,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연결된다. ‘상술을 도입하는 ALS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상술 [지시 방향 – 순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4.3.7 담화를 도입하는 ALSO

3.6절에서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다.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하는 *also*는 앞서 언급한 *also*의 기능들과는 달리, *also*를 선행하는 언어행위 A에 관계되지 않고 언어행위 B를 전체 대화의 구성적 차원과 연결한다. ‘담화를 도입하는 ALSO Diskurs einleitendes ALSO’의 예를 살펴보자.

(57) B-6쪽

01 I: Ja, was haben Sie denn ausprobiert und vielleicht können Sie dann auch

02 noch mal was über die Operationen sagen.

03 P: Na ja, **also** die- einen Moment ich muss gerade überlegen- **also** die erste

04 Operation war Anfang der achtziger Jahre mit dem Gelenk, was eben

05 zweimal gemacht werden musste.

예문 (57)에서 인터뷰어는 수술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고, 환자는 대답에 앞서 주저함 혹은 망설임을 나타내는 ‘na ja’를 발화한다 (줄번호 03). 이어 ‘also die-’로서 대답을 시작하려다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einen Moment ich muss gerade überlegen”라고 하고, 다시 *also*로서 첫 번째 수술에 대한 경험 “첫 번째는 수술은 80년대 초반에 관절 수술이었다. die erste Operation war Anfang der achtziger Jahre mit dem Gelenk [...]”을 이야기한다. 줄번호 03의 첫 번째 *also*와 두 번째 *also* 모두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도입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후행하는, 곧 도입될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집중되고, ‘질문’과 함께 부분 대화를

구성하는 ‘대답’과 연결된다. 이와 같이 담화를 도입하는 *also*의 기능은 Techtmeier(1984: 143f.)가 언급한 담화를 조직하는 메타의사소통 기능에 해당하며, 인터뷰 대화에서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이의 발화기여 시작 부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8) C-2쪽

01 I: Haben Sie auch Erfahrungen mit Medikamenten gemacht also?

02 P: Mhm, **also** *ich nehm auch Medikamente ja aber gut*. Das ist. Also ich denk

03 mir, das kann ich verschmerzen (lacht)

예문 (58)에서 인터뷰어는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시도들 가운데 약물 치료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줄번호 02에서 환자는 “약을 복용했고 실제로 좋았다 *ich nehm auch Medikamente ja aber gut*”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예문 (57)과 유사하게 숙고함을 나타내는 ‘mhm’이 우선 발화되고, 이후에 *also*로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도입된다.

(59) A-11,12쪽

01 I: Und Sie hatten vorher auch schon angesprochen. Da dahinter stehen ja oft

02 auch noch die Krankenkassen Rentenversicherungsträger. Wie sind da Ihre

03 Erfahrungen? Gab s da also gibt s da, sozusagen neben klar dass die auf die

04 Kosten kucken, Gibt s - sozusagen da eine Vorstellung davon, was das ist?

05 Fibromyalgie oder von von Schmerzen, was denken Sie? Wie sind Ihre

06 Erfahrungen?

07 P: **Also** ich muss sagen. Meine Krankenkasse unterstützt mich recht gut. Da

08 hab ich aber auch - verdammt gute Gesprächspartner inzwischen gefunden

09 also bei manchen bin auch auf taube Ohren gestossen.

예문 (59)에서 인터뷰어는 의료보험에 대한 경험을 묻고, 이에 환자는 줄번호 07에서 *also*로서 대답을 도입하고 있다. 뒤이어 발화의 도입을 위한 전형적인 언어행위 ‘ich muss sagen’이 수행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곧 도입될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집중되고, 담화의 메타 담화 층위<sup>102</sup>와 연결된다.

(60) A-1쪽

01 I: Ja vielleicht fangen Sie einfach mal so an zu erzählen, wie Ihr Leben so war,

02 als Sie zum ersten Mal mit dem Schmerz zu tun hatten. wie dann eins zum

03 andern kam, wie es weiterging.

04 P: Ja

05 I: Lassen sie sich ruhig Zeit

06 P: Ja

07 I: Ganz in Ruhe

08 P: Ja.**Also** - - - es begann 2003 im September hatt ich einen schweren

09 Autounfall - - bei dem ich aber relativ unbeschadet herauskam mit

10 Prellungen und und - Schnittwunden und so weiter wurde dann aber auch

11 nicht groß geröntgt oder so. Nachdem die ersten Kratzer dann

12 verschwunden waren, so zwei Monate später - bekam ich die ersten –

13 neuralgiformen schmerzen

예문 (60)은 인터뷰의 맨 앞 부분으로 인터뷰이가 자유롭게 이야기하

---

<sup>102</sup> 문장 단위의 일반적 연결 층위에서 더 나아가 전체 담화의 언어적 행위 맥락을 포함하는 거시적 차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2.2.3 참조

도록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된다. 줄번호 01-03에서 인터뷰어는 처음 증상을 경험했을 때부터 시작해 삶이 어떠했는지 질문하고, 환자는 줄번호 08부터 통증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줄번호 05, 07에서 인터뷰어가 환자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 “마음놓고 천천히 하세요. Lassen sie sich ruhig Zeit”, “편안하게 Ganz in Ruhe”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환자는 줄번호 08에서 “Ja”로 대답하고, *also*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다 다소 긴 휴지(‘- -’)를 갖는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also*를 통해 곧 도입될 환자의 언어행위로 인터뷰어의 주의력이 집중되고, 담화의 구성적 층위와 환자의 발화기여가 연결된다

(61) A-5

01 P: Und das Witzige ist ja, dass- die Symptome die ich durch die Fibromyalgie

02 habe durch solche Nebenwirkungen nochmal verstärkt wurden

03 I: hmhm

04P: **Also** ich lag dann nur noch im dunklen Raum weil ich ständig Migräne

05 hatte.

예문 (61)은 약에 대한 부작용을 묻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환자는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섬유근육통의 증상들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한다(줄번호 01-02). 줄번호 03에서 환자는 인터뷰어에게 넘어간 발언권을 *also*로 가져와 부작용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환자는 *also*를 통해 발화기여의 시작을 알리고 발언권을 확보함으로써 발화를 계속해갈 수 있다. *also*를

도입함으로써 본인의 발언권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표시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62) A-1쪽

01 P: und - ich bin auch noch während dessen arbeiten gegangen und da habe ich  
02 dann auch gemerkt, dass - ich bin eigentlich ein sehr energetischer Mensch  
03 war immer sehr aktiv Marathon gelaufen Freeclimbing - Wildwasserrafting  
04 und so weiter und reiten und dies und das und immer in Action und da hab  
05 ich gemerkt dass mir die Energie - irgendwie so langsam ausging bis es  
06 dann ganz extrem wurde, dass ich die Treppen mich - am Geländer hoch-  
07 ziehen musste –  
08 00:02:00 (*telefon*) - 00:04:05 **also** auf jeden Fall - - eben ich wusste  
09 überhaupt nicht was los ist ne und bin dann erst Mal zum Hausarzt  
10 gegangen und dann ging die Odyssee los [...].

예문 (62)에서 환자는 마라톤을 즐길 정도로 좋았던 체력이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오를만큼 급격히 떨어졌던 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줄번호 08에서 2분 가량의 전화 통화가 있는 후 대화가 끊어지고, 환자는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also*를 도입함으로써 자신이 발언을 이어갈 것을 표시한다. 또한 줄번호 08에 *also* 이후에 ‘auf jeden Fall’은 담화의 주요한 갈래로 돌아옴을 표시하는 ‘회귀 표지자 Rückkehrmarker’로 담화의 조직에 기여하는 담화기능을 수행한다.<sup>103</sup> 예문 (62)에서는 예문 (61)과 마찬가지로 대화참여자의 개입 혹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화가 끊긴 상황에서 다시 담화를 계속함을 표시하는 *also*가 사용되었

---

<sup>103</sup> Vgl. 본 논문 2.2.1 참조.

다. *also*를 통해 청자의 주의력이 후행 언어행위로 집중되고 후행 언어행위를 담화의 구성적 층위와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이처럼 발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담화연결성으로서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메타 담화 층위를 연결한다.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예문 (61)과 같은 대화참여자 사이에서 발화권 확보를 위한 *also*와 예문 (57), (58), (60), (62)와 같이 스스로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also*로 구분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이제까지 논의된 기능들과 달리,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 담화 차원에서 후행 언어행위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후행하는 곧 도입될 담화의 구성성분으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전체 담화의 구성적 층위와 연결된다.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담화 [지시 방향 – 순방향]

[연결 층위 – 메타 담화]

[연결 단위 – 담화의 단락]

이 장에서는 3장에서 규정한 *also*의 기능 범주들을 이용하여 질병체험 이야기의 실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also*의 담화연결성을 확인하였다. *also*의 담화연결성으로는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 ‘수정을 도입하는 ALSO’, ‘요약을 도입하는 ALSO’, ‘부연을 도입하는 ALSO’, ‘상술을 도입하는 ALSO’, ‘담화를 도입하는 ALSO’의 총 7개의 담화연결성이 확인되었다.

## 4.4 *also*의 담화연결성과 문장 내의 위치

여기에서는 위치장 모델<sup>104</sup>을 이용하여 *also*의 담화연결성의 문장 내 위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분포상 뚜렷한 대비를 보이는 ‘추론적 관계를 도입하는 ALSO’와 ‘담화를 도입하는 ALSO’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05</sup> 먼저 ‘추론적 관계를 도입하는 ALSO’의 예를 살펴보자.<sup>106</sup>

(1a) ich || kann || dir **also** nicht || helfen

VF    LK            MF            RK

(1b) Ich || aber war || sehr menschlich, || **also** das Gegenteil von vollkommen

VF        LK                    MF                            NF

(25) ich konnte ihn nicht bewegen. **Also** || musste || das || rausoperiert werden.

VF        LK        MF            RK

예문 (1a), (1b), (25)의 *also*는 모두 선행 언어행위에서 도출된 결론에 해당하는 사태를 도입한다. 예문 (1a), (1b), (25)에서 *also*는 각각 중장 Mittelfeld (=MF)과 후장 Nachfeld (=NF), 전장 Vorfeld (=VF)에 위치하는데, 예문 (25)와 같이 *also*가 전장에 위치하는 것은 오직 ‘추론적 관계를 도

<sup>104</sup> Drach(1937)에서 파생되어 그 후 계속 발전해온 위상적 문장 모델로 독일어 어순을 기술하기에 유용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명철 역 (2006: 121) 참조.

<sup>105</sup> 풀어쓰기, 수정, 요약, 부연, 상술을 도입하는 ALSO의 경우 전장을 제외한 전전장, 중장, 후장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나 추론적 관계를 도입하는 ALSO나 담화를 도입하는 ALSO와 달리, 일관성 있는 분포적 특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sup>106</sup> 본 장에서는 예문의 문맥 확인을 위해 앞서 사용하였던 예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예문의 경우 ㄱ, ㄴ, ㄷ 등의 한글 자음으로 표시한다.

입하는 ALSO'에서만 확인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5`) ich konnte ihn nicht bewegen. **Also** || das || musste || rausoperiert werden.

VVF    VF    LK            RK

예문 (25`)는 예문 (25)에서 전장에 위치하였던 *also*를 전전장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추론적 관계를 도입하는 ALSO’가 전전장에 위치하면 *also*의 기존 담화연결성이 상실된다. 예문 (25`)에서 후행 사태 ‘das musste rausoperiert werden’은 예문 (25)에서처럼 선행 사태 ‘ich konnte ihn nicht bewegen’의 추론의 결과, 즉 선행 사태의 타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lso*의 위치가 전장에서 전전장으로 이동함으로써 예문 (25`)의 후행 사태는 선행 사태와 인식적 관계 epistemischer Bezug로 연결되어, 선행 사태에 대한 화자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also*의 문장 내 위치와 담화연결성의 긴밀한 상관 관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로서 2.1장에서 살펴보았던 *jedenfalls*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4) *jedenfalls* (-), || h wir || fahren || da zu eh nach hAUse || zuRÜ CK.

VVF            VF    LK            MF            RK

(14`) *jedenfalls* || fahren || wir da zu eh nach hAUse || zuRÜ CK

VF    LK            MF            RK

예문 (14)에서처럼 전전장에 위치하는 *jedenfalls*는 주제적 이탈 Abschweifung 후에 발화를 상위의 전체 담화 구조로 다시 엮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예문 (14`)와 같이 *jedenfalls*가 전장에 위치할 경우, 담



화를 조직하는 기능이 중단되고 일반 부사로서 화법적 의미 *modale Bedeutung*를 나타낸다. 예문 (14)의 전전장에 위치한 *jedenfalls*는 담화의 구성을 위해 메타 담화 층위와 연결되는 반면, 예문 (14')의 전장에 위치한 *jedenfalls*는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sup>107</sup> 이처럼 ‘추론적 관계를 도입하는 ALSO’는 다른 기능들과 달리 전전장에 위치할 수 없다. 다음은 ‘담화를 도입하는 ALSO’의 예이다.

(57) Na ja, **also** || die erste Operation || war || Anfang der achtziger Jahre mit

**VVF**                      VF                      LK                      MF

dem Gelenk, was eben zweimal gemacht werden musste.

NF

(60) Ja. **Also** - - - || es || begann || 2003 im September hatt ich einen schweren

**VVF**              VF      LK                      MF

Autounfall.

(61) **Also** || ich || lag || dann nur noch im dunklen Raum || weil ich ständig

**VVF**    VF      LK                      MF                      NF

Migräne hatte.

인터뷰 대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모든 경우에 전전장에 위치한다. 이때 예문 (57)과 (60)에서 보듯이, ‘Na ja’ 및 ‘Ja’ 와 같은 표현이 *also*의 앞에 위치할 수 있는데, 이는 ‘질문-대답’의

<sup>107</sup> Thim-Mabrey(1988:53)에 따르면, 어떤 언어적 표현이 문장 내의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 가능함에도 전전장에 위치한다면 이는 분명히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다.

담화 구조에서 ‘Na ja’ 및 ‘Ja’로 앞선 ‘질문’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 이어지고, *also*로서 질문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대답이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담화연결성과 문장 내 위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담화연결성	전전장	전장	중장	후장
추론적 관계의 도입	X	O	O	O
담화의 도입	O	X	X	X

결론적으로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와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상반되는 문장 내 분포적 특성을 갖는데, 이는 두 개의 담화연결성이 갖는 기능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언어적 표현이 문장 내의 전전장에 위치한다면 이는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8</sup> 메타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전반에 걸쳐 발화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담화의 구성에 영향을 끼친다.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담화의 구성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반면,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하는 사태와 후행하는 사태와 관계하여 추론적 관계를 명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sup>108</sup> Vgl. Thim-Mabrey (1988: 53).

## 부설: *deshalb*의 담화연결성

여기에서는 연결사 *also*와 함께 독일어의 전형적인 수행적 추론 연결사<sup>109</sup>에 속하며 제한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deshalb*의 담화연결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결과 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적 부사에 관한 선행 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deshalb*는 추론적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 귀속 Folge-Zuordnung’ 부사로 정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들로는 *also*, *somit*, *mithin*, *deshalb*, *darum*, *daher*, *deswegen* 등이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하위분류 될 수 있다. Pasch et al.(2002: 13)는 결과 귀속의 부사들을 어휘의 구성적 특성에 따라 지시적 성분과 관계적 성분으로 이루어진 대명사적 부사(*deshalb*, *deswegen*, *darum*, *daher*)와 접속사적 부사(*also*, *somit*, *mithin*)로 구분한다. Hartung(1961: 190ff.)은 결과 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모두 접속사적 부사로 명명하고, 대체 테스트 *Ersetzungsprobe*를 통해 세 개의 그룹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그룹1: *folglich*, *somit*, *mithin*, *demnach*

---

<sup>109</sup> Vgl. Burkhardt(2002: 182), Waßner(2004: 378).

그룹2: *deshlalb, darum, daher, infolgedessen, deswegen*

그룹3: *also*

그룹1의 부사들은 그룹2와 3에 속하는 부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의미상 ‘추론 Schlussfolgerung’ 관계를 나타낸다. 그룹2는 맥락에 따라 다른 그룹의 부사로 대체 가능하거나 동일 그룹의 부사로만 대체 가능한 부사를 포함하는데, 다른 그룹의 부사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추론’ 관계를 나타내고, 동일 그룹의 부사로만 대체 가능한 경우는 직접적인 사태의 ‘결과 Folge’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룹3은 위의 모든 대체 가능성을 포함하는데, ‘추론’ 관계를 나타내며 그룹1과 그룹2의 부사들로 대체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사태의 ‘결과’를 이끌며 그룹2의 부사들로만 대체 가능하며 동시에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맥락이 존재하는 부사를 포함한다. Hartung(1961)의 연구를 통해, *deshlalb*로 연결되는 두 가지 의미적 관계로서 ‘추론’과 사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Hartung(1961: 204)의 의미에서 ‘추론’은 ‘화자가 이끄는 결과 Konsequenz, die der Sprecher zieht’를 의미하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also*의 담화연결성으로 언급된 ‘추론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0</sup> Hartung(1961)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룹 3에 포함되는 *also*는 *deshalb*에 비해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 차이는 *also*와 *deshalb*의 어휘의 구성적 특징과 일치한다. Pasch(2003: 558)는 연결사로 기능하는 대명사적

---

<sup>110</sup> 본 논문의 3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논리학적 의미의 ‘추론’과 달리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 ‘추론성’에서 발화된 사태들이 실제 참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부사의 직시적 성분과 관계적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sup>111</sup>

- a) 직시적 성분은 문장구조를 통해 기술된 사태로 연결되며, 기술된 사태는 문장구조와 동일지시 **Korreferenz** 관계를 갖는다.
- b) 관계적 성분은 대명사적 부사가 포함된 문장 구조를 의미적으로 연결한다

(64) (a) [Hans geht gern zu Tanzvergnügen], obwohl ihn seine Freunde [des]halb verachten.

(b) Weil [es kalt ist], [des]halb ziehen wir heute Wintermäntel an.

(Pasch 2003: 558)

예문 (64)에서 ‘[ ]’는 동일지시 관계에 있는 언어적 표현을 표시한다. *deshalb*의 직시적 성분 ‘des-’는 후방조응적으로 선행하는 문장의 일부분을 지시하고 관계적 성분 ‘-halb’는 후행하는 문장을 결과 귀속적 의미로 연결한다. 반면 본 논문의 2장에서 살펴본 *also*의 직시적 성분 ‘-

---

<sup>111</sup> 모든 대명사적 부사가 연결사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a) Der Lehrer kündigte der Diktat an. *Darauf* ging sofort ein großes Gejammer los.

(b) Du hilfst mir doch beim Renovieren? *Darauf* zähle ich.

(c) Siehst du den Tisch dort? *Darauf* tanzen nachts immer die Mäuse.

(Pasch 2003: 557)

예문 (a), (b), (c)는 각각 대명사적 부사 *darauf*의 연결사, 전치사적 목적어, 전치사적 부사로서의 쓰임을 보여준다. 예문 (a)에 대명사적 부사 *darauf*는 결합가와 무관한 연결사로 사용되어 직시적 성분 ‘da-’는 선행하는 문장의 기술된 사태를 지시한다. 반면 (b)의 *darauf*는 동사 ‘zählen’의 보충어로 기능하며 (c)의 ‘da-’는 사물을 지시한다. 즉 대명사적 부사가 (a)와 같이 연결사로 기능하려면, 결합가와 무관하고 관계적 성분이 전치사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a)의 쓰임처럼, 항상 연결사로 사용되는 대명사적 부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Pasch(2003)는 항상 연결사로 기능하는 대명사적 부사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damit, daraufhin, demnach, demzufolge, derweil(en), desgleichen, deshalb, überdies, um dessentwillen, von daher, zudem*

so’는 후방조응 혹은 전방조응적으로 선행 혹은 후행하는 문장의 일부를 모두 지시할 수 있다. *deshalb*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기능화용론적 의미에서 *deshalb*를 구성하는 직시적 성분과 관계적 성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2. *deshalb*의 절차적 특성

*deshalb*는 ‘des-’와 ‘-halb’의 합성어이다. Grimm(1984)에 따르면, ‘des’는 ‘desto’의 축약형으로 고대고지 독일어의 ‘des diu’, 중세고지 독일어의 ‘deste’를 나타내며, 이는 지시대명사의 소유격과 도구격을 의미한다. ‘halb’는 전치사로서 고대고지 독일어의 ‘halba’에서 파생된 형태로 ‘방향 Richtung’, ‘쪽 Seite’을 의미하였다. ‘halb’는 고대고지 독일어에서부터 장소적 의미와 인과 관계의 의미로 나뉘어 사용되었는데, 현대 독일어의 *innerhalb*와 *unterhalb*가 장소적 의미의 ‘halb’에서 파생된 것이고, *deshalb*는 인과적 의미의 ‘halb’에서 파생된 합성어이다.<sup>112</sup> *deshalb*는 명사가 전치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2격 지배 전치사로 발전하여 ‘von Seiten, mit Rücksicht auf, wegen’의 전용된 의미로 사용되었다.<sup>113</sup> *deshalb*의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의 과정은 기능화용론의 절차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명명장에서 연산장으로의 변화이다. ‘halb’는 ‘방향 Richtung’, ‘쪽 Seite’의 명명장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적 의미로 변화하였다.

<sup>112</sup> Vgl. Grimm (1984: 1027ff.), <http://woerterbuchnetz.de/DWB>.

<sup>113</sup> 원래 역사적으로 2격을 지배하는 전치사가 몇 개 되지 않았는데, 일부 명사가 전치사로 변화하였고, 이때 2격 지배 전치사가 다수 등장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Dal(1966:58) 참조.

*deshalb*의 구성적 특성을 절차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ccc}
 \text{'des'} & + & \text{'halb'} \\
 \text{직시장} & + & \text{명명장} \\
 & \downarrow & \text{<장 전환>} \\
 \text{'des-'} & + & \text{'-halb'} = \text{'deshalb'} \\
 \text{직시장} & + & \text{연산장} = \text{연산장}
 \end{array}$$

직시 절차 ‘des-’를 통해 청자와 화자의 주위력이 공동 지시 영역의 한 요소로 집중되고, 연산 절차 ‘-halb’를 통해 다른 사태와 연결되어 초점화된 언어적 지식이 처리된다. 다음의 예문 (8)을 살펴보자.

(8) *wenn wir nicht weinen, wer soll denn weinen? **deshalb** habe ich geweint.*

GÖTHE

(Grimm 1984: 1030)

직시 절차 ‘des-’를 통해 선행하는 언어 행위 ‘wenn wir nicht weinen, wer soll denn weinen?’가 초점화되고,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halb’로 초점화된 선행 언어 행위가 후행 언어 행위의 ‘타당한 이유 혹은 근거’로서 연결되면서 계속되는 언어 행위로 통합된다. 다음 장에서는 4장에서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실제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연산 절차를 나타내는 *deshalb*의 담화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deshalb*의 담화연결성

여기에서는 본 논문에서 분석자료로 사용된 *german DIPEX* 세 개의 인터뷰 자료 이외에 여섯 개의 인터뷰 자료를 추가하여 *deshalb*의 담화연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14</sup>

#### 3.1 추론성을 도입하는 DESHALB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론성’은 발화된 사태들의 추론 관계, 즉 전제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로부터 결론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를 이끌어 냄을 명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 관계로서 화자가 이끄는 결과를 도입한다. 추론적 관계를 표시하는 ‘추론적 DESHALB’의 예를 살펴보자.

(65) CS 14-8쪽

01 P: *Es ist einengend klar aber es ist auch ne volle Bereicherung, weil das ne*

02 *einfach ne Wahrnehmung fördert oder ja.*

03 I: Fällt Ihnen da n Beispiel ein, in dem man Ihnen, wann Ihnen das mal klar

04 *geworden ist oder war das mehr sowas allmähliches*

---

<sup>114</sup> 방대한 분량의 인터뷰 자료에도 불구하고 *deshalb*는 *also*와는 달리 매우 제한된 맥락에서 사용되어 다양한 경우를 확인할 수 없었다.



05 P: Das ist mehr oder weniger allmählich entstanden, also Nichts, wo ich jetzt

06 sag wow

07 I: (lacht) Ja.

08 P: Ja. Ne. Das vielleicht sagt man auch **deshalb**. Wenn man älter wird, wird

09 man reifer. Ne. Das Spektrum erweitert sich an an

예문 (65)는 질병으로 인한 친구 및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한 질문 뒤에 이어진다. 인터뷰이는 줄번호 01-02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본인의 인식 변화를 이야기하며 “질병으로 인해 제한되는 게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Es ist einengend klar aber es ist auch ne volle Bereicherung, weil das ne einfach ne Wahrnehmung fördert oder ja”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인터뷰이는 줄번호 03-04에서 언제 그러한 생각이 분명해졌는지 혹은 점진적으로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다. 줄번호 08의 *deshalb*의 직시절차 ‘des-’를 통해 줄번호 01-02의 언어행위 ‘질병으로 인해 제한되는 게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이다’가 초점화되고 연결사 *deshalb*의 연산 절차 ‘-halb’로 인해 언어행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하는가보다 Das vielleicht sagt man auch. Wenn man älter wird, wird man reifer’가 줄번호 01-02의 선행언어행위의 타당한 결론으로 연결된다. 이때 *wenn*절은 선행언어행위의 지시대명사 *das*로 지시된다.

(66) CS 16-22쪽

01 P: Und dann denke ich immer, wenn ich jetzt eine Wohnung mieten müsste,

- 02 dann wäre das ja viel mehr. *Bloß hier haben wir halt jetzt mehr*  
 03 *Nebenkosten, weil da kommt ja Instandsrücklage dazu, dann kommt*  
 04 *Grundsteuer dazu und deshalb* habe ich mehr Nebenkosten wie jetzt ein  
 05 Mieter.

예문 (66)은 질병을 겪은 이후에 경제적 상황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이다. 인터뷰이는 질병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저축한 모든 돈은 바닥이 났으며, 이제 은행 대출로 얻은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줄번호 01-03에서 “세를 산다고 해도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며 물론 지금도 수선충단금이나 토지세를 포함하면 더 많은 부대 비용을 낸다 *Bloß hier haben wir halt jetzt mehr Nebenkosten, weil da kommt ja Instandsrücklage dazu, dann kommt Grundsteuer dazu*”라고 이야기한다. *deshalb*의 직시 절차를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 ‘물론 지금도 수선충단금이나 토지세를 포함하면 더 많은 부대 비용을 낸다’가 초점화되고, 연산 절차를 통해 후행 언어행위 ‘현재 마치 임차인과 같이 더 많은 부대 비용을 내고 있다 *ich habe mehr Nebenkosten wie jetzt ein Mieter*’는 선행 언어행위의 타당한 결론으로 연결된다.

(67) CS 31-9쪽

- 01 P: Der gleich sagte in der Tür, ja, warum es nicht geklappt hat, weiß er auch  
 02 nicht, er hatte wahrscheinlich viel zu tun, **deshalb** muss er mich noch  
 03 einmal sehen, aber es ändert an dem Gutachten nichts.

예문 (67)의 인터뷰이는 병의 진단을 위해 위장관 내과, 정신과, 심장

전문의 등을 찾았으나 모두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실망만 하고 돌아온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심장전문의를 찾았을 때는 전문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레지던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듣게 되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다. 줄번호 01에서 렌지던트는 “전문의가 그 당시 진단하지 않았던 이유를 자신도 잘 모르겠지 만 아마도 그때 전문의가 할 일이 많았을 것이며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봐야하지만 진단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deshalb*의 직시 절차를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 ‘er hatte wahrscheinlich viel zu tun’가 초점화되고 후행 언어행위 ‘그가 나를 다시 한번 봐야한다 muss er mich noch einmal sehen’와 연결된다. ‘추론성을 도입하는 DESHALB’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추론성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3.2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

*deshalb*로 도입되는 ‘결과 Folge’는 선행 사태 ‘이유 Grund’에 해당하는 선행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도입한다.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 Folge einleitendes DESHALB’의 예를 살펴보자.

(68) CS12-7쪽

01 P: Ich bekam dann das Asco Top Nasenspray. Mir hilft's. dauert zwar länger  
02 von bis es wirkt, wie die Imigran Spritze und das war dann schon eine  
03 große Hilfe, dass man kupieren konnte und die Attacken keine zwei stunden  
04 mehr dauern, sondern man ist in einer viertel Stunde zwanzig Minuten ist  
05 die Attacke rum –wobei man ist auch nach den zwanzig Minuten nicht fit.  
06 Man braucht gut eine Stunden anderthalb Stunden, bis man - überhaupt  
07 wieder realisiert, was ist um mich, wie gehe ich damit um, wie kann ich  
08 wieder auf die Füße komme und dann kann es passieren so. *Ich bin jetzt*  
09 *damit ja, dass ich überhaupt gerade wieder auf den Füßen und dann kommt*  
10 *die nächste Attacke* und -ja es darf halt nur eine gewisse Menge des Asco  
11 top oder Imigran genommen werden, **deshalb** *ist halt der Sauerstoff*  
12 *daheim-* nehm ich viel Sauerstoff. das andere heb ich mir immer auf für  
13 unterwegs. Ich hab zwar auch eine kleine Flasche Sauerstoff aber die ist so  
14 schwer - die hat sieben Kilo und die zu tragen - ist einfach, wenn man die  
15 Möglichkeit hat mit dem Asco Top oder Imigran. Man hat's. Man greift  
16 dann eher zu diesen Sachen wie zum Sauerstoff.

예문 (68)은 군발성 두통 Clusterkopfschmerz으로 인한 발작을 겪는 어느 환자의 인터뷰 일부이다. 진단 이후에 치료와 처방받은 약물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인터뷰어 질문에 대해 답하는 부분이다. 인터뷰이는 줄번호 01-08에서 아스코톱 Asco Top과 이미그란 Imigran이라는 두 가지 약품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발작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줄번호 08-11에서 인터뷰이는 본인에게 발작이 일어나면 일정량의 아스코톱 혹은 이미그란을 복용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줄번호 11

의 *deshalb*의 직시 절차 ‘des-’를 통해 줄번호 08-09의 언어행위 ‘내가 지금은 마침 다시 서있고, 그리고 나면 또 다음 발작이 올 것이다 Ich bin jetzt gerade wieder auf den Füßen und dann kommt die nächste Attacke’가 초점화되고, 연결사 *deshalb*의 연산 절차 ‘-halb’로 인해 후행하는 언어행위 ‘정말로 집에 산소(통)가 있다 halt der Sauerstoff ist daheim’가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연결된다.

(69) CS 12-15쪽

01 P: *Es ist immer noch Kontakt zu den Arbeitskollegen, die anrufen, wo man*  
 02 *mal Kaffee trinken gehen und solche Sachen und - Das ist einfach. Deshalb*  
 03 *ging das mit dem Arbeiten. Hätte ich das nicht gehabt die Kollegen und die,*  
 04 *die mitgeholfen haben - Hätte ich das gar nicht durch gestanden.*

예문 (69)는 발작이 있는데도 어떻게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이다. 인터뷰이는 사장과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한 예로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그런 일들로 여전히 동료들과 연락을 한다 Es ist immer noch Kontakt zu den Arbeitskollegen, die anrufen, wo man mal Kaffee trinken gehen und solche Sachen”라고 이야기 한다(줄번호 01-02). 줄번호 02의 *deshalb*의 직시 절차를 통해 선행 언어행위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그런 일들로 여전히 동료들과 연락을 한다’가 초점화 되고, 연산 절차 ‘-halb’로 인해 후행 언어행위 ‘일이 가능했다 das ging mit dem Arbeiten’는 선행하는 언어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용된다.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결과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이 장에서는 *deshalb*의 담화연결성을 확인하였다. ‘추론성을 도입하는 DESHALB’와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 총 2개의 담화연결성이 확인되었으며, *also*에 비해 매우 제한된 사용 맥락을 갖는다. *also*와 *deshalb*의 기능의 다양성의 차이는 두 어휘를 구성하는 직시적 절차의 지시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5.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

여기에서는 *also* 와 의미상·기능상 대역어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15</sup>

### 5.1 ‘그러니까’의 절차적 특성

‘그러니까’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로서 형태적으로 ‘그러-’계열 접속사에 속한다.<sup>116</sup> 안주호(2000: 118ff.)에 따르면, ‘그러-’ 계열 접속사의 출현 시기는 중세국어 이전으로 약 4 개 정도의 ‘그러-’ 계열 접속사가 중세국어에 출현하고 현대국어에서는 ‘그러니까’를 포함한 약 30 개의 ‘그러-’ 계열 접속사가 사용된다.<sup>117</sup> ‘그러-’ 계열 접속사는 동사어간과 연결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의 본말 ‘그러하니까’는 ‘그러하(다)’+ ‘-(으)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어간 ‘그러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를 의미하고 연결 어미 ‘-(으)니까’는 ‘-(으)니’에 ‘-(으)니’를 강조

<sup>115</sup> ‘그러니까’ 뿐 아니라, ‘따라서’, ‘그러므로’ 역시 *also*와 대역어 관계에 있다. 그 중 ‘그러니까’가 *also*의 담화연결성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sup>116</sup>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러니까’를 ‘그러하니까’와 ‘그러하니까’의 줄임말로 본다. 그러나 서정수(1994), 허웅(1996), 안주호(2000), 김금하/최재웅(2000), 조민정(2015), <<연세한국어사전>>(1998) 등 여러 국어학자들에 의해 ‘그러니까’는 ‘그러-’계열 접속사로 분류된다.

<sup>117</sup> 이러한 변화는 텍스트의 구성적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종결어미를 가진 온전한 문장들이 결합되어 텍스트를 이루지 않고 연결어미로 끝나는 절들이 길게 연속되어 텍스트를 형성하므로 접속사가 드물게 사용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주호(2000: 118ff.) 참조.

하는 어미 ‘-까’가 덧붙여진 표현이다. ‘-(으)니’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서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쓰인다. ‘-(으)니까’는 ‘-으니서’ 형태로 19 세기에 처음 등장하며 ‘원인’ 혹은 ‘발견 및 경험’의 의미를 지녔고 이 중 ‘원인’의 의미가 접속부사 ‘그러니까’로 승계되었다.<sup>118</sup>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 언급한 *deshalb*의 구성적 특징과 일치한다.<sup>119</sup> ‘-(으)니까’는 ‘원인’을 의미하는 명명장에서 (넓은 의미의)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변화하였다. ‘그러니까’의 절차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하다)	+	(으)니까	
직시장	+	명명장	
		↓	<장 전환>
그러(하다)	+	(으)니까	= 그러니까
직시장	+	연산장	= 연산장

이를 앞에서 살펴본 *also*의 절차적 특성과 비교해보자.

<sup>118</sup> Vgl. 안주호 (2000: 127, 137).

<sup>119</sup> *deshalb*의 ‘-halb’는 ‘방향 Richtung’, ‘쪽 Seite’을 의미하는 명명장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적 의미로 변화하여, 현대 독일어의 *deshalb*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deshalb*의 구성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des’	+	‘halb’	
직시장	+	명명장	
		↓	<장 전환>
‘des-’	+	‘-halb’	= ‘deshalb’
직시장	+	연산장	= 연산장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부설 참조.



‘al-’ + ‘-so’ = ‘also’

명명장 + 직시장 = 직시장

↓ <장 전환>

‘al-’ + ‘-so’ = ‘also’

명명장 + 직시장 = 연산장

‘그러니까’는 접속부사로 처음 형성된 현대국어 시대부터 ‘그러니까’를 구성하는 연결 어미 ‘-(으)니까’가 명명장에서 연산장으로 장 전환하여 연산장에 속하였고, 반면 *also* 는 중고지 독일어에서 신고지 독일어에 이르기까지 ‘so’의 강조형인 ‘ganz so’의 의미로서 직시 절차로 사용되었다가 장 전환<sup>120</sup>을 통해 현재의 의미인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 연결사로 전화되었다.

## 5.2 분석 자료

한국어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디팩스 코리아 DIPEx Korea (healthstory4u.co.kr)의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였다. 디팩스 코리아는 디팩스 인터내셔널 DIPEx international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당뇨, 유방암, 위암, 우울증,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매의 6개 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sup>120</sup>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장 전환 Feldtransposition’ 혹은 ‘질적 변화 Qualitativer Umschlag’라 하며, 일반적으로 소위 기능화라 일컫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2.1.2 참조.

각 질병마다 40~50 개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당뇨병 모듈의 4 개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할 것이다. 각 인터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인터뷰	쪽수	인터뷰 시간	‘그러니까’의 사용	비고
A	24쪽	1시간 30분	11회	그러니까 2회
B	29쪽	1시간 30분	30회	
C	19쪽	36분	30회	근까 1회, 그러니까 1회
D	11쪽	42분	7회	그니까 3회

### 5.3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의 유형

#### 5.3.1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행 언어행위와 통사적 혹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대용어적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의 예를 살펴보자.

(70) B-2쪽<sup>121</sup>

<sup>121</sup> 본 논문의 한국어 전사 자료에 사용된 문장 부호는 억양을 기준으로 발화의 단위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쉼표 ‘,’는 발화의 한 단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휴지를 두는 경우에 사용되며, 마침표 ‘.’는 발화의 한 단위가 끝난

01 환자: 인슐린 맞다가 아... 너무 못 맞겠는거예요. 뭣 달 맞으니까...  
 02 (웃으면서) 죽겠는거야, 그래서 요 선생(님?) 선생님이 오시고  
 03 그래가... 선생님 인슐린 주사를 너무 못 맞겠다고, 어후, 진짜  
 04 힘들다고 약으로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럼 운동 좀  
 05 하고 근데 당이 그렇게 안떨어지네요. 운동하고 식이요법하라  
 06 그래서, 그때 식이요법하는데서 그때 가서 만육천원주고 했는데  
 07 (와 그래잖다?) 식이요법이 무엇이고 나는 그 음식 그렇게 삼시 세  
 08 때 먹으면 죽어뿌겠다. 음식이 또 엄청 많더라구. 이걸 오우,  
 09 이렇게 많이 먹는 데가 어디있나. 나는 아침도 잘 안 먹는데, 근데  
 10 그렇게 뭐, 먹는데 봐야 커피 한두 잔? 먹구, 아침밥 조금씩 먹구,  
 11 나는 육식을 일절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먹는데봐야 뭐, 김치, 빵  
 12 종류, 떡 종류를 좀 좋아하는 편이지.

예문 (70)에서 환자는 당뇨병 치료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때 줄번호 04의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하는 언어행위 ‘선생님 인슐린 주사를 너무 못 맞겠다고, 어후, 진짜 힘들다고 약으로 주면 안 되겠냐고’가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 행위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 ‘그럼 운동 좀 하고’가 연결된다.

(71) 환자: 선생님 인슐린 주사를 너무 못 맞겠다고, 어후, 진짜 힘들다고  
 약으로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운동 좀 하고

---

경우에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평서문의 경우 발화의 억양이 하강하는 경우를 발화의 한 단위로 본다. 말줄임표 ‘...’는 억양이 하강하지 않고 지속되며 망설이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 말을 잠시 끊거나 줄였을 때 사용한다. 또한 중요한 비언어적 행위는 해당 부분 앞에 중괄호 ‘()’로 표시하고, 오디오의 문제로 제대로 청취할 수 없는 음절은 들리는 대로 적고 ‘(?)’로 표시하였다.

대체 테스트를 통해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문 (71)과 같이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니까’로 대체될 수 있다.

(72) B-22쪽

- 01 인터뷰어: 그 전에 자존심이 약간 걸리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  
02 신가? 예를 들면 당뇨는 무언가 관리를 안 해서 온 것 같다는 그  
03 런 느낌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신지 그 말씀을  
04 조금만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 05 환자: 친구들 이렇게 아이고 저기 그런 게 있잖아요. 당이란 게 옛날에  
06 그런 속담도 있잖아 ‘당뇨병에 걸리면 돈도 안 빌려준다.’ (웃음)  
07 그런 병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내가 죽을병이 걸  
08 렸나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인색한 걸 생각하면 우리 어머  
09 니들이 그랬잖아요. ‘당뇨병에 걸리면 돈도 안 빌려준다.’ 그러면  
10 자존심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 우리 언니들이 “의사들이  
11 당뇨병도 이제 고친다고 하더라.” “어디서?” 그러니까 “미국에  
12 어디 그런 게 있더라.” “언제 올까?” “아이고, 나는 나는 살만큼  
13 살았는데, 너도 살만큼 살았는데” 우리 언니들이 같이 오면 그런  
14 소리를 하지.

예문 (72)는 당뇨병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관한 부분이다. 환자는 당뇨병에 대해 자신의 형제들과 나눈 이야기를 인용하며 줄번호 11에서 ‘그러니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발화 ‘어디서?’가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 행위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 ‘미국에 어디 그런 게 있더라.’가 연결된다. 예문 (70)과 마찬가지로 줄번호 11에 나타난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니까’로 대체될 수 있다.

(73) D-6쪽

- 01 인터뷰어: 그,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잘 안된 거 같다 그러시는데, 의사 선  
02 생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러세요?  
03 환자: 의사 선생님한테는 얘기했습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내가 20단  
04 위, 10단위 이렇게 놓다가, 나대루 이젠 2단씩 올려놓다가, 하루  
05 하루 봐도 마찬가지로. 그래 4단을 올렸어요. 그래 이제 아까 얘  
06 기하니깐 그렇게 놓으라고. 그리고 처음은 내가 퇴원해서 사십  
07 뿔 단위까지 맞았는데, 나대로 이젠 약 처방을 한 달 내주는데,  
08 나대로 조절하면서 20단위 꺼지도 내려갔어요. 매일 적으면서  
09 이거 뭐 또 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폐파로 적어. 그래  
10 다행히 내려가니까, ‘아이구, 잘했다’ 이러는 거야. (웃음)

예문 (73)에서 인터뷰어는 당 관리에 대한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 내용에 관해 묻는다. 줄번호 03에서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발화 ‘의사 선생님한테는 얘기했습다.’가 초점화되고 ‘그러니까’의 후행 발화 ‘얘기하니까’를 통해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의 의미가 반복된다. 이후에 줄번호 03-05에서 환자가 스스로 투약한 내용 ‘내가 20단위, 10단위 이렇게 놓다가, 나대루 이젠 2단씩 올려놓다가, 하루하루 봐도 마찬가지로. 그래 4단을 올렸어요.’이 언급되고, 줄번호 05에서 ‘그래 이제 아까 얘기하니깐’을 시작으로 다시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답 ‘그렇게 놓으라고’로 회기한다.

(74) B-28쪽

- 01 인터뷰어: 잠깐 그 회 드셨을 때 상황 좀 여쭙 봐도 될까요?  
02 환자: 회 회 그날 회도 많이 안 먹었어요. 한 접... 내가 회도 그렇게

03           즐거 안 해가지고. 그 시동생이 홍어회를 갖다 줬는데 홍어회가  
 04           싱싱했어요. 삭힌 것도 아니고, 목포에서 갖고 왔다고 (?) 우리  
 05           아저씨가 그래 좋아하시니까 같이 한 점 저녁에 먹고. “이거만  
 06           먹으면 안 되겠다. 밥 먹자.” 그러더라고 “뭘 밥을?” “햇밥  
 07           해먹자.” 하면서 밥을 상추에다가회는 안 넣고 상추에 초장에다  
 08           가 비빈 거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어 막 그날 새벽 4시나  
 09           되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 이 완전 쓰러졌다니까요. 그래  
 10           서 아침 8시가 인제 개인병원에 갔는데, 주사나 한 대 주더라고.  
 11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큰 병원 가야겠더라고. 조카가 있어가지  
 12           고 차 가지고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그러고 저녁에 해가 지(치?)  
 13           11시더라고. 주사를 한 대 맞고 **그러니까 풀리더라고**. 그래서 인  
 14           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약 타가지고 드셔야 한다고. 위 안정시키  
 15           고 5일 있다가 내시경 해야겠다고. “아우 선생님, 나 내시경 아파  
 16           죽겠다”고 하니까 “수면내시경 하라”고. “잘 됐네요. 수면내시경.”

예문 (74)에서 환자는 응급실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줄번호 13의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발화 ‘주사를 한 대 맞고’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 ‘풀리더라고’가 연결된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는 예문 (70)-(73)과 달리, 선행 발화 자체가 아닌 선행 발화에 나타난 행위를 지시한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가 선행 발화의 서술어에 나타난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로 대체될 수 있다.

(75) 환자: 주사를 한 대 맞고 그러니까/그렇게 하니까 풀리더라고.

다음은 상대방의 선행 발화에 동의하는 ‘그러니까’의 예이다.

(76) B-26, 27쪽

01 인터뷰어: 그러면 식생활이나 운동도 하려다가도 포기가 되는 건가요?

02 환자: (웃음) 그런 것도 있어요.

03 인터뷰어: *하셔야 하는데.*

04 환자: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아이고 그래서 난 아우 이게 병

05 이 무슨 병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지. 뭐

06 어떤 선생들은 “유전적이다. 부모가 그런 병을 앓았나. 뭐 형제

07 간에 있나” 선생님들 항상 큰 병원에 가면 그런걸 물어본다.

08 그럼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는 또 인제 풍 풍이 오셔가지고

09 돌아가시고 젊었을 적에 엄마는 또 당... 자식이라서 그런걸

10 받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평생 안 그런 형제도 있단 말이에

11 요. 건강한 형제가. 오빠 하고 위의 언니는 건강해요. (?)도 없이.

12 병원에 가면 당도 없고 혈 압도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 6형

13 젠데 언니, 나 밑에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은 신장까지 나빠서...

예문 (76)은 환자가 평소 당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줄번호 04 에 나타난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줄번호 03 의 인터뷰어의 선행 발화 ‘하셔야 하는데’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 ‘해야 하는 건 아는데’의 사태 층위가 연결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발화에 동의하는 ‘그러니까’는 ‘그렇다’ 혹은 ‘그러합니다’ 로 대체될 수 있다.

(77) 인터뷰어: 하셔야 하는데

환자: 그러니까/그러합니다. 해야 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를 통한 동의는 조건부적 동의이다. ‘그러니까’를 통해 상대방의 선행 발화에 동의한 이후에 선행 발화와 상반되는 내용의 발화 ‘해야 하는 건 아는데’가 이어지는데, 후행 발화의 서술어 ‘아는데’는 ‘안다. 그런데’의 줄임말로서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런데 (‘그러한데’의 줄임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선행 발화에 동의하는 ‘그러니까’는 예문 (70)~(75)에서 살펴 본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와 지시성은 동일하나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는 지시되는 발화의 주체가 본인인 반면, 선행 발화에 동의하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발화를 지시한다. 둘째,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는 발화의 단위가 끝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계속적 억양인 반면, 선행 발화에 동의하는 ‘그러니까’는 발화의 단위가 마침을 표시하는 하락 억양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78) B-2 쪽

01 인터뷰어: 응... 그런 거 드시면 당이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아요?

02 환자: 그러니까.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아... 진짜

03 못 먹는게 미쳐빠리겠어요 그냥.

예문 (78)은 환자의 식습관에 관한 이야기이다. 줄번호 02 에서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줄번호 01 의 인터뷰어의 선행 발화 ‘그런 거 드시면 당이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아요?’가 초점화되고, ‘그러니까’의 후행 발화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와



연결된다. 이는 예문 (78)과 마찬가지로 인터뷰어의 선행발화에 대한 조건부적 동의로서 ‘그러니까’ 이후에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양보적 의미의 후행 발화가 연결된다. 이는 후행 발화의 선행절의 서술어 ‘먹고 싶은데’에 포함된 접속 부사 ‘그런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선행 발화를 지시함으로써 후행 발화의 근거를 대는 것과 선행 발화를 지시하여 선행 발화에 동의하는 두 유형이다. 선행 발화를 지시함으로써 후행 발화의 근거를 대는 ‘그러니까’는 다시 선행 발화를 지시하여 후행 발화 자체의 근거를 대는 것과 선행 발화의 서술어에 나타난 행위를 지시함으로 후행 발화에 나타난 행위의 근거를 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후행 발화의 메타 담화 층위를 연결하여 담화 구성의 근거를 제시하며 ‘그렇게 말하니까’로 대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결적 특성은 본 논문의 4.9 에서 살펴본 후행 언어 행위의 담화의 구성적 층위를 연결하여 ‘담화를 도입하는 ALSO’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선행 발화의 서술어에 나타난 행위를 지시함으로 후행 발화에 나타난 행위의 근거를 대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로 대체 가능하다.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의 두 번째 유형인 ‘선행 언어행위에 동의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발화의 사태 층위와 연결되며 ‘그렇다’ 혹은 ‘그러합니다’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동의는 조건부적 동의로서, 선행 발화와 양보적 관계의 후행 발화와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와 선행 발화에 동의하는 ‘그러니까’는 지시하는 언어행위의 발화 주체와 억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행 발화 지시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발화 행위]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선행 발화의 행위 지시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선행 발화 동의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5.3.2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론성’은 전제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로부터 결론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를 이끌어 냄을 명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 관계를 가리킨다.

(79) A-16쪽

01 인터뷰어: 그런 부분들 이외에 가족들에게 혹시 섭섭한, 서운한 그런 부분

02           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03 환자: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몰라주니깐, 몰라주잖아요, 내가 저기고,  
 04 그런 것들을 챙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챙겨줄 수가 없어요, 사실.  
 05 섭섭하기 이전에 내가 그쪽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한테  
 06 는 오히려 낫죠. 섭섭한 것을 일일이 따지자면은 그게 또 끝이  
 07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  
 08 나 하는 쪽으로 맞춰나가는 거죠.

예문 (79)에서 환자는 가족들의 돌봄에 관해 이야기한다. 줄번호 07의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전제에 해당하는 선행 언어행위 ‘섭섭한 것을 일일이 따지자면은 그게 또 끝이 없어요’가 초점화되고, 후행 언어행위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가 타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진다.

(80) 환자: 섭섭한 것을 일일이 따지자면은 그게 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이처럼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로 대체될 수 있다.

(81) C-4쪽

01 인터뷰어: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2 환자: 그쵸... 근데 이제 그거 그거는 안 되는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03 뭐 뭐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어디에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  
 04 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뭐 먹어야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05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06 지역 같으면 뭐 한국 식당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쳐도, 뭐

07            외국 음식들 보통 이제 한국 식당이 없는 나라들 많이… 그러니  
 08            까 좀 어려운 나라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 막 이런데  
 09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순 없구요. 그냥 있는  
 10            대로 그냥 먹는 거죠 뭐… 네.

예문 (81)은 당뇨로 인한 음식 조절에 관한 이야기이다. 줄번호 04에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전제에 해당하는 선행 언어행위 ‘뭐 뭐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어디에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증위와 후행 언어행위 ‘가서 뭐 먹어야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가 연결되어 선행 언어행위에 대한 타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3.1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학적 ‘추론 관계’에서는 대개 ‘추론 규칙’이 명시적으로 언어화되지 않으며, 화자는 추론적 연결사를 통해 ‘추론 관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예문 (79)와 마찬가지로 줄번호 04의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로 대체될 수 있다.

(82) B-5쪽

01 환자:      우리 오빠는 또 거체서 평(?) 거 진짜 우리 올케가 해녀짓을 하  
 02            니까. 자기는 좀 편안하지. (웃으면서) 그러니까 (정?) 그런 병이  
 03            안 오는거그 거. 그런 생각이 쯔름 그거 한 사람들은 그런 병도 안  
 04            오는거 같고, 쯔름 마음이 쯔름… 나는 첫째로 부모 유전도 유전이지  
 05            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 같더라구.

예문 (82)에서 환자는 당뇨에 대한 가족력을 설명한다. 줄번호 02에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전제에 해당하는 선행 언어행위 ‘자기

는 좀 편안하지'가 초점화되고, 추론적 연결사 '그러니까'를 통해 후행 언어행위 '(정?) 그런 병이 안 오는거 그 거'는 선행 언어행위에 대한 타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선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로 대체될 수 있다.

(83) B-7쪽

- 01 인터뷰어: 어떻게 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어렵고 그래서 잘 못지키는 건  
 02 어떤 거고…  
 03 환자: 오… 어떤(제?) 약도 선생님이 딱 그날 먹구 아침에 먹구 저녁  
 04 에 또 먹으라 하는데 어떤땐 막 정신이… 손자들이 딱 오니까…  
 05 정신이 가물가물 이상해 버리고… 아후 생각해야지… 약도 그  
 06 때 다 두면 그게 (강조) 참 어렵더라고. 아침에 딱 먹고 또 저녁  
 07 에 딱 먹고 막 이게 어떨땐 한 번 빠질 때도 있다고 막 그 다음  
 08 날 아침에 먹기는 먹는데 그 그게 좀 어렵구 약먹는 게 (강조)  
 09 참 어렵구… 아후 막 다 어려운거 같애… 그러면 손자들을 이렇  
 10 게 안 봐줄수도 없다 아니에요. 한 집에 사니까 머느리하고 그러  
 11 니까 그것도 (강조) 참 힘들고… 그러다보면 내 (색?) 시간이 없  
 12 어. 내 시간이…

예문 (83)에서 환자는 투약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줄번호 09-10에서 '머느리하고 한 집에 사니까 그러면 손자들을 이렇게 안 봐줄수도 없다 아니에요.'가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초점화되고, 후행 언어행위 '그것도 참 힘들고...'에 대한 원인 혹은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와 후행 언어행위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증위와 연결되어 후행 언어행위는 선행 언어행위의 타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진다. 화자는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를 통해 전제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로부터 결론에 해당하는 발화된 사태를 이끌어 냄을 명확히 한다.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추론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로 대체될 수 있다.

추론성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증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5.3.3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풀어쓰기’는 연결사를 선행하는 언어행위 A와 연결사를 후행하는 언어행위 B 사이에 동의적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정보량의 변화 없는 동의어 혹은 유의어 관계를 뜻하며, 동일한 의미 표현의 반복은 이해의 확보 및 강화 등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갖는다.

(84)A-18,19쪽

01 환자: 당뇨가 나한테 준 것은 음. 좀 크고 광대하게 큰 생각을 하자면,

02 어. 어 나라에서… 이것을 못해 준 것 있잖아요. 이정도 당뇨의  
 03 대란이라면 이걸 국가적인 정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게  
 04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나, 내가 당뇨에 걸릴  
 05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다 당뇨에 걸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06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깨달음이 없이는*  
 07 *이걸 알 수 없는 병이다. 자기가 걸려보아야 안다는 거죠.*  
 08 *그러니까. 깨달아야 아는 거나 자기가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  
 09 *잖아요.* 비당뇨인들은 식생활 습관을 잘해야겠다. 그게 엄청  
 10 중요한 먹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먹거리가 엄청  
 11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은 데, 못하시는  
 12 분도 많아요. 문화가, 그런데 음식 문화에서 그런 것을 좀 많이  
 13 느끼죠. 당뇨에 대해서는 음식을.

예문 (84)는 당뇨로 인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줄번호 06-07에서 ‘이거 (당뇨)는 깨달음이 없이는 이걸 알 수 없는 병’이라는 발화의 의미는 ‘자기가 (병에) 걸려보아야 앎’을 의미한다. 이것과 유사한 의미의 언어행위 ‘깨달아야 아는 거나 자기가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가 연결사 ‘그러니까’ 이후에 반복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어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 행위 층위와와 유사한 의미의 후행 언어행위와 연결되고, 이와 같은 언어행위의 반복을 통해 의미가 강조된다.

(85) C-6쪽

01 인터뷰어: 특별하게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계신 음식이 있거나 영양식  
 02 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세요?

03 환자: 아... 아뇨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04 가지고 뭐 “이런 음식 드셔야 됩니다.” 뭐 이제 병원에서 예전에  
 05 제가 당이 없었을 때 뭐 그런거는 본 적이 있어요. ‘아, 이런  
 06 음식은 나도 이제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07 제가 딱히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고...  
 08 그러니까 뭐 그런건 있죠 뭐 인제 뭐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09 뭐 이런 뭐 기름기 많은 거 그거 좀 삼가야 되고 뭐 어찌고  
 10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또 개인적으로 또 그게 제일  
 11 좋아하는 취향이다 보니까 (웃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2 되도록이면 안 먹으라고 생각하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 뭐 웬만큼  
 14 이제 그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되도록 안 먹으려고...  
 15 그거는 뭐 조심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문 (85)는 식이요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환자는 줄번호 13에서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의 섭취 빈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급적이면’이라고 발화하고, 이는 ‘그러니까’ 이후에 ‘꼭 먹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으로 풀어쓰기 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 행위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발화 행위와 연결된다.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의 의미를 반복함을 뜻하는 ‘다시 말하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86) 환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먹으라고 생각하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 그러니까/다시 말하면 꼭 먹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차원과 후행 언어행위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 되고 연결되는 후행 언어행위는 선행 언어행위의 유사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된다.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선행 언어 행위의 내용의 반복을 뜻하는 ‘다시 말하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풀어쓰기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발화 행위]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5.3.4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의 예를 살펴보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은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인 언어행위 A와 그것을 바로 잡는 더 적절한 언어행위 B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되는 언어행위 A의 종류에 따라 언어학적 기준에 따른 발화 행위 층위 수정과 상호작용적 기준에 따른 담화의 구성적 차원의 수정으로 세분될 수 있다.

(87) A-2 쪽

01 인터뷰어: 가보시니깐 개인병원에서 이제 혈당수치가 높게 나오셨고,

02 환자: 네.

03 인터뷰어: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가신 거죠?

04 환자: 네, 입원을 했죠.

05 인터뷰어: 네, 11일 만에 다시 정상이 되신 건가요?

06 환자: (큰 소리로) 정상은 안 되죠.

07 인터뷰어: 네. 그러니까 조금...

예문 (87)은 당뇨병 진단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터뷰어는 환자에게 입원 기간 이후 당뇨 수치가 정상인 되었는지를 묻고 (줄번호 05), 환자는 이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정상은 안 되죠’라고 대답한다. 인터뷰어는 이어서 문제가 되었던 자신의 언어 행위를 ‘조금...’ 이라고 수정하며 자신의 발화의 의미를 제한한다. 연결사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더 적절한 표현의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 행위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이는 발화 행위 차원의 수정이다.

(88) 인터뷰어: 네, 11일 만에 다시 정상이 되신 건가요?

환자: (큰 소리로) 정상은 안 되죠.

인터뷰어: 네. 그러니까/제 말은 조금...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스스로의 발화 행위를 지시하는 ‘제 말은’으로 대체될 수 있다.

(89) B-21쪽

01 인터뷰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제가 여쭙보고  
 02 싶거나 아직 말씀 안 나오신 게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잠깐  
 03 더 말씀 들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간단한 몇 가지만 더 여쭙  
 04 볼게요. 당뇨에 관해서 정보를 얻는 가장 큰 어떤 그러니까  
 05 정보를 얻는 곳? 어떤 곳에서 당뇨에 관한 정보를 많이  
 06 얻으세요?

예문 (89)는 인터뷰어가 환자에게 병에 관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 묻는 부분이다. 인터뷰어는 줄번호 04에서 ‘당뇨에 관해서 정보를 얻는 가장 큰 어떤’이라고 묻다가 좀 더 간략한 표현으로 ‘정보를 얻는 곳’이라고 수정한다. 줄번호 04의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집중되고, 부적절한 선행 언어행위에 대한 적합한 표현인 후행 언어행위와 연결된다.

(90) 인터뷰어: 당뇨에 관해서 정보를 얻는 가장 큰 어떤 그러니까/제 말은  
 정보를 얻는 곳?

예문 (87)과 마찬가지로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스스로의 발화 행위 차원을 지시하는 ‘제 말은’ 으로 대체될 수 있다.

(91) C-18 쪽

01 환자: 그 다음에 인제 뭐... (뭔데?)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02 거의 없구요. 보통 사람들 만나구 뭐 하면 보통 한 시, 뭐... 열  
 03 두 시.  
 04 인터뷰어: 음. 대부분 한 시나 열두 시 정도...

- 05 환자: 네. 그 정도.
- 06 인터뷰어: 음. 그러면 대부분 한 시나 열두 시 정도가 술자리
- 07 환자: 그렇죠. 예.
- 08 인터뷰어: 에서 이제 되시는... 그게 인제 *대부분이라면 매일 하시나봐요.*
- 09 환자: **그러니까 주 오일...** 뭐... 토요일은 어차피 뭐 사람들 만나는게
- 10 아니니까, 주요일 근무라고 봤을 때 한 이 회 두 번 세 번은 한
- 11 열두 시...넘어 들어가구요. 예. 그 외에 한 두 번은 또 한 여덟
- 12 시, 아홉 시 그 사이... 네.

예문 (91)은 환자의 일상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환자는 줄번호 04 에서 ‘대부분 한 시나 열두 시 정도에 퇴근’을 한다고 하고, 인터뷰어는 이에 대해 ‘술자리’로 인한 늦은 퇴근인지를 묻는다. 줄번호 08 에서 인터뷰어는 술자리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제 대부분이라면 매일 하시나봐요’라고 묻고, 이에 환자는 ‘주 오일’이라고 답한다. 줄번호 09 의 ‘그러니까’를 통해 더 적절한 언어행위를 포함한 후행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 행위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다음은 문장의 구조를 수정하는 예이다.

(92) C-11쪽

- 01 인터뷰어: 네. 음... 그 당뇨에 대해서 그렇 당뇨가 없는 어떤 다른
- 02 사람들의 오해나 편견 같은 거를 경험해 보신 적 혹시
- 03 있으세요?
- 04 환자: *아직 제가 주변에서 당 근까 뭐 당 제 주변에 당뇨가 있는*
- 05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아버님 밖에 없구요. 제
- 06 주변에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 중에도 뭐 사실 없기

07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편견을 받거나 아니면  
08            편견을 느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  
09            같습니다. 예. (중략)

예문 (92)에서 인터뷰어는 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환자는 줄번호 04에서 ‘아직 제가 주변에서 당’이라고 발화하다가 ‘뭐 당 제 주변에 당뇨가 있는’으로 문장의 구성을 다르게 한다. 후행 발화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는 주변에 당뇨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려던 것에서 본인의 아버지의 경우를 떠올리며 발화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러니까’의 축약형 ‘근까’를 통해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집중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차원과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그러니까’의 축약형 ‘근까’는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의 ‘그리(하다)’의 ‘-러-’가 탈락하고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니’가 종성 받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의 축약형은 이외에도 ‘그니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차원의 부적합한 표현을 후행 언어행위의 더 적합한 표현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연결되는 후행 언어행위는 선행 언어행위의 더 적절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제 말은’으로 대체될 수 있다.

수정 [지시 방향 – 순방향]

[연결 층위 – 발화행위]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5.3.5 요약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약을 도입하는 ‘그러니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약’은 일반화된 요약과 구성적 요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화된 요약은 언어행위 A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상위어를 사용해서 수행되는 요약 행위이고, 구성적 요약은 언어행위 A에 나타난 사태의 통상적 조건 및 구성요소, 결과, 특성을 언급함으로써 수행되는 언어행위이다. 먼저 일반화된 요약의 예이다.

(93) A-12, 13 쪽

01 인터뷰어: 의사 선생님이 비당뇨인이기 때문에 당뇨인의 입장을 충분히

02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가 맞으신 건가요?

03 환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인제 알긴 알지만, 의사가 지시해

04 주는대로 과연 따라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어느

05 정도……

06 인터뷰어: 그러니까 그게, 당뇨인의 입장에서는 그 지시가 이해하기

07 어려운 점이 많다.

08 환자: 어렵진 않지만, 당뇨에 걸린 사람이라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09 의지력이라면 당뇨가 약하거나, 진짜 당뇨라면은 자기 의지대로

10 막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힘들죠, **그니까** 정신력이라든지 여러

11 가지로.

예문 (93)은 의사의 당뇨 관리를 위한 지시사항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줄번호 01-10에서 환자는 의사의 지시사항에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8-10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의지력이라면 당뇨가 약하거나, 진짜 당뇨라면은 자기 의지대로 막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힘들죠’라고 말한다. 줄번호 08-10의 선행 언어행위가 ‘그러니까’의 축약형 ‘그니깐’<sup>122</sup>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초점화 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차원과 후행 언어행위의 ‘정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가 연결된다. 후행 언어행위의 ‘정신력’과 ‘여러 가지’는 선행 언어행위에서 언급한 ‘의지력’과 ‘당뇨의 (심각한) 정도’에 대한 상위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는 언어행위의 요약의 도입을 지시하는 ‘요약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94) A-2쪽

- 01 환자: 예,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 음... 그러니깐 2005년도 말,  
 02 말쑤에... 그... 말 되기 전에 한... 6개월 여름부터 무기력증이  
 03 왔어요. 잠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04 일이 들어와도 일도 하기 싫고 계속 그렇게 집에만 있고  
 05 나가기도 싫고, 또. 낮에, 새벽 3-4시까지 잠을 안 자고  
 06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때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들면 낮. 뭐  
 07 2-3시까지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밥 먹고,  
 08 많이 먹죠 그러니까 양을, 밥을 많이 먹고 또 이제, 저녁때 이제  
 09 아는 사람들이 불러서 “뭐 먹자” 이렇게 하면 또 나가서, 뭐, 한  
 10 11시나 10시쯤에 만나서, 뭐, 한 1시 2시까지 고기니 뭐니 이런  
 11 것을 또 많이 먹고,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음료수를 콜라나 그  
 12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것을 거진 1.5리터 한 병씩을 거진 먹었어요.  
 13 그냥. [중략] 인제 그때 당뇨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sup>122</sup> ‘그니깐’은 ‘그러니까’의 축약형 ‘그러니까’에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이 종성에 덧붙여 축약된 형태이다.

14           입원을 하고, 11일 정도 돼가지고 혈당이 잡혀서 이제 당뇨 약을  
15           처방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해서, 당뇨 약을 계속  
16           먹으면서, 음... 이제 처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었죠. 그게  
17           처음 알은거죠.

12 인터뷰어: 그러니까 무기력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3 환자:     예예.

예문 (94)는 환자가 경험한 당뇨의 초기 증상부터 진단까지의 경과에 대한 내용이다. 줄번호 02에서부터 환자는 자신이 초기에 겪었던 ‘무기력증’과 ‘폭식’ 등의 증상들을 길게 이야기한다. 인터뷰어는 자신의 대화기여에서 ‘무기력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라고 환자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환자의 선행 언어행위를 요약하기 위해 선행하는 언어행위를 지시하는 대용어 ‘이렇게’를 사용한다. 연결사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차원과 선행 언어행위를 지시하는 대용어를 포함한 후행 언어행위 가 연결된다.

(95) B-21쪽

01 환자:     응. 아 어디 가서도 당이 걸렸다고 막 가서 뭐 그러면 가면 당  
02           인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친구분들도 있고 그러면 당이 있는  
03           분들이 있어도 얘기 안 해요. “아우 식사 조절해야 한다. 많이  
04           먹으면 안 된다. 운동해야 한다.” 뭐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05           아우 내 생각에는 “나하고는 먼 이야기만 하네” 이런 생각만.  
06           내가 직접 걸렸는데도 나하고 먼 이야기만 한다는 생각만  
07           든다니까.



- 08 인터뷰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 먼 얘기라는 게...
- 09 환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만, 운동을 계속 한 사람  
 10 같으면, 이렇게 잘 되는데. 그 엄마들은 젊어서부터 운동을  
 11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모르는데, 나는 ‘운동? 운동? 운동을  
 12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만 들고. 음식을 줄여라. 나 음식  
 13 줄이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 14 인터뷰어: 그러니까 당뇨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눈 게 꺼려 지시는 게  
 15 말씀 하신 그런 건가요?

예문 (95)는 당뇨에 관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 묻는 부분이다. 줄번호 01-07에서 환자 본인은 정작 주변에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고, 주변인들이 주는 정보가 자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8에서 인터뷰어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고, 줄번호 09-13에서 환자는 주변의 조언을 들었을 때의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터뷰어는 줄번호 01-07과 09-13의 언어행위를 연결사 ‘그러니까’ 이후에 ‘당뇨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눈 게 꺼려지시는 게 말씀 하신 그런 건가요?’로 요약한다. 예문 (94)와 마찬가지로 대용어 ‘그런 (것)’으로 선행 언어행위를 요약하였다. 다음은 구성적 요약의 예이다.

(96) B-5쪽

- 01 환자: 우리 오빠는 또 거제서 평(?) 거 진짜 우리 올케가 해녀짓을 하  
 02 니까. 자기는 좀 편안하지. (웃으면서) 그러니까 (정?) 그런 병이  
 03 안 오는거그 거. 그런 생각이 쫘 그거 한 사람들은 그런 병도 안  
 04 오는거 같고, 쫘 마음이 쫘... 나는 첫째로 부모 유전도 유전이지

05           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 같더라구. [중략] 나는 참 건강했어요  
 06           저는... 뭐 진짜 어른들 또 모시진 않고 그래도 자주 (놀?)로오,  
 07           시동생들 다 서울서 와서 있었으니까. 칠 형젠데 우리가 두 번째  
 08           니까. 시 큰 아들은 시골에 있구... 그게 인제 이렇게 각 그게 막  
 09           연줄이 되니까 그냥 아우 힘들더라구. 와서 다 살았으니까... 거  
 10           기서두 받았는지 유전적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11           병이 올지 모르고 건강했어요. 뭐(그러?) 어디 가서 진짜 아무  
 12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근데 그렇게 한 십이 년 전에 김  
 13           장을 오십 포기 (엄사?) 하다가 쓰러졌다니까. 김치도 못 담고  
 14           쉬러갔어요. 그때부터 자꾸 소화도 잘 안되고 근데 거기서 내가  
 15           ‘당 있다’ 소리 안 했어요.  
 16 인터뷰어: 그러니까 최근 이년동안 당 앓고 계신 거 돌아보니까 어머니...  
 17           뭐 가족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 오면서 받은 스트레스  
 18           가 참 큰거 같다...

예문 (96)은 환자가 당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스스로 추정하는  
 부분이다. 예문 (96)의 앞부분에는 환자의 여섯 형제 중 네 명이 모두  
 당뇨를 앓고 있음이 이야기되었다. 줄번호 02-15에서 환자는 ‘스트레스  
 가 만병의 원인 (줄번호 05)’, ‘시동생들 다 서울서 와서 있었으니까  
 (줄번호 07)’, ‘그냥 아우 힘들더라구 (줄번호 09)’의 표현을 통해 본인이  
 추정하는 당뇨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스트레스’의 통상적 조건에 해당하며 당뇨의 원인이 ‘시댁 식구로 인한  
 스트레스’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줄번호 16-18에서 인터뷰어는  
 ‘당뇨의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큰거 같다’라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16의  
 연결사 ‘그러니까’를 통해 환자의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와 후행 언어 행위가 연결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요약은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에 나열된 다양한 사태와 그것의 일반화한 어휘 혹은 선행 사태의 구성적 특성을 포함한 후행 언어행위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 되고 연결되는 후행 언어행위는 선행 언어행위의 요약으로 이해된다.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요약하자면’ 으로 대체될 수 있다.

요약 [지시 방향 – 역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5.3.6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연’은 후행하는 언어행위 B에서 선행하는 언어 행위 A의 이해를 위해 추가되는 상황적 혹은 맥락적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행위이다.

(97) B-21쪽

- 01 환자:       응. 아 어디 가서도 당이 걸렸다고 막 가서 뭐 그러면 가면 당  
02               인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친구분들도 있고 그러면 당이 있는  
03               분들이 있어도 얘기 안 해요. “아우 식사 조절해야 한다. 많이

04            먹으면 안 된다. 운동해야 한다.” 뭐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05            아우 내 생각에는 ‘나하고는 먼 이야기만 하네’ 이런 생각만.  
 06            내가 직접 걸렸는데도 나하고 먼 이야기만 한다는 생각만  
 07            든다니까.  
 08 인터뷰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 먼 얘기라는 게...  
 09 환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만, 운동을 계속 한 사람  
 10            같으면, 이렇게 잘 되는데. 그 엄마들은 젊어서부터 운동을  
 11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모르는데, 나는 ‘운동? 운동? 운동을  
 12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만 들고. 음식을 줄여라. 나 음식  
 13            줄이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예문 (97)에서 환자는 당뇨에 관한 주변인들의 조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다. 줄번호 04-07에서 환자는 “그러면 아우 내 생각에는 ‘나하고는 먼 이야기만 하네’ 이런 생각만. 내가 직접 걸렸는데도 나하고 먼 이야기만 한다는 생각만 든다니까”라고 하고, 인터뷰어는 줄번호 08에서 선행 언어행위의 이해를 위해 그 말의 의미에 대해 되묻는다. 줄번호 09에서 환자는 ‘그러니까’를 도입하여 자신의 선행 언어행위의 이해를 돕는 맥락적 정보 ‘내가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만 (중략)’을 도입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으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행위의 도입을 예고하는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98) 인터뷰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 먼 얘기라는 게...

환자: 그러니까/말하자면 내가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만, 운동을

계속 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잘 되는데.

(99) C-3쪽

01 인터뷰어: 아버님이 또 당뇨에...

02 환자: 예. 아버님 맞습니다. 예.

03 인터뷰어: 아. 선생님 평소에 그 당뇨에 대한 어떤 그러면 아버님 때문에

04 평소에 당뇨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조금 있으셨을수도

05 있으셨겠어요.

06 환자: 아니요 뭐... 그냥 **그러니까** 아버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좀

07 힘든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현대?)

08 인터넷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뭐 이제

09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질병이면 질병인데, 어떻게

10 하면 뭐 자기가 잘 조절만 하면 또 쉽게 치료도 된다는 뭐

11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사실 뭐 크게 사실은 걱정은 안 하고

12 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예.

예문 (99)에서 인터뷰어는 환자에게 가족력으로 인한 염려가 있는지 묻는다. 줄번호 06에서 환자는 먼저 ‘아니요 뭐... 그냥’이라며 질문에 대한 모호한 답을 하였다가 ‘그러니까’를 통해 자신의 선행 언어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때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집중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증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예문 (97)과 마찬가지로 줄번호 06의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100) C-3, 4쪽

01 인터뷰어: 그 외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02 환자: (한숨) 하... 뭐 운동을 해긴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운동 뭐 많이  
03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이고,  
04 워낙에 직업이 좀 남들하고 다른 직업을 갖다 보니까... 그...  
05 해외 출장이 많구요,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들이 좀 많습니다.  
06 그래서 그 한 번 출장가면 이렇게 뭐 이 나라 저 나라 뭐  
07 여행사 가이드들처럼 많이 몇 나라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08 하다 보니까 뭐 불규칙하게 뭘 어떻게 장기, 정기적으로 뭐  
09 운동을 꾸준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긴  
10 되겠지만... 뭐 헬스클럽 같은데 하나 끊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한  
11 달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깐요. 예.

예문 (100)에서 인터뷰어는 환자의 당뇨 관리에 대해 묻는다. 환자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줄번호 01-03에서 ‘한숨’과 ‘말줄임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대답을 망설이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줄번호 02-03에서 환자는 ‘(한숨) 하... 뭐 운동을 해긴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운동 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고 ‘그러니까’를 통해 자신의 선행 언어행위의 이해를 위한 상황적 정보 ‘뭐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이고, 워낙에 직업이 좀 남들하고 다른 직업을 갖다 보니까(이후 생략)’을 도입한다. 연결사 ‘그러니까’를 통해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증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앞선 예들과 마찬가지로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101) C-4쪽

01 인터뷰어: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2 환자: 그쵸... 근데 이제 그거 그거는 안 되는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03 뭐 뭐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어디에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

04 은 아니고,

예문 (101)은 식이요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예문 (100)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자들은 당뇨 관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환자는 줄번호 02에서 음식 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본인의 상황적 정보 ‘뭐 뭐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어디에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를 후행 언어행위에 덧붙인다.

(102) C-5,6쪽

01 인터뷰어: 네. 그 선생님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그런거는 이제

02 아무래도 환경 직업적인 환경 상 규칙적인 게 좀 없고...

03 환자: 그쵸. 이게 막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참

04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 그래 운동하자.’ 그래서 뭐

05 해외 나갔을 때 그 뭐... 어떻게 뭐... 그 쪽 뭐 호텔에 있는 뭐

06 휘트니스 센터래든지 ‘주기적으로 이용을 한 번 해보자.’ 뭐

07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사실 또 쉽지도 않구요. 그게... 그래서

08 하여튼 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해야된다라는 생각은

09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지 어렵다... 라는 생각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102)에서 환자는 자신의 당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줄번호 03에서 환자는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줄번호 04부터 해외에서 호텔을 이용할 때의 상황적 정보를 덧붙여 자신의 당뇨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다.

(103) C-6쪽

- 01 인터뷰어: 특별하게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계신 음식이 있거나 영양식  
02           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세요?  
03 환자:     아... 아뇨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서  
04           가지고 뭐 “이런 음식 드셔야 됩니다.” 뭐 이제 병원에서 예전  
05           에 제가 당이 없었을 때 뭐 그런거는 본 적이 있어요. ‘아, 이런  
06           음식은 나도 이제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07           제가 딱히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고...  
08           **그러니까** 뭐 그런건 있죠 뭐 인제 뭐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09           뭐 이런 뭐 기름기 많은 거 그거 좀 삼가야 되고 뭐 어쨌고  
10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또 개인적으로 또 그게 제일  
11           좋아하는 취향이다 보니까 (웃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2           되도록이면 안 먹을라고 생각하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가급적이면,

예문 (103)에서 인터뷰어는 환자에게 당뇨로 인한 특별식이 있는지를 묻는다. 줄번호 03에서 환자는 먼저 ‘아... 아뇨’라고 이야기 하였다가 이어서 자신의 언어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맥락적 정보 ‘그 뭐야 그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서 가지고 뭐 “이런 음식 드셔야 됩니다.” 뭐 이제 병원에서 예전에 제가 당이 없었을 때 뭐 그런거는 본 적이



있어요. ‘아, 이런 음식은 나도 이제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하 생략)’을 덧붙인다. 또한 줄번호 07의 ‘제가 딱히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고’에 대한 상황적 정보를 줄번호 08-13에서 이어간다. 줄번호 03, 08의 ‘그러니까’ 역시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와 선행 언어행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후행 언어행위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연결된다.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행위의 도입을 예고하는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부연 [지시 방향 – 순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5.3.7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술’은 후행하는 언어행위 B 에서 선행하는 언어행위 A 에서 의미적으로 파생되는 상세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행위이다.

(104) B-4쪽

01 인터뷰어: 육형제 중에 네 명이 당이 있으세요?

02 환자: 예. 다 당, 혈압, 당 다 있어요.

03 인터뷰어: 형제들이 그러니까 뭐... 순서가 어떻게 되시고, 몇 번째

04 이시고...

05 환자: 저는 남자 형제가 둘이고, 저는 이제 딸 위의 셋째거든요?

예문 (104)는 환자의 가족력에 관한 부분이다. 인터뷰어는 줄번호 03에서 ‘형제들이’라고 질문을 시작하던 것에서 환자의 형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으로서 ‘뭐... 순서가 어떻게 되시고, 몇 번째이시고’로 물음을 상세화한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에서 의미적으로 파생된 구체적 정보의 도입을 예고하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105) 인터뷰어: 형제들이 그러니까/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순서가 어떻게 되시고, 몇 번째이시고...

(106) B-27쪽

01 인터뷰어: 지금 가족 중에서는 당 앓고 계신 분은 어머니 뿐이신 거지?

02 환자: 아니요, 위의 언니.

03 인터뷰어: 아니아니, 그러니까, 남편분 ...

04 환자: 어머 응 당 당은 없어요. 집안에 당 걸린 사람 시집으로는

05 아무도 없어요.

예문 (106)은 환자의 가족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터뷰어는 줄번호

01에서 가족 중 환자 본인 외에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환자는 줄번호 02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포함한 가족 범위에서 자신의 언니도 당뇨병에 걸렸다고 답한다. 이에 인터뷰어는 줄번호 03에서 구체적으로 ‘남편’을 명시하며 자신의 이전 언어행위의 ‘가족’의 의미를 배우자로 제한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앞선 예문과 마찬가지로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107) B-16

- 01 인터뷰어: 음. 그 당뇨 앓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02                   가족 말고 친구분들은...  
 03 환자:       친구들은 아는 엄마들은 당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땡기는 엄마도  
 04                   있는데 아니 홍삼을 먹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문 (107)에서 인터뷰어는 환자의 ‘주변 사람들’ 중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때 주변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서 줄번호 02에 ‘가족 말고 친구분들은’이라고 명시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집중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108) C-4

- 01 인터뷰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02 환자: 아… 그냥 그… 해외 전시회쪽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 뭐**  
03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열리는 전시회 쪽에 어떤 그런 서비스**  
04 **관련 업종을 하다 보니까, 그 각 나라 별로 그렇게 해외 출장을**  
05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예문 (108)에서 환자는 자신의 직업을 소개한다. 줄번호 02에서 환자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해 ‘해외 전시회쪽 일’이라고 답하고, 연결사 ‘그러니까’ 이후에 선행 언어행위가 내포하는 구체적 정보로서 ‘해외 뭐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열리는 전시회 쪽에 어떤 그런 서비스 관련 업종’을 이야기한다.

(109) C-4쪽

01 인터뷰어: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2 환자: 그쵸… 근데 이제 그거 그거는 안 되는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03 뭐 뭐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어디에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  
04 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뭐 먹어야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05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06 지역 같으면 뭐 한국 식당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쳐도, 뭐  
07 외국 음식들 보통 이제 한국 식당이 없는 나라들 많이… 그러니  
08 까 좀 어려운 나라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 막 이런 데  
09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순 없구요. 그냥 있는  
10 대로 그냥 먹는 거죠 뭐… 네.

예문 (109)는 당뇨로 인한 음식 조절에 관한 이야기이다. 환자는 잦은 출장으로 음식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줄번호 07 에서

“뭐 외국 음식들 보통 이제 한국 식당이 없는 나라들 많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식당이 없는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서 후행 언어행위 ‘좀 어려운 나라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 막 이런 데’가 연결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110) D-10

- 01 환자:       당뇨로 해서 살아가는 거는, 수명은 잘만 관리하면 수명은  
02               지장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잘 하고, 식 Mayo법 잘 하고,  
03               건강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자기 수명꺼지는 걸까 아닌가 나는  
04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문 (110)에서 환자는 당뇨가 ‘관리’를 잘하면 수명과는 무관한 병이라고 이야기한다. 환자는 줄번호 02에서 ‘관리’에 내포된 구체적 정보로서 ‘운동 잘 하고, 식 Mayo법 잘 하고, 건강하고’를 제시한다. 앞선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111) C-17

- 01 인터뷰어: 이렇게 뭐 피곤이 좀 특별히 많이 느껴지신 다거나, 머… 그런  
02               거는 없으세요?  
03 환자:       예.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일을 많이 하다  
04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는 건 저  
05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06                특별히 제가 또 피로를 많이 느낀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거  
 07                같구요. 예.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뭐 늘 뭐  
 08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09                상황이니까. 예.

예문 (111)에서 인터뷰어는 당뇨의 여러 증상 중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지에 대해 묻고, 환자는 줄번호 03 에서 ‘특별히 많이 느끼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뭐 특별히’라고 이야기한다. 연결사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에 의해 후행하는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집중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구체적 정보로서 ‘때에 따라서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는 건 저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또 피로를 많이 느낀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거 같구요’가 연결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와 선행 언어행위에서 의미적으로 파생되는 구체화된 정보를 포함한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후행 언어행위로 주의력이 집중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된다.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언어행위에서 의미적으로 파생된 구체적 정보의 도입을 예고하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상술 [지시 방향 – 순방향]

[연결 층위 – 사태]

[연결 단위 – 구 및 발화]

### 5.3.8 담화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담화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그러니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그러니까’는 선행하는 언어행위 A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언어행위 B를 전체 담화의 구성적 차원과 연결한다.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는 앞서 살펴본 다른 담화연결성들과 달리 어휘와 어휘, 절과 절 사이가 아닌 화자의 대화기여의 맨 앞에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예문을 살펴보자.

(112) C-1쪽

01 인터뷰어: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씀 하시면 되요.

02 환자: 네.

03 인터뷰어: **그러니까**... 우선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시간

04           내주셨는데...

예문 (112)는 인터뷰의 맨 앞 부분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인터뷰의 시작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대화의 시작에 앞서 인터뷰의 목적과 방향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서로 신뢰를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줄번호 01에서 인터뷰어는 해당 인터뷰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고, 환자는 이에 대해 단답형으로 ‘네’라고 이야기한 후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터뷰어는 줄번호 03에서 ‘그러니까’로 발화를 도입하며, 약간의 휴지 (...)를 가진 후 인터뷰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다. 줄번호 03의 인터뷰어의

발화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단답으로 인해 대화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대화를 속행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를 통해 후행하는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후행하는 언어행위가 전체 담화와 연결된다.

(113) A-16쪽

- 01 인터뷰어: 당뇨 진단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런 가족과의 문제, 가족 간의  
02 문제 그런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벽 때문에 가족  
03 간의 소통의 문제를 좀 느끼실 것 같은데?  
04 환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뇨 걸리기 전에도,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05 막 일하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하고,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06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다 보면 이제 그걸 할지 몰라서 안  
07 하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참을 수가  
08 있어야 되는 데, 참기는 참는데, 그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온  
09 다는 거죠. 이제.

예문 (113)에서 인터뷰어는 ‘당뇨로 인한 가족 간에 관계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한다. 환자는 이에 답하기 앞서 ‘그러니까’로 발화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 ‘그러-’를 통해 곧 도입될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게 되고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환자의 대답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뒤에 위치한 ‘이제’ 역시 한국어의 전형적인 담화표지로서 이기갑(1995: 271)은 ‘이제’를 새로운 발화의 진행에 앞서 선행 발화를 매듭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영어의 ‘now’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now’ 역시 Holiday/Hasan (1976),



Schiffrin(1987)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영어의 전형적인 담화표지로 언급된다.

(114) C-16쪽

- 01 인터뷰어: 선생님 아까 이제 당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조금 많이 찾아  
02 보셨다고 하셨는데, 정보는 어떻게 얻고 계세요?  
03 환자: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예전에  
04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당뇨에… 뭐… 당뇨라고 뭐…  
05 하셔가지고 된 게 여동생이랑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뭐  
06 병원에서 온 병원 서적이 오더라구요. 저희 아버님은, 그거 그런  
07 것들, 그 다음에 아버님 당뇨있었을 때, 이제 우리 동생들하고  
08 인터넷 다 찾아가지고 조사해 보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이  
09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냐, 뭐를 안 해야 되냐, 그 때 이제 다  
10 스터디 모임 한 번 한 거죠. 예.

예문 (113)과 마찬가지로, 예문 (114)에서 인터뷰어는 환자에게 새로운 주제의 질문을 던진다. 환자는 ‘그러니까’로 이에 대한 대답을 시작한다. 이때 ‘그러니까’의 뒤에 위치한 ‘뭐’ 역시 한국어의 전형적인 담화표지로서 남길임/차지현(2010: 106f.)은 예문 (114)에서와 같이 절의 경계에 나타나는 ‘뭐’가 ‘시간 별기’의 기능을 가지며, 다음 발화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문 (115)도 예문 (114)와 유사하게 발화가 도입된다.

(115) C-12쪽

- 01 인터뷰어: 음… 아까 이제 당뇨 때문에 어떤 심적인 부담은 좀 많이 갖고

02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뭐… 앞으로의 어떤 두려움  
 03            뭐 염려 되시는 부분, 뭐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04            있으세요?  
 05 환자: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특정하게 당뇨 부분만이 아니고 나이도  
 06            있고 이제 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 생활도 사실  
 07            불규칙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당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08            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좀 사실 내 나름대로 플란을 좀  
 09            가져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문 (115)에서 인터뷰어는 당뇨로 인한 심적 부담에 대해 질문하고 환자는 ‘그러니까’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입하고 이따라 ‘시간 벌기’의 목적으로 ‘뭐’가 발화된다. 이와 같이 담화를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뭐’와 같은 유사한 기능의 언어적 표현들과 새로운 발화기여의 맨 앞 부분에 함께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116) A-19 쪽

01 인터뷰어: 당뇨 진단 이후에도 또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고 공부도  
 02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환자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03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있구나, 또는 참 크구나  
 04            하고 느끼셨을 법한데,  
 05 환자:    **그러니까**,  
 06 인터뷰어: 어떤 부분에서 그런 큰 오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07            생각하시는지요?  
 08 환자:    **그러니까** 당뇨는 음식을 가려먹어야 한다. 음식을, 그것에 대한  
 09            편견이 굉장히 많죠.

예문 (116)에서 인터뷰어는 환자에게 ‘당뇨에 관한 편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줄번호 01-04에서 인터뷰어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질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 이에 환자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줄번호 05에서 바로 ‘그러니까’로 대답을 도입하려 하지만 인터뷰어는 줄번호 06에서 계속 질문을 이어간다. 줄번호 05의 ‘그러니까’ 이후에 발화의 한 단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지를 표시하는 쉼표 ‘,’의 사용을 통해 인터뷰어와 환자 간 발화기여가 긴박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줄번호 06-07에 인터뷰어의 질문이 끝난 후에 줄번호 08에서 화자는 ‘그러니깐’으로 다시 대답을 시작한다. ‘그러니깐’은 ‘그러니까’에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이 종성에 덧붙은 형태로서 이를 통해 화자가 대화기여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7) C-15,16쪽

- 01 인터뷰어: 선생님의 어떤 그런 긍정성? 낙천성이 이 병을 관리하는데  
 02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갖는 거...라고 느껴지세요?  
 03 환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깐** 저 만... 이게 또 틀립니다. 제가 또  
 04           치과는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 (웃음)

예문 (117)에서 인터뷰어는 긍정적인 성격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다. 줄번호 03에서 환자는 ‘그러니까’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도입하고, ‘뭐’를 통해 담화를 도입하기 위한 시간을 번 후, 다시 ‘그러니까’의 강조형인 ‘그러니깐’을 발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답을 이어간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담화를 도입하는 ‘그러니까’는 담화의 구성과 조직의 차원에서 후행 언어행위를 담화의 단락에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니까’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후행 언어행위가 담화의 구성적 층위와 연결된다.

담화 [지시 방향 – 순방향]

[연결 층위 – 메타 담화]

[연결 단위 – 담화의 단락]

이 장에서는 실제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는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 ‘추론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요약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담화를 도입하는 그러니까’의 총 8개의 담화연결성이 확인되었다.

## 6. *also, deshalb,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 비교

여기에서는 앞서 분석한 *also, deshalb,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also*의 담화연결성에 따른 기능 분석 범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i>also</i> 의 담화연결성	지시 방향	연결 층위	연결 단위
추론성은 도입하는 ALSO	역방향	사태	구 및 발화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	역방향	발화행위	구 및 발화
수정을 도입하는 ALSO	순방향	발화행위	구 및 발화
요약을 도입하는 ALSO	역방향	사태 및 인식 층위	구 및 발화
부연을 도입하는 ALSO	순방향	사태	구 및 발화
상술을 도입하는 ALSO	순방향	사태	구 및 발화
담화를 도입하는 ALSO	순방향	메타 담화	담화의 단락

기능 분석 범주인 ‘지시 방향’이 순방향인 기능 범주 ‘수정의 도입’, ‘부연의 도입’, ‘상술의 도입’, ‘담화의 도입’의 경우, 후행 언어행위에서 청자 입장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특성을 보인다. 지시의 방향이 순방향인 경우, 청자의 주의력을 (언어의 선형적 특성상) 아직 수행되지 않은 언어행위 쪽으로 향하게 하여 언어행위의 효과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Techtmeier(1984)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효과는 선행하

거나 후행하는 ‘발화의 수용 Akzeptieren’과 관련된다.<sup>123</sup> ‘연결 층위’의 경우, ‘요약의 도입’을 제외하고 담화연결성마다 연결될 수 있는 층위가 한 가지로 제한된다. 앞서 언급한 Sweetser(1990)의 견해와 같이, 연결사의 연결 층위에 따라 의미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담화연결성과 연결 층위가 일대일 대응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코퍼스 연구를 통해 ‘요약의 도입’의 ‘인식 층위’의 연결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담화연결성 내 하위분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deshalb*의 담화연결성에 따른 기능 분석 범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i>deshalb</i> 의 담화연결성	지시 방향	연결 층위	연결 단위
추론성은 도입하는 DESHALB	역방향	사태	구 및 발화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	역방향	사태	구 및 발화

*deshalb*의 담화연결성으로는 ‘추론성을 도입하는 DESHALB’와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의 총 2개가 확인되었다. 이는 *also*에 비해 매우 제한된 사용 맥락을 갖는 것이다. *also*와 *deshalb*가 갖는 기능의 다양성 정도는 두 어휘를 구성하는 직시적 절차의 지시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deshalb*의 직시적 성분 ‘des-’는 선행하는 문장의 일부분을 후방 조음적으로 지시하고, 이는 *also*의 직시적 성분 ‘-so’가

<sup>123</sup> Techtmeier(1984)는 메타 화행의 연역적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대화연속체 구조 내에서의 메타 화행은 이해 확보, 효과 확보, 적절한 대화 진행 구성 확보로 세분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Techtmeier (1984: 183f.) 참조.

선행 혹은 후행 하는 문장의 일부를 후방조응 혹은 전방조응적으로 모두 지시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제한적인 지시 가능성이다. 다음으로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 에 따른 기능 분석 범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		지시 방향	연결 층위	연결 단위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	선행 발화 지시	역방향	발화 행위	구 및 발화
	선행 발화의 행위 지시		사태	
	선행 발화 동의		사태	
추론성은 도입하는 ‘그러니까’		역방향	사태	구 및 발화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역방향	발화행위	구 및 발화
수정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순방향	발화행위	구 및 발화
요약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역방향	사태	구 및 발화
부연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순방향	사태	구 및 발화
상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순방향	사태	구 및 발화
담화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순방향	메타 담화	담화의 단락

여기에서는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으로 *also* 의 담화연결성과 일치하는 7 개의 담화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also* 와 ‘그러니까’가 상당히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lso* 에서

확인되지 않은 연결 의미인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발화에 대한 지시적 성격이 강한 연결 의미로서 현대 독일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also* 의 ‘*ganz so*’의 의미와 유사한 사용 맥락을 갖는다. 이와 같은 *also* 와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의 유사성과 *also* 와 *deshalb* 의 담화연결성의 다양성의 차이는 절차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also*, *deshalb*, *그러니까*의 절차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9>

<i>al</i>	<i>so</i>	<i>al</i> + <i>so</i>	<i>also</i>
명명장	직시장	명명장 + 직시장	직시장 → 연산장

<i>des</i>	<i>halb</i>	<i>des</i> + <i>halb</i>	<i>deshalb</i>
직시장	명명장	직시장 + 명명장 ↓ 직시장 + 연산장	연산장

<i>그러</i>	<i>니까</i>	<i>그러</i> + <i>니까</i>	<i>그러니까</i>
직시장	명명장	직시장 + 명명장 ↓ 직시장 + 연산장	연산장

*also*, *deshalb*, *그러니까*의 절차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also* 는 명명장 ‘*al-*’과 직시장 ‘*-so*’의 합성어로서, ‘*ganz so*’의 의미로 직시 절차를 수행했던 *also* 가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 연결사 *also* 로 장전환 하였다.



- *deshalb* 는 직시장 ‘des-’와 명명장 ‘-halb’의 합성어로서, (‘방향 Richtung’, ‘쪽 Seite’을 나타내는) 명명장 ‘-halb’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적 의미로 변화하고,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 *deshalb* 로 구성되었다.
- ‘그러니까’는 ‘그러-’ ‘-니까’의 합성어이다. ‘-니까’가 ‘원인’을 의미하는 명명장에서 (넓은 의미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변화하고,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 ‘그러니까’로 구성되었다.

*also, deshalb, 그러니까*의 절차적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deshalb* 와 *그러니까*는 장 전환된 의미로 연산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그러니까*가 *deshalb* 에 비해 의미가 다양하고 더욱 기능화된 것은 각각의 직시적 성분 ‘그러-’와 ‘des-’의 지시 가능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des-’는 텍스트 및 담화 내에서 후방조음적으로 선행하는 언어행위의 일부분을 지시하는 반면 ‘그러-’는 방향의 제한 없이, 텍스트 혹은 담화 내의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언어행위를 모두 지시할 수 있다.
2. 마찬가지로 *also* 는 *deshalb* 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이는 *also* 의 직시적 성분 ‘-so’가 *deshalb* 의 직시적 성분 ‘des-’에 비해, 더 높은 지시가능성을 갖는 점과 일치한다.
3. *also* 와 *그러니까*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데, 이는 각각의 직시적 성분의 담화 및 텍스트 내에서의 양방향 지시 가능성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결사의 직시적 성분의 지시 가능성은 연결사의 기능의 다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 결론

본 논문은 연결사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연결사에 포함된 직시적 성분의 의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연결사의 담화연결성 기술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결사의 연결성 분석을 위한 세 가지 범주를 도입하고 *also*의 기능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어들을 재정의하여 실제 언어 생활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독일어 연결사 *also*의 담화연결성을 인터뷰 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also*와 유사한 사전적 의미를 갖지만, 제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며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을 보이지 않는 독일어 연결사 *deshalb*를 분석하고 *also*의 담화연결성과 비교하여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과 직시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정립한 연결사의 연결성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하는 한국어의 연결사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함으로써 직시적 표현에서 파생된 연결사의 의사소통 기능 다양화가 언어 전반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 논문에서 정립한 연결사 분석 방법론을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장에서는 *also*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also*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 분석을 위해 기능화용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 나타난 *also*의 통사적, 의미적, 의사소통 기능적 특성을 보면, 각 문법서마다 서로 다른 관점 (의사소통 기능, 의미 관계, 어휘의 구성적 특징 등)에서 *also*를 기

술하거나, 상황에 따라 ‘부사 *also*’, ‘담화 표지 *also*’ 등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1.1.1장 참조). 또한 *also*의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언어행위의 결과물인 발화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행위를 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also*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 기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1.1.2장 참조). 1.2장에서는 위에 나열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능화용론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기능화용론은 행위 이론과 빌러의 오르는 모델의 영향을 받은 언어의 행위이론으로 언어를 ‘행위의 한 형태’인 ‘언어적 행위 *sprachliches Handeln*’로 보고 언어 현상을 ‘실행과 관련된 형태-기능의 구조’로 바라봄으로써,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 언어행위의 분석을 위해 통시적인 변화의 관점을 실제 언어자료 분석의 중요한 방법으로 도입한다.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절차 *Prozeduren*’는 기능화용론에서 언어행위의 가장 작은 단위로 보는데, 이는 ‘언어적-정신적 절차 *sprachlich-mentale Prozedur*’이며 지식의 언어적 처리를 나타낸다. 절차는 기능에 따라 명명 절차, 직시 절차, 연산 절차, 조종 절차, 정표 절차의 다섯 개의 장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언어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 수행하는 연결사의 연결성 분석을 위해서는 이 중 직시 절차와 연산 절차가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절차’로 이루어진 보다 큰 언어적 행위의 단위로 ‘언어행위 *Sprechhandlung*’가 있다 (1.2.1장 참조). 기능화용론의 ‘언어행위’ 개념은 이제까지 의사소통 분석의 최소 단위로 받아들여진 ‘화행’과 비교될 수 있다. 본 논문의 1.2.2장에서는 Hohenstein(2006)과 Bühler

(1982)의 연구를 참고하여, 화행 이론의 ‘화행’ 개념이 문장을 분석의 단위로 보는 관점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발화된 문장’ 이상일 수 없고, 화자와 청자에 의해 상호작용 행위인 ‘언어적 행위’ 분석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구어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제 언어 현상 관찰을 위해 ‘언어행위’를 언어 현상 분석의 최소 단위로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also*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인 ‘직시성’과 ‘담화연결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1장에서는 먼저 직시성의 개념과 *also*의 직시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also*, *deshalb*와 같은 독일어 연결사는 직시적 성분과 관계적 성분으로 구성된다. Redder (2010)와 Ehlich(1989)에 따르면, 직시적 표현은 발화 및 텍스트, 문장 내 연결과 관계되는 연결사에 다수 포함되어 독일어의 구조 확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텍스트의 연결성 생산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직시적 성분을 포함하는 연결사들의 연결성 및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직시적 표현의 생산과 이해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직시적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지시의 새로운 기준점 *Origo*이 생성되고, 이에 따라 직시적 표현이 지시하는 바가 달라지므로, 직시적 표현은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시적 표현의 분석을 위해 전통 의미론적 관점이 아닌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연결사의 연결성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hlich(1989)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청자의 주의력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며, 이는 직시적 표현을 수단으로 하는 직시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2.1.1장 참조). 이러한 배경에서 2.1.2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also*의 절차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also*는 발생 초기인 중고지 독일어 시대에서부터 신고지 독일어 시대에 이르기까지 ‘ganz so’의 의미로 직시 절차를 수행하다가 현대 독일어에 이르러 넓은 의미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로 기술되어 언어행위의 인지적 처리를 담당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 전환’을 통해 *also*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지시적 의미가 약화되고 기능화되어 언어행위의 인지적 처리를 담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also*의 연결성 분석을 위해서는 *also*를 구성하는 직시적 성분의 지시적 의미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also*의 연결성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범주로서 ‘지시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also*의 직시적 성분 ‘so’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나 상황의 한 요소나 양상을 지시하는데, 담화 혹은 텍스트 내에서 언어행위 간에 연결을 담당하는 연결사 *also*는 선형적인 언어의 특성 상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언어행위의 일부를 지시할 수 있다 (2.1.3장 참조). 2.2장에서는 담화연결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2.2.1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also*가 갖는 담화를 조직하는 기능을 근거로 *also*를 담화표지로 기술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의사소통의 구성과 조직은 구어와 문어 구분 없이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며, 따라서 이미 명명에서부터 구어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담화표지라는 기술은 적절치 않다. 또한 모든 언어적 표현들이 의미는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의 가변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다양한 기능은 우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

나라, 형태와 의미 요소들의 역사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언어적 표현의 다양화된 의미와 기능들은 마치 생물의 유전자 정보와 같이 언어적 표현 내에 포함되어 의미와 기능을 구성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언어 변화는 계속되므로, 현재 사용되는 의미와 기능 역시 변화의 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으로 기능화된 언어행위의 내재적 특성, 즉 어휘적 특성으로부터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여 현재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언어행위를 보다 체계적이고 본질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2.2.2장에서는 담화연결성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의 방법론과 연결사의 연결성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본 논문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담화연결성 분석 방법론의 큰 갈래 중 하나로 응집 관계로 텍스트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것은 텍스트 이해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며, 여러 가능한 응집 관계 중 적합한 응집 관계로의 인지적 선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응집 관계 혹은 연결 관계의 규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언어적 행위의 의미적 차원이 아닌, 언어적 행위의 생산과 이해의 전 과정을 포함한 인지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연결사의 담화연결성 분석을 위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의사소통 단위를 연결하는 연결사의 의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적 차원의 텍스트 응집성을 지칭하는 ‘응집 관계’라는 개념 대신에 연결사의 연결적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연결 의미’를 제안하였다. 또한 연결사의 의미 기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실제 언어 사용에서 연결사

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관계 중 하나의 관계가 특정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연결사의 연결성 규정을 위한 핵심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사를 사용한 언어적 행위의 연결은 ‘일련의 과정’이며, 연결사의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은 절차적이며 가변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연결사들이 포함하고 있는 연결사의 형태적 요소의 특성에 의해 연결사가 다양한 의미적 관계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미 · 의사소통 기능적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2.2.3장에서는 연결성 분석을 위한 중요한 범주로서 연결 층위와 연결 단위를 제안하였다. Sweetser(1990)와 Rehbein(2012)의 연결성 정의에 따라 연결성 분석을 위해 ‘언어적 행위의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고, 연결사로 연결되는 언어행위의 단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발화수반력 관계’, ‘인식적 관계’, ‘사태 관계’와 더불어, 연결된 발화의 단위뿐 아니라, 가장 큰 언어적 행위인 담화 혹은 텍스트의 차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메타담화적 층위’를 포함시켰다. 또한 층위의 보다 상세한 구분을 위해, 언어행위를 구성하는 부분 행위로서 음성 행위와 형태 행위를 포함하는 ‘발화 행위 (표현 행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연결된 언어행위의 형태 · 통사적 단위의 파악을 위해 발화내부적으로는 구와 구성소, 발화외부적으로는 전체 발화 및 담화의 구성적 차원의 연결 단위 구분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담화연결성은 연결사가 나타내는 의미 ·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며, 연결 의미는 연결사 내부의 구성 요소에 기인하여 절차적 방식으로 생성된다. 연결사를 구성하는 직시적 성분의 지시 방향(순방향, 역방향)으로 주의력의 방향이 결정되고, 언어행위의 다양한 연결 층위(발화 행위, 발화수반력, 인식, 사태, 메타 담화적 차원)와 연결

된 언어행위 단위(구 및 구성소, 발화, 담화의 단락)의 크기를 파악함으로써 연결성이 특정될 수 있다.

3장에서는 *also*의 담화연결성의 기능 범주들인 ‘추론’, ‘요약’, ‘수정’, ‘상술’, ‘메타 담화 도입’, ‘풀어쓰기’, ‘부연’에 대해 살펴보았다. 3.1장에서는 먼저 ‘추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논리학적 의미의 ‘추론’과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뜻하는 ‘추론성’을 구분하였다. Waßner (2004)에 따라, 언어학적 의미에서 ‘추론’은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통해 선행하는 문장이 참인 명제에 근거해서 후행하는 명제가 참임을 연결사를 수단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추론적 문장 연결 관계를 ‘추론성’이라 한다. 3.2장에서는 ‘풀어쓰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 언어행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정보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풀어쓰기’에 대해 정의한 Longacre(1996)의 정의 중 ‘정보의 증가’ 유형을 엄격한 의미의 ‘풀어쓰기’로 보고, ‘풀어쓰기’는 언어행위 A와 B 간의 동의적 의미 관계로서 발화 행위 층위의 다르게 표현하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3.3장에서는 ‘수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수정’을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인 언어행위 A와 그것을 바로 잡는 더 적절한 언어행위 B간의 의미 관계로 기술하였다. 수정은 문제가 되는 언어행위 A의 종류에 따라 발화 행위 층위의 수정과 담화의 구성적 차원의 수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3.4장에서는 ‘상술’과 ‘부연’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술’과 ‘부연’은 기존 문헌에서 비교적 많이 다뤄지지 않았으며, 이 둘은 선행하는 언어행위보다 후행하는 언어행위 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추가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상



술’은 선행하는 언어행위의 사태에 의미적으로 내포된 구체적 정보를 담는 언어행위이고, ‘부연’은 선행하는 언어행위의 이해를 위해 추가된 상황적 혹은 맥락적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행위이다. 3.5장에서는 ‘요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Kintsch/van Dijk(1978)가 기술한 요약의 과정을 참고하여 ‘요약’을 일반화된 요약과 구성적 요약으로 구분하였다. 일반화된 요약은 언어행위 A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상위어를 사용해서 수행되는 요약 행위이며 구성적 요약은 언어행위 A에 나타난 사태의 통상적 조건 및 구성요소, 결과, 특성을 언급함으로써 수행되는 언어행위이다. 3.6장에서는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메타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으로서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언어적 수단은 담화의 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소통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also*는 후행하는 언어행위를 전체 담화의 구성적 차원과 연결한다.

4장에서는 독일 질병체험 이야기 german DIPEX의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대화에서 나타나는 *also*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할 세 개의 인터뷰 자료를 소개하고 (4.1장 참조) 본 논문에서 도출한 *also*의 연결성 분석을 위한 세 가지 범주 ‘지시 방향’, ‘연결 층위’, ‘연결 단위’를 이용한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4.2장 참조). 4.3장에서는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와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데,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하

는 언어행위로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추론적 연결의미를 통해 구 및 발화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되어 후행 사태는 선행 사태에 대한 타당한 결론으로 이해된다.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는 여러 문법서에서 언급되는 *also*의 대표적인 담화연결성이지만 실제 인터뷰 자료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었다. 현대 독일어에서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의 사용 감소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차후에 코퍼스를 이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의 사용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4장에서는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에 대해 살펴보았다.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차원을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데,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풀어쓰기를 도입하는 연결의미를 통해 구 및 발화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가 연결되어 발화 행위 층위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된다. 4.5장에서는 ‘수정을 도입하는 ALSO’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정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의 부적합한 표현을 후행 언어행위의 적합한 표현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데, 연결사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하여 구 및 발화 단위의 수정하는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수정될 선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발화행위 층위가 연결된다. ‘수정’은 문제가 되는 선행 언어행위의 특성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데, 언어학적 기준에 따른 발화행위 층위의 ‘수정’은 발음 수정, 어휘 수정, 문법 및 문장 구조 수정으로 나뉠 수 있다. 4.6장에서는 ‘요약을 도입하는 ALSO’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에 나열된 다양한 사태를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혹은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적 차원

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연결사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요약된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 및 인식적 층위가 연결된다. 요약은 요약된 언어행위의 내용에 따라 일반화된 요약과 구성적 요약으로 나뉠 수 있으며, 요약이라는 언어적 행위의 특성상 초점화되는 선행 언어행위는 비교적 긴 언어행위 연속체를 이룬다. 4.7장에서는 ‘부연을 도입하는 ALSO’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연을 도입하는 ALSO’는 시간이나 장소, 태도 등의 새로운 상황적 내용이 추가되는 후행 언어행위를 선행 언어행위와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하며, 추가되는 정보는 선행 언어행위의 내용적 확장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부연을 도입하는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하여,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추가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구 및 발화 단위의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연결된다. 4.8장에서는 ‘상술을 도입하는 ALSO’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술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 언어행위와 선행 언어행위에서 의미적으로 파생된 상세화된 정보를 포함하는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상술을 도입하는 ALSO’의 직시적 성분을 통하여, 후행 언어행위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선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와 후행 언어행위의 사태 층위가 연결된다. 인터뷰를 이끌어 가는 인터뷰어의 질문에서 다수의 ‘상술을 도입하는 ALSO’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9장에서 살펴본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이제까지 논의된 기능들과 달리, 담화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메타 담화의 차원에서 후행 언어행위를 연결하는 연산 절차를 수행한다.

*also*의 직시적 성분으로 인해 후행하는, 즉 곧 도입될 담화의 구성성분으로 청자의 주의력이 향하고, 후행 언어행위는 담화의 구성적 층위와 연결된다.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발화권 확보를 위한 *also*와 자신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also*로 구분될 수 있다.

부설에서는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와 ‘담화를 도입하는 ALSO’를 중심으로 *also*의 기능과 *also*의 문장 내 위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제까지 논의된 *also*의 담화연결성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deshalb*의 담화연결성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부설 1장에서는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와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상반되는 문장 내 분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두 개의 담화연결성이 갖는 기능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어떤 언어적 표현이 문장 내의 전전장에 위치한다면 이는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담화를 도입하는 ALSO’는 담화의 구성을 위한 메타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반면,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는 선행하는 사태와 후행하는 사태와 관계하여 추론적 관계를 명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부설 2장에서는 *also*와 함께 독일어의 전형적인 추론적 연결사로서 ‘결과 귀속’의 부사로 기술되는 *deshalb*의 담화연결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deshalb*는 *also*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며, *deshalb*의 직시적 성분 ‘des-’는 선행하는 문장의 일부분을 후방조음적으로 지시한다. 이는 *also*의 직시적 성분 ‘-so’가 선행 혹은 후행하는 문장의 일부를 후방조음 혹은 전방조음적으로 모두 지시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제한적인 지시 가능성이다 (부설 2.1장 참조). 기능화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des’와 ‘halb’는 어원론적으로 각각 직시 절차와 명명

절차를 수행하였다가 두 성분이 결합하면서 연결사의 의미로 사용되어 연산 절차를 수행하게 되었다 (부설 2.2장 참조). 부설 2.3장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이용한 *deshalb*의 담화연결성의 분석을 통해 ‘추론성을 도입하는 DESHALB’와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를 구분하였다. ‘추론성을 도입하는 DESHALB’의 구성 요소 ‘des-’를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연산 절차를 수행하는 ‘-halb’로 인해 후행 언어행위는 선행 언어행위에 나타난 사태에 대한 타당한 결론으로 이해된다 (부설 2.3.1장 참조). ‘결과를 도입하는 DESHALB’는 ‘이유 Grund’에 해당하는 선행 언어행위에 나타난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 Folge’를 도입한다. 직시 절차 ‘des-’를 통해 선행 언어행위가 초점화되고 연산 절차 ‘-halb’로 인해 후행 언어행위가 선행 언어행위로 기술된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연결된다.

5장에서는 *also*와 의미상·기능상 대역어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의 담화연결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니까’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로서 ‘그러하(다)’+ ‘-(으)니까’ 으로 구성된다. 어간 ‘그러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를 의미하고 연결 어미 ‘-(으)니까’는 ‘-(으)니’에 강조하는 어미 ‘-까’가 덧붙여진 표현이다. ‘-(으)니까’는 19세기에 처음 등장하며 ‘원인’ 혹은 ‘발견 및 경험’의 의미를 지녔고 이 중 ‘원인’의 의미가 접속부사 ‘그러니까’로 승계되었다. ‘그러니까’는 접속부사로 처음 사용된 현대국어 에서 ‘그러니까’를 구성하는 연결 어미 ‘-(으)니까’가 명명장에서 연산장으로 장 전환함으로써 연산장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deshalb*의

구성적 특징과 일치한다 (5.1장 참조). 5.2장에서는 이제까지 살펴 본 *also*, *deshalb*, ‘그러니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결사의 담화연결성과 연결 층위가 일대일 대응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연결사 내의 직시적 표현으로 인한 지시의 방향이 순방향인 경우, 후행 언어행위에서 청자 입장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청자의 주의력을 (언어의 선형적 특성상) 아직 수행되지 않은 언어행위 쪽으로 향하게 하여 언어행위의 효과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연결사 기능의 다양성의 차이는 두 어휘를 구성하는 직시 절차의 지시 가능성(한방향 혹은 양방향)을 반영하다. *also*에 비해 제한된 기능을 갖는 *deshalb*는 연결사를 구성하는 직시적 성분의 선행 지시만이 가능하고, 반면 *also*의 직시적 성분 ‘so’는 양방향 지시가 가능하다. 또한 직시적 성분의 양방향 지시가 가능한 *also*와 ‘그러니까’의 기능의 다양성의 정도가 유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는 *also*가 갖는 7개의 담화연결성을 모두 포함하는데, *also*에서 확인되지 않은 ‘선행 발화를 지시하는 그러니까’는 선행 발화에 대한 지시적 성격이 강한 연결 의미로서 현대 독일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also*의 ‘ganz so’의 의미와 유사한 사용 맥락을 갖는다.

본 연구는 기능화용론적 관점에서 언어 현상을 ‘실행과 관련된 형태-기능의 구조’로 보고, 형태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 절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언어행위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행위의 체계적인 기술을 위한 통합적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시간과 기술 방식의

제약으로 한정된 분석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연구에서 확장된 코퍼스를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 현대 독일어에서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의 사용 감소를 예측해볼 수 있었다. 추후 코퍼스를 이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통시적 관점에서 ‘추론성을 도입하는 ALSO’의 사용량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문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also*, *deshalb*, *그러니까*의 연결성을 분석함으로써 구어와 문어에서의 담화연결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어 텍스트는 화자와 청자가 공존하지 않으므로 청자의 이해를 위해 더욱 명시적이며 확정적인 언어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담화연결성의 종류와 빈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담화의 종류와 텍스트 유형, 텍스트의 주제에 따른 *also*의 담화연결성 사용 양상을 확인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론을 독일어와 한국어의 다른 연결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직시성과 담화연결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연결사의 연결성 분석을 위한 핵심 범주인 지시 방향 기술의 방법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직시적 성분을 통한 지시는 정신적 처리 과정에 해당하므로 언어 직관에 기대어 설명할 수 밖에 없었다. 인지언어학에 도움으로 이 부분이 검증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구명철 역 (2006): 독일어 통사론. 한국문화사. [원저: Pittner, K./Berman, J. (2004): Deutsche Syntax. Ein Arbeitsbuch. Tübingen: narr studienbücher.의 한국어 번역본]
- 강소영 (2009): “담화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 연구”. 어문연구 60, 27-56.
- 신수송 편 (2002): 독일어의 구조와 의미. 역락.
- 남길임/차지현 (2010): “담화표지 ‘뭐’의 사용패턴과 기능”. 한글 288, 91-119.
- 서성교 (1994):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 ‘-니까’의 인지·화용론적 연구 시론”.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460-475.
- 안주호 (2000): “‘그러-’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 국어학 35, 113-141.
- 양명희 (2007): “국어사전의 유의어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165-184.
- 이기갑 (1994): “‘그러하-’의 지시와 대응, 그리고 그 역사”. 언어 19(2), 455-488.
- 이기갑 (1995):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1, 261-287.
- 이원경 (2002): “기능화용론의 화행 분석”. 텍스트 언어학 13, 169-188.
- 이정민/배영남 (1987): 언어학사전. 박영사.
- 이종열 (2000): “동의어의 인지구조와 의미적 비대칭성”. 언어과학연구 18, 257-280.
- 조국현 (2003): 메타 현상과 언어 사용의 성찰성에 관하여. 독어교육 27, 161-183.



- 조민정 (2015): “접속사의 담화표지적 쓰임에 대한 고찰 - ‘그러’ 계열의 단어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25, 147-177.
- 지광신/최경은 역 (2008): 언어이론. 언어의 서술기능. 나남 [원저: Bühler, K. (1982):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의 한국어 번역본]
- 지은영 (2007): 독일어 문장의 전전장에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의 유형과 기능.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Arens, H. (1969): Sprachwissenschaft. Der Gang ihrer Entwicklung von der Antik bis zur Gegenwart. Frankfurt: Athenäum Fischer Taschenbuch.
- Auer, P./Günthner, S. (2005): “Die Entstehung von Diskursmarkern im Deutschen - ein Fall von Grammatikalisierung?”. In: Leuschner, T. et al. (ed.): Grammatikalisierung im Deutschen. Berlin/New York: de Gruyter, 335-362.
- Ballstaedt, S. P. (2006): “Zusammenfassen von Textinformation”. In: Mandl, H./Friedrich, Helmut Felix (Hg.): Handbuch Lernstrategien. Göttingen/Bern/Wien/Toronto/Seattle/Oxford/Prag: Hogrefe Verlag, 117-126.
- Brinton, L. J.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Berlin/New York: de Gruyter.
- Bühler, K. (1982):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New York: Fischer (Uni-Taschenbücher. 1159).
- Blühdorn, H./Breindl, E./Waßner, U. H. (ed.) (2004): Brücken schlagen. Grundlagen der Konnektorensemantik. Berlin: de Gruyter.
- Burkhardt, D. (2002): Konsekutive und konklusive Konnexionen aus functional - semantischer Sicht. Bausteine einer transphrastischen Grammatik des Russischen (Vol. 70). Verlag Otto Sagner.

- Bußmann, H. (2002):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3. Aufl. Stuttgart.
- Deppermann, A./Helmer, H. (2013): “Zur Grammatik des Verstehens im Gespräch: Inferenzen anzeigen und Handlungs-konsequenzen ziehen mit *also* und *dann*”. In: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32(1), 1-39.
- Duden (1984): Die Grammatik. 8. Auflage. Mannheim/Leipzig/Wien/Zürich: Dudenverlag (= Duden, Band 4).
- Duden (2006): Die Grammatik. 8. Auflage. Mannheim/Leipzig/Wien/Zürich: Dudenverlag (= Duden, Band 4).
- Dittmar, N. (2002): “Lakmüstest für funktionale Beschreibungen am Beispiel von *auch* (Fikuspartikel, FP), *eigentlich* (Modalpartikel, MP) und *also* (Diskursmarker, DM)”. In: Fabricius-Hansen, C./Leirbukt, O./Letnes, O. (Hg.): Modus, Modalverben, Modalpartikeln. Trier: Wissenschaftlicher Verlag, 142-177.
- Davidson, T. (1874): “The grammar of Dionysios Thrax”. In: The Journal of Speculative Philosophy, 326-339.
- Egbert, M. (2009): Der Reparatur-Mechanismus in deutschen Gesprächen. Mannheim: Verlag für Gesprächsforschung.
- Ehlich, K. (1987): “so – Überlegungen zum Verhältnis sprachlicher Formen und sprachlichen Handelns, allgemein und an einem widerspenstigen Beispiel”. In: Rosengren, I. (Hg.): Sprache und Pragmatik. Lunder Symposium 1986. Stockholm: Almqvist & Wiksell, 279-398.
- Ehlich, K. (1989): “Deictic Expressions and the Connexity of Text”. In: Conte, E./Petöfi, J.S./Sözer, E. (ed.): Text and Discourse Connectedness. Amsterdam/Philadelphia: Benjamin, 33-52.
- Engel, U. (1996): Deutsche Grammatik. Heidelberg: Julius.
- Fabricius-Hansen, C. (2011): “Was wird verknüpft, mit welchen Mitteln–und

- wozu? Zur Mehrdimensionalität der Satzverknüpfung.” In: Breindl, E./Ferraresi, G./Volodina, A. (Hg.): Satzverknüpfungen: zur Interaktion von Form, Bedeutung und Diskursfunktion. Walter de Gruyter, 15-40.
- Lorenz, K./Mittelstraß, J. (2005): Enzyklopädie Philosophie und Wissenschaftstheorie, 2. Auflage, Stuttgart: Springer-Verlag.
- Glück, H. (1993): Metzler Lexikon Sprache, Stuttgart/Weimar: Springer-Verlag.
- Grimm, J. W. (1984): Deutsches Wörterbuch.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Griesbach, H./Schulz, D. (1962):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M. Hueber.
- Hartung, W. (1961): Systembeziehungen der kausalen Konjunktionen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Dissertation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 Hirschberg, J./Litman, D. (1987): “Now Let’s Talk about Now: Identifying cue phrases intonationally”. In: the 25th annual meeting on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987. Stanford, 163-171.
- Hohenstein, C. (2006): Erklärendes Handeln im wissenschaftlichen Vortrag. Ein Vergleich des Deutschen mit dem Japanischen. Iudicium.
- Kintsch, W./Van Dijk, T. A. (1978):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n: Psychological review 85(5), 363.
- Klein, J. (1987): Die konklusiven Sprechhandlungen. Studien zur Pragmatik, Semantik, Syntax und Lexik von Begründen, Erklären-warum, Folgern und Rechtfertigen. Max Niemeyer Verlag.
- Knott, A./Sanders, T. (1998): “The classification of coherence relations and their linguistic markers: An exploration of two languages”. In: Journal of Pragmatics 30, 135-175.
- Lohnstein, H. (2004): “Variable und invariante Strukturmerkmale von

- Satzkonnektoren". In: Blühndorn, H. et al. (ed.): Brücken schlagen. Grundlagen der Konnektorenssemantik. Berlin/New York: de Gruyter, 137-160.
- Longacre, R. E. (1996): The Grammar of Discourse, second Edition. New York/London: Plenum Press.
- Lyons, J. (1995): Einführung in die moderne Linguistik. CH Beck.
- Pasch, R./Brauß, U./Breindl, E./Waßner, U./Konerding, K. P. (2002):  
Konsekutivität als grammatisches und diskurspragmatisches Phänomen. Untersuchung zur Kategorie der Konsekutivität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Stauffenburg.
- Pasch, R. (2003): Handbuch der deutschen Konnektoren. Linguistische Grundlagen der Beschreibung und syntaktische Merkmale der deutschen Satzverknüpfen (Konjunktionen, Satzadverbien und Partikeln). Berlin/New York: de Gruyter. (= Schriften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9).
- Paul, H. (1992): Deutsches Wörterbuch. 9., vollständig neu bearbeitete Auflage von Helmut H. und Georg O. unter Mitarbeit von Heidrun K. J.. Tübingen: Niemeyer.
- Redder, A. (2005): "Wortarten oder sprachliche Felder, Wortartenwechsel oder Feldtransposition?". In: Knobloch, C./Schäeder, B. (Hg.): Wortarten und Grammatikalisierung. Tübingen: Niemeyer, 43-66.
- Redder, A. (2007): "Wortarten als Grundlage der Grammatikvermittlung?". In: Köpcke, K. M./Ziegler, A. (Hg.): Grammatik in der Universität und für die Schule. Tübingen: Niemeyer, 129-146.
- Redder, A. (2010): Prozedurale Mittel der Diskurs- oder Textkonnektivität und das Verständigungshandeln (Grammatik und sprachliches Handeln III). 45-67.

- Rehbein, J. (1981): "Announcing-on formulating plans". In: Coulmas, F. (ed.): *Conversational Routine 1981*, 187-214.
- Rehbein, J. (1995): "Über zusammengesetzte Verweiswörter und ihre Rolle in argumentierender Rede". In: *Wege der Argumentationsforschung 1995*, 166-198.
- Rehbein J. (2012): "Aspekte koordinierender Konnektivität - Bemerkungen zu *aber*, *also* sowie *und*". In: Roll, H./Schilling, A. (Hg.): *Mehrsprachiges Handeln im Fokus von Linguistik und Didaktik. Wilhelm Grießhaber zum 65*, 237–262.
- Schegloff, E. A./Jefferson, G./Sacks, H. (1977): "The Preference for Self-Correction in the Organisation of Repair in Conversation". In: *Language* 53, 361-382.
- Searle, J. R./Wiggershaus, R./Wiggershaus, R. (1971): *Sprechakte. ein sprachphilosophischer Essay*. Vol. 4. Frankfurt a. M.: Suhrkamp.
- Stede, M./Walter, M. (2011): "Zur Rolle der Verknüpfungsebene am Beispiel der kausalkonnektoren". In: Breindl, E./Ferraresi, G./ Volodina, A. (Hg.): *Satzverknüpfungen. Zur Interaktion von Form, Bedeutung und Diskursfunktion*. (= *Linguistische Arbeiten* 534). Berlin/New York: de Gruyter.
- Techtmeier, B. (1984): *Das Gespräch. Funktion, Normen und Strukturen* (Vol 19). Berlin: Akademie-Verlag.
- Traugott, E. C./Trousdale, G. (2010): "Gradience, Gradualness and Grammaticalization: How do they intersect?". In: Traugott, E./Trousdale, G. (Hg.): *Gradience, Gradualness and Grammaticalization 1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44.

# Zusammenfassung

## Deiktische Prozeduren und Diskurskonnektivität

Eine Untersuchung zu den kommunikativen Funktionen des Deutschen  
*also*, *deshalb* und Koreanischen *kulenikka* aus funktional-pragmatischer Sicht

Ji, Eun Young

Das Hauptziel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besteht darin, Diskurskonnektivität von Konnektoren, die verschiedene kommunikative Funktionen haben, aus funktional-pragmatischer Sicht zu erklären. Konnektoren, die mit der An- und Verknüpfung in Rede bzw. Text oder Satz zu tun haben, enthalten deiktische Ausdrucksmittel als Wortelemente. Diese Arbeit konzentriert sich auf die Korrelation der Konnektivität von Konnektoren und auf deiktische Ausdrucksmittel als Wortelemente der Konnektoren, um die konnektiven Relationen bzw. Bedeutungen der Konnektoren zu analysieren. Für die Analyse der konnektiven Relationen bzw. Bedeutungen von Konnektoren ist es unerlässlich, die Bedeutung der deiktischen Ausdrucksmittel als Wortelemente von Konnektoren zu erfassen. Vor diesem Hintergrund beschäftigt sich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damit, die kommunikativen Funktionen des Deutschen *also*, *deshalb* und Koreanischen *kulenikka* herauszuarbeiten.

Im ersten Kapitel wurde die bisherige Forschung zu dem Konnektor *also* vorgestellt und bestehende Probleme erläutert. Dadurch wurden funktionale

pragmatische Herangehensweisen hervorgehoben, mithilfe derer Konnektoren mit verschiedenen Funktionen auf syntaktischen, semantischen und pragmatischen Ebenen analysiert werden.

Im zweiten Kapitel wurden die Hauptkonzepte dieser Arbeit „Deiktische Prozeduren“ und „Diskurskonnektivität“ vorgestellt. „Deiktische Prozeduren“ stellen semantische Relationen dar, die durch deiktische Prozeduren durchgeführt werden. Deiktische Ausdrucksmittel haben einen wesentlichen Anteil am Strukturausbau des Deutschen und können als Zeigen des sprachlichen Handelns verstanden werden. „Diskurskonnektivität“ stellt die Summe der konnektiven Relationen bzw. Bedeutungen dar. Eine konnektive Relation//Bedeutung wird aufgrund der konstruktiven Elemente in Konnektoren durch den Verfahrensansatz der Diskurskonnektivität hergestellt. Die Untersuchung ergab vor diesem Hintergrund drei Merkmale für die Analyse der konnektiven Relationen//Bedeutungen von *also*: „Orientierung des sprachlichen Zeigens“, „konnektive Ebenen“ und „konnektive Einheiten“.

Im dritten Kapitel wurden die konnektiven Relationen bzw. Bedeutungen von *also*, basierend auf früherer Erforschung zu kommunikativen Funktionen von *also*, nämlich „Folgerung“, „Zusammenfassung“, „Reparatur“, „Spezifizierung“, „Einleitung des Metadiskurs“, „Paraphrase“ und „Explikation“ neu definiert.

Im vierten Kapitel wurde die Diskurskonnektivität von *also*, die in aktuellen Interviews erscheint, durch drei Merkmale bei der Analyse der konnektiven Relationen//Bedeutungen von *also* herausgearbeitet. Dadurch konnten sieben konnektive Relationen/Bedeutungen, nämlich „folgerndes ALSO“, „Paraphrase

einleitendes ALSO“, „Reparatur einleitendes ALSO“, „Zusammenfassung einleitendes ALSO“, „Explikation einleitendes ALSO“, „Spezifizierung einleitendes ALSO“ und „Diskurs einleitendes ALSO“ festgestellt werden. In dem Exkurs wurde ferner Diskurskonnektivität von *deshalb*, nämlich „folgerndes DESHALB“, „Folge einleitendes DESHALB“.

Im fünften Kapitel wurde die Diskurskonnektivität des Koreanischen *kulenikka*, das semantisch und funktional entsprechenden Ausdruck von *also*, ermittelt. Dadurch konnten acht konnektive Relationen bzw. Bedeutungen, nämlich „vorhergehende Sprechhandlung bzw. Äußerung zeigendes *kulenikka*“ „folgerndes *kulenikka*“, „Paraphrase einleitendes *kulenikka*“, „Reparatur einleitendes *kulenikka*“, „Zusammenfassung einleitendes *kulenikka*“, „Explikation einleitendes *kulenikka*“, „Spezifizierung einleitendes *kulenikka*“ und „Diskurs einleitendes *kulenikka*“ hervorgehoben werden.

Stichwörter: Konnektoren, Deiktische Prozedur, Diskurskonnektivität, konnektive Relationen bzw. Bedeutungen, Funktionale Pragmatik, kommunikative Funktionen